

| 국어 1-1 |

정답과 해설

천재 정호웅 교과서

갈래 특강	02
1 국어	04
2 서술형 모아보기	33
3 시험 대비 문제집	41
4 실전 모의고사	50

01 시

예문 ①~⑥ 확인문제

p.6~p.9

1 ④ 2 ④ 3 ⑤ 4 ㄱ, ㄷ 5 ② 6 ②

- 1 시에서 시인은 시적 화자를 내세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 2 ‘나’는 무정한 당신을 원망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믿고 헌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3 이 시의 1연에 나타난 시구를 통해 ‘외로움, 두려움, 쓸쓸함’ 등의 정서를 느낄 수 있고, 2연에 나타난 시구를 통해 ‘서글픔, 안타까움’ 등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 4 이 시에서는 첫 행과 끝 행에 똑같은 시구를 배치하고, 각 행에서 3음보의 율격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ㄷ은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 5 이 시에서는 여러 가지 색의 꽃과 거품을 동일시하여 빗대고 있다.
- 6 이 시에 주로 쓰인 심상은 시각적 심상이다. 시각적 심상이 나타난 것은 ②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은 공감각적 심상(후각의 시각화), ③ 후각적 심상, ④ 청각적 심상, ⑤ 미각적 심상

02 소설

예문 ①~④ 확인문제

p.10~p.13

1 ① 2 ① 3 ④ 4 ③

- 1 소설에는 작가가 꾸며 낸 허구의 인물이 등장한다.
- 2 이 글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고민하는 수남이의 내적 갈등이 주로 나타난다.
- 3 ㉠에는 몽실의 심리가 직접 드러나 있다. ㉡에도 임금의 심리가 직접 드러나 있다. 나머지는 모두 간접 제시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 4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인 소설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은 ③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1인칭 주인공 시점, ② 1인칭 관찰자 시점, ⑤ 3인칭 관찰자 시점

03 수필

예문 ①~② 확인문제

p.14~p.15

1 ② 2 ①

- 1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 느낌 등을 자유롭게 쓴 경수필로, 경수필은 대부분 주관적이고 고백적인 성격을 지닌다.
- 2 수필을 감상할 때에는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하기보다는 공감하며 읽어야 한다.

04 극·시나리오

예문 ①~② 확인문제

p.16~p.17

1 ③ 2 ①

- 1 이 글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희곡이다. 희곡은 시간, 공간, 등장인물 수에 제약을 받는다.
- 2 이 글은 드라마의 대본인 시나리오로, 장면이 기본 단위이다. 막과 장은 희곡의 기본 단위이다.

05 설명문과 논설문

예문 ①~② 확인문제

p.18~p.19

1 ③ 2 ①

- 1 이 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전달하는 설명문이다.
- 2 이 글은 글쓴이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쓴 논설문이다. 사건이나 사실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글은 기사문이다.

● 갈래 특강 확인 문제

p.20~p.25

01 (1) 운율 (2) 음보 (3) 심상 (4) 연 02 ③ 03 ⑤ 04 ㄱ, ㄷ 05 ④ 06 ② 07 ② 08 백설이 09 (1) ㉠ (2) ㉡ (3) ㉢ ㉣ 10 ④ 11 ③ 12 (1) 전형적 인물 (2) 반동 인물 (3) 입체적 인물 13 ③ 14 (1) 1, 3 (2) 전지적 15 ① 16 ⑤ 17 ④ 18 ④ 19 ③ 20 ④ 21 ② 22 관찰자 23 희곡, 시나리오 24 ④ 25 ③, ⑤ 26 방백 27 절정 28 ① 29 (1) ㉠ (2) ㉢ (3) ㉡ (4) ㉣ (5) ㉤ 30 ③ 31 ③ 32 ① 33 ④ 34 (1) 정의 (2) 분류 (3) 비교 35 끝(맺음말) 36 ② 37 ⑤ 38 ④ 39 ③ 40 ③ 41 연역적 논증 42 귀납적 논증

- 01 ‘행’은 시를 이루는 한 줄 한 줄의 단위를, ‘주제’는 시에 담겨 있는 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의미한다.

- 02** 인물 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소설이나 희곡 등의 문학 갈래의 특징이다.
- 03** 시어는 일상어를 바탕으로 하되, 이를 세련되게 다듬은 언어이다.
- 04** 제시된 시는 4음보의 율격을 지닌 민요로, ‘나무’라는 단어를 일정하게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5** ④는 소리가 느껴지는 듯한 청각적 심상이 사용된 시구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시각적 심상 ② 미각적 심상 ③ 청각적 심상 ⑤ 촉각적 심상

- 06** 밑줄 친 부분에서는 자연물인 토란잎에 인격을 부여하여 마치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07** 〈보기〉에서는 ‘내 귀’를 ‘소라 껍질’로 은근히 빗댄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⑤ 역설법은 논리적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담아 표현하는 방법이다.
- 08** 제시된 시는 갈래상 시조로, 정형시에 해당한다. 시조는 종장의 첫 음보가 3음보로 고정된다.
- 09** 소설 구성의 3요소로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인 인물과 인물들이 벌이는 일과 행동인 사건,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간과 공간인 배경이 있다.
- 10** 〈보기〉의 내용은 소설의 진실성에 대한 설명이다.
- 11** 일반적으로 소설의 위기 단계에서는 갈등이 깊어지면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다.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것은 절정 단계이다.
- 13** 옥희 어머니는 여성의 재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사랑손님과 사랑을 포기한다.
- 15** 제시된 글에서는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16** 수필에 등장하는 ‘나’는 글쓴이 자신이다.
- 17** 보고문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 수필로 볼 수 없다.
- 18** 수필은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쓰는 글이다.
- 19**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나타내기는 글쓰기를 할 때 내용을 마련한 후에는 ‘개요 짜기’ 과정을 하고, 그 개요를 바탕으로 글쓰기(표현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 이 글과 같이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쓰는 수필은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의 문장을 주로 사용한다.
- 21** 이 글에서 글쓴이는 깨옛 장수 아저씨를 만난 경험을 통해 세상은 그런대로 살 만한 곳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 22** 글쓴이는 깨옛 장수 아저씨가 내민 깨옛 두 개와 “괜찮아.”라는 말에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 23** 연극의 대본은 희곡,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은 시나리오라고 한다.
- 24**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수, 작품의 길이 등에 제한이 있고 장면의 변화 역시 자유롭지 않다. 또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서술자의 묘사나 서술이 개입할 수 없다.
- 25** 〈보기〉에서는 배경이나 효과, 등장인물의 행동을 지시하고 설명하는 지시문과 등장인물이 하는 말인 대사가 나타난다.
- 26** 희곡의 대사에는 대화, 독백, 방백이 있다.
- 27** 희곡의 구성 단계는 일반적으로 ‘발단-전개-절정-하강 대단원’으로 전개되는데, 그 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극적인 장면이 나타나는 부분은 ‘절정’이다.
- 28** 시나리오의 해설, 대사, 지시문과 장면 표시로 구성된다.
- 30** ③에서 인물의 행동을 지시하는 것은 지시문의 역할이다.
- 31** 설명문은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전달하는 객관적인 글이다.
- 32** 이 글에서는 대부분의 동물은 지문이 없지만 영장류는 지문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33** 이 글에서는 영장류와 코알라의 공통점을 밝히고(비교), 지문의 역할과 대표적인 영장류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예시).
- 34** (1)은 지문의 개념을 밝히고 있고, (2)는 피부의 무늬를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3)은 둘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을 취하여 설명하고 있다.
- 35** 제시된 글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36** 이 글은 설명문의 끝부분으로, 중간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 37** 이 글은 설명문으로, ⑤는 논설문을 읽을 때 유의할 점이다.
- 38** 논설문은 글쓴이의 주장을 허위나 과장된 내용 없이 이치에 맞게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글이다.
- 39** (가), (나)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통념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 40** 누나가 분위기를 이끈다는 것은 여성의 적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글에서 말하는 성 역할과 반대되는 행동이다.
- 41** 일반적 원리를 제시한 뒤 구체적인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을 연역적 논증이라 한다.
- 42** 제시된 내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귀납적 논증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01 문학과 표현

01 3월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28

1 직유법 2 ④ 3 ⑤

- 1 연결어를 사용하여 원관념을 그와 비슷한 보조 관념에 직접 빗대는 방법은 직유법이다.
- 2 비유는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④는 ‘꽃’, ‘잎’이라는 보조 관념을 통해 쉽게 변하는 존재를 드러내고 있을 뿐 비유는 사용되지 않았다.

Clinic 오답 강의

①과 ③은 은유법, ②은 의인법, ⑤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3 운율은 같은 소리나 글자 수, 문장 구조가 반복될 때 형성된다.

● 소단원 체크

p.29

1 ① 2 ② 3 (봄)눈 4 ②

- 1 1~4연에 봄눈이 내린 날의 풍경이 그려져 있는데, 산과 들이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는 표현이나, 물소리만 ‘나즉 나즉’ 자장가처럼 들린다는 표현을 통해 고요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 2 3연에는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나직나직한 물소리가 표현되어 있을 뿐, 비유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3 이 시에서 ‘이불’은 산과 들에 쌓인 봄눈을 빗댄 표현이다.
- 4 이 시에서는 같거나 비슷한 시구(‘점심 무렵에는’, ‘산과 / 들이’-‘산과 / 들에’)와 비슷한 문장 구조(‘봄눈이 내리더니’-‘해가 떠오르더니’)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소단원 핵심 정리

p.30

봄눈, 반복, 고요한, 봄눈, 직유법, 사람, 의성어

학습

활동 엮보기

p.31~33

학습활동 이해 1 아름다움 2 자장가, 비유, 주제 3 평 평, 리듬감
 학습활동 적용 미로

● 학습활동 응용 문제

p.31~33

1 ④ 2 ③ 3 이불 4 ⑤ 5 ① 6 ④ 7 ② 8 ③ 9 ⑤
 10 ④ 11 ④

- 1 이 시에서 ‘아이들’은 ‘파란 싹’의 모습을 빗댄 표현일 뿐, 이 시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2 이 시는 이른 봄에 봄눈이 내려 쌓였다가 다음 날 눈이 녹은 뒤 파란 싹들이 돌아난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 3 이 시에서는 산과 들에 하얀 눈이 쌓인 것을 ‘(하얀) 이불’에 빗대어 인상적으로 표현하였다.
- 4 ‘자장가처럼’은 연결어 ‘~처럼’을 사용하여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직접 빗댄 직유법이 사용된 표현이다. ‘그은 나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는 비유법은 은유법이다.
- 5 산과 들이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는 표현과, 파란 싹들이 왁자지껄 일어나 있다는 것은 모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된 표현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② 상징에 대한 설명이다. ③ 소리를 흉내 낸 말은 ‘왁자지껄’뿐이다. ④ 직유에 대한 설명이다. ⑤ 은유가 사용된 부분은 ‘하얀 이불’뿐이다.

- 6 ㉠과 ㉡는 모두 눈이 녹은 후 들판에 파란 싹이 돌아난 풍경을 나타내고 있으나, ㉠는 비유를 사용했고 ㉡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다. 의도가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유를 사용하지 않은 ㉡이다.
- 7 시의 운율을 살려 읽으면 전달하려는 내용과 분위기를 보다 인상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시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 8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비유법은 의인법이다.
- 9 리듬감은 소리가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운율이 형성될 때 느껴지는 것이다.
- 10 ‘해님이 웃는다’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의인법이 쓰인 표현은 ‘봄’을 사람처럼 표현한 ④이다.
- 11 운율은 소리가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형성된다. 즉 같거나 비슷한 시어나 시구, 문장 구조의 반복이나 일정한 글자 수, 음보 수의 반복을 통해 운율이 형성된다. 그러나 각 연의 행수를 같게 하는 것만으로 운율이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우리말 특독

p.34

1 ① 사뭇사뭇 2 왁자지껄 2 하양색 컵

확인문제

01 (1) 뽕싹뽕싹 (2) 데구루루 (3) 왁자지껄 (4) 사뭇사뭇 02 ②

- 2 ② ‘하양’은 ‘하얀 빛깔이나 물감.’을 뜻하는 말로, ‘하양색’과 같이 쓰지 않는다.

소단원 종합 문제

p.35

01 ② 02 ③ 03 자장가 04 ③ 05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을 사용하여 눈이 녹은 자리에 파란 싹들이 돌아난 풍경을 나타냈다.

- 01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 02 (가)는 봄눈이 내린 날의 풍경을, (나)는 봄눈이 녹은 후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나)에서 ‘아이들’은 봄눈이 녹은 후의 돌아난 파란 싹들의 모습을 빗댄 표현일 뿐, (나)에서 노래하고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03 이 시에서는 원관념인 ‘골짜기를 / 타고 내리는 물소리’를 소리가 낮고 잔잔한 속성을 지닌 ‘자장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04 1, 2연과 5, 6연은 비슷한 문장 구조와 시구가 반복되고는 있으나, 전반부와 후반부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다.

Clinic 오답 강의

④ 2연, 6연, 8연의 끝부분에 ‘~다’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다. ⑤ 1연에서 ‘평’, 3연에서 ‘나죽’이 반복된 의성어와 의태어가 나타나 있다.

- 05 6연에는 산과 들에 쌓인 눈이 녹은 상황이 나타나 있고, 7연을 통해 그 눈이 녹은 자리에 파란 싹들이 돌아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와자지껄’은 여럿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파란 싹’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사용된 표현 방법의 명칭과 개념을 밝힘.	2점	총 3점
6, 7연과 연결하여 상황을 밝힘.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단계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36~37

- 1 직유법, 의인법, 은유법 2 은유법과 의인법을 사용하여 산과 들에 눈이 쌓인 풍경을 ‘하얀 이불’을 덮고 ‘잠’이 든 것으로 표현하였다. 3 원관념인 ‘파란 싹들’을 보조 관념인 ‘아이들’에 빗대어 눈이 녹은 자리에 싹들이 돌아난 활기찬 분위기를 나타냈다. 4 이른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봄눈이 내린 날의 고요한 분위기를 통해 드러내자. 하얀 눈이 쌓인 모습은 포근한 ‘이불’에 빗대고, 봄눈이 내린 날의 고요한 분위기는 산과 들이 ‘잠이 들었다’라는 표현과 물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린다는 표현을 통해 나타내자.

- 1 비유법의 종류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으로 나눌 수 있다. 직유법은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는 방법이고,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 은유법은 두 대상이 동일한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 2 2연에서는 은유법을 사용하여 산과 들에 눈이 쌓인 것을 ‘하얀 이불’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또한 의인법을 사용하여 사람이 아닌 산과 들이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고 표현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표현 방법 두 가지의 명칭을 모두 제시함.	2점	총 4점
표현 방법과 사용된 시구를 연결하여 제시함.	2점	
표현 방법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제시함.	-1점	

- 3 원관념인 ‘파란 싹들’과 ‘아이들’은 활기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파란 싹들’을 ‘아이들’에 빗대어 활기찬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바르게 적음.	2점	총 5점
두 대상의 공통점과 관련하여 나타내고자 한 바를 서술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4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이른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시인은 여러 가지 비유적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하얀 눈이 쌓인 모습은 ‘이불’에 빗대어 표현하였고, 봄눈이 내린 날의 고요한 분위기는 산과 들이 ‘잠이 들었다’, ‘자장가처럼 들리던’이라고 표현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표현하고자 한 대상과 ‘봄눈’에 대해 나타낸 느낌을 제시함.	3점	총 7점
은유법, 직유법, 의인법이 쓰인 부분을 각각 하나씩 제시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① 이 시의 제재와 그에 대한 느낌 파악하기 ▶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상과 그에 대한 묘사를 파악해 본다.
- ② 시에 사용된 표현 방법 파악하기 ▶ 은유법, 직유법, 의인법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본다.
- ③ 표현 방법을 통해 나타낸 내용 파악하기 ▶ 빗댄 대상인 보조 관념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내용을 각각 파악해 본다.

02 오우가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38

- 1 ③ 2 ⑤ 3 시조 4 ④

- 1 상징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인상 깊게 나타내고 내용에 깊이를 더하는 효과가 있다.

- 2 비유와 상징은 모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참신하게 표현할 수 있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3 고려 시대에 발생하여 오늘날까지 창작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로, 4음보의 규칙적인 운율이 나타나는 것은 '시조'이다.
- 4 ④는 시조를 시기별로 나눈 것이다.

● 소단원 체크

p.39

1 수(물), 석(돌), 송(솔), 죽(대나무), 달 2 ② 3 ④

- 1 <제1수>에서 '내 벗'인 다섯은 '수석'과 '송죽', '달'이라고 하였다.
- 2 ①은 '이 다섯'이 있으면 다른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욕심이 없고 다섯 벗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드러난다.
- 3 '솔'은 눈서리에도 변함이 없고 구천에 뿌리가 곧은 특성을 지닌 존재로, 곧은 의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소단원 핵심 정리

p.40

자연물, 운율, 송, 절개, 고난, 4음보

학습

활동 엮보기

p.41~43

학습활동 이해 1 달 2 네(4) 3 고난, 추상적

학습활동 적용 책가방 지퍼, 봉어빵, 따뜻

● 학습활동 응용 문제

p.41~43

1 ② 2 ③ 3 송(솔) 4 ④ 5 ① 6 ③ 7 ⑤ 8 ④ 9 ③
10 ⑤ 11 추상적, 구체적 12 ①

- 1 이 시조의 <제1수>에서 화자는 '수석, 송죽, 달'이 자신의 벗이라고 하였다.
- 2 이 시는 각 장을 네 마디씩 끊어 읽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띄어쓰기와 의미를 고려하여 3(4), 4(5)글자를 한 덩이로 끊어 읽는 것이 적절하다.
- 3 <제1수>에서 소개한 다섯 벗은 '수, 석, 송, 죽, 달'이다. 그 중 눈서리를 모르고 뿌리가 곧은 것은 송(솔)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4 '눈서리를 모른다'라고 한 것은 '솔'이 '눈서리'가 내려도 푸르기 때문이다. 즉 '솔'은 '눈서리'와 같은 시련에도 변함없는 존재인 것이지, 시련을 피해 살아간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5 '솔'은 고난과 시련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삶의 태도를 상징한다. 고난과 시련을 외면하는 것은 뜻을 굽히지 않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6 상징은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 시에서는 '지조', '절개'라는 추상적 관념을 '솔'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솔'을 통해 나타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파악하며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주제 의식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고 볼 수는 없다.

7 이 시는 배고픈 '나'가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 선재가 '나'의 책가방 지퍼를 닫아 주고, '나'가 집에 돌아와 가방에서 종이봉투에 담긴 봉어빵 다섯 개를 발견하는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드러나고 있다.

8 4연에서 '나'는 학교에서 받은 우유를 꺼내려 가방을 열었다가 선재가 몰래 넣어 준 봉어빵을 발견했다. 봉어빵을 먹기 위해 가방을 연 것은 아니다.

9 이 시에서 '나'가 발견한 봉어빵 다섯 개는 선재가 '나'의 책가방 지퍼를 닫아 주며 넣어 준 것으로, '나'가 집에 돌아가도 먹을 게 없을까 봐 염려한 선재의 배려가 담겨 있다. 이로 보아 선재는 '나'의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을 짐작하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10 '봉어빵'은 선재가 '나'를 걱정하여 넣어 준 것으로, 친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 우정 등을 의미한다.

11 상징은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12 ①에서 '별들의 운동장'은 '밤하늘'의 모습을 빗댄 표현일 뿐,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없다.

Clinic 오답 강의

② '까마귀'는 싸움을 일삼는 부정적 존재를 상징한다. ③ '길'은 삶을 상징한다. ④ '별'은 희망, 이상적 삶을 상징한다. ⑤ '고래'를 키우는 것은 목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을 상징한다.

● 우리말 특독

p.44

1 가 글벗 나 일벗 다 말벗 라 길벗

확인문제

01 (1) 글벗 (2) 길벗 (3) 일벗 (4) 말벗 02 ①

2 '길을 함께 가는 동무'라는 의미의 '길벗'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문장은 ①이다. ②는 '일벗', ③, ④는 '말벗', ⑤는 '글벗'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01 ① 02 ② 03 눈서리 04 ③ 05 '더우면'꽃 피고 '추우면' '읽 지거늘'과 같이 각 장을 4음보로 끊어 읽는 것이 반복된다. 06 ⑤

01 '꽃', '잎'과 '솔'을 대조하여 '솔'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02 <제1수>에서 화자는 '수석'과 '송죽', '달'의 '다섯' 벗만 있으면 다른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달'을 보며 그것 또한 반갑다고 노래하고 있을 뿐, '달'을 가장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다.

03 이 시에서 시련이나 고난을 상징하는 소재는 '눈서리'이다. '눈서리'는 나무를 시들거나 죽게 만드는 외부의 힘을 의미하는 소재로, 이러한 '눈서리'에도 푸르고, 뿌리가 곧은 솔의 모습은 곧은 의지를 보여 준다.

04 '잎'과 '꽃'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 존재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잎'과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은 '솔'이다.

05 이 시는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와 같이 각 장을 네 마디씩, 즉 4음보로 끊어 읽는 것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각 장에서 4음보가 반복됨을 서술함.	2점	총 3점
구체적인 예를 하나 이상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6 <보기>의 '낙락장송'은 '이 몸'이 죽어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백설'이 가득할 때 '독야청청'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곧은 절개를 상징함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낙락장송'에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단계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46~47

1 구체적, 추상적, 솔, 봉어뿔 2 '솔'은 눈서리에도 푸르고 뿌리가 곧은 존재로, 시련에도 지조와 절개를 지닌 존재, 곧은 의지를 지닌 존재를 상징한다. 3 친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봉어뿔'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주제를 인상적으로 표현하였다. 4 (가)는 시련, 고난을 의미하는 '눈서리'와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솔'에서 관습적 상징이 사용되었다. 이와 달리 (나)는 친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봉어뿔'으로 나타낸 것에서 개인적 상징이 사용되었다.

1 상징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나타내는 방법으로, 의미를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다. (가)의 시에서는 '솔'이라는 대상을 통해 지조와 절개를 지닌 삶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나)의 시에서는 '봉어뿔'이라는 대상을 통해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2 이 시조에서 '솔'은 눈서리에도 푸르다는 점과 뿌리가 곧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 미루어 '솔'은 시련에도 지조와 절개를 지닌 존재, 곧은 의지를 지닌 존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눈서리를 모르고, 구천에 뿌리가 곧은 '솔'의 특성을 서술함.	2점	총 4점
변함없음, 곧은 의지, 지조와 절개 등 '솔'의 상징적 의미를 두 가지 이상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 (나) 시의 주제는 친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인데, 이를 표현하기 위해 '봉어뿔'이라는 소재를 상징의 기법을 사용하여 인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봉어뿔'의 의미를 밝히고 상징을 사용했음을 제시함.	2점	총 5점
감정 등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 주제를 인상적으로 표현 등 상징의 효과를 서술함.	2점	
<조건 2>에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추어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4 (가)에서는 오랜 시간 걸쳐 사용된 관습적 상징이 사용되었고, (나)에서는 개인의 특수한 체험에 의해 독창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적 상징이 사용되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의 '눈서리', '솔'은 관습적 상징에 해당함을 서술함.	3점	총 7점
(나)의 '봉어뿔'은 개인적 상징에 해당함을 서술함.	3점	
<조건 3>에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추어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① (가), (나)에서 상징이 사용된 소재 모두 파악하기 ▶ 시에서 구체적 인 사물로 추상적 관념을 표현한 부분 찾기
- ② 각각의 보조 관념이 의미하는 바 파악하기 ▶ 상징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는 의미 정리하기
- ③ <보기>를 바탕으로 상징의 종류 파악하기 ▶ 각 표현이 관습적 상징 인지 개인적 상징인지 파악하여 서술하기

03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48

1 ㉠ - ㉡ - ㉢ - ㉣ 2 ㉣ 3 ㉣

1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쓸 때는 떠올린 경험 중 글감을 정하고 (㉠)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뒤 (㉡) 개요를 작성하여 (㉢) 그것을 바탕으로 글로 표현한다 (㉣).

2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건의하는 글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의 효과이다.

3 수필은 글쓴이의 상상력을 통해 꾸며 쓴 글이 아니라 글쓴이의 경험을 솔직하게 쓴 글이다.

- 1 여름비 2 ③ 3 ⑤ 4 ③ 5 ⑤ 6 ④ 7 고마움 8 ⑤ 9 ④ 10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민에 공감하며 진지하게 들어 주려고 노력한다. 11 ④

- (가)에서 '나는 여름비를 보면 항상 2년 전 여름에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나'는 꼬리뼈 골절로 의자에 앉는 것도 힘들어서 방석이 꼭 필요한데 깜박하고 방석을 학교에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이라 조퇴를 하지 않으려 한 것일 뿐, 방석이 있어야 시험을 잘 본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 '나'는 힘들 때마다 도와주는 윤서에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 ㉠은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이므로, '어렵거나 나쁜 일이 겹쳐서 일어남.'을 뜻하는 ③과 바꾸어 쓸 수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어려운 일이 나 고된 일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 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 '나'는 통증 때문에 방석이 필요한데 통증이 심해져 엄마가 맡겨 놓은 방석을 가지러 가지 못해 답답하고 막막한 한편, 통증이 심해져 괴로웠을 것이다. '안도'는 '어떤 일이 잘 진행되어 마음을 놓음.'을 뜻하므로, (마)의 상황에서의 '나'의 심리와 거리가 멀다.
- '나'는 윤서가 자신 대신 방석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애도 시험공부를 해야 했을 텐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윤서가 시험공부와 '나'의 방석을 가지러 가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나'는 윤서가 방석을 가져와 내미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 대신 빗속을 뚫고 달려가 방석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 '너무나도 고맙웠다.'라는 마음을 드러냈으며, '이제라도 윤서에게 고마움을 솔직하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 '나'는 자신을 도와준 윤서에게 고마움을 드러냈는데, 이에 윤서는 생색내지 않고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 윤서는 '나'가 곤란한 상황인 것을 눈치채고 '나' 대신 학교 보안관실에 가서 방석을 가져다주었다. 이를 통해 윤서는 따뜻하고 배려 깊은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나의 이런 점'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고민하는 사람의 고민을 공감하며 진지하게 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등 다른 사람을 도우려 노력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 '나'는 여름비가 오는 날이면 2년 전 여름 자신을 도와준 윤서

의 모습을 떠올린다. 이는 그 경험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으며, 현재 자신의 모습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핵심 포인트

p.49~51

핵심 포인트

- 01 경험, 여름비 02 방식 03 통증 04 고마움, 고맙다 05 공감

소단원 핵심 정리

p.52

여름비, 경험, 여름비, 방식, 고마움, 공감, 방식

학습 활동 엮보기

p.53~55

학습활동 이해 1 방식 2 생생하게

학습활동 적용 1 뿌듯했던 2 정서

● **학습활동 응용 문제**

p.53~55

- 1 ⑤ 2 고마움 3 ② 4 ① 5 ③ 6 ④ 7 ② 8 ① 9 ①
10 성찰, 감동

- 윤서는 내 부탁을 받고 방석을 가져다준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눈치채고 스스로 '나'를 도와준 것이다.
- 이 글에서 글쓴이는 윤서가 자신 대신 빗속을 뚫고 달려가 방석을 가지고 온 일에 대한 고마운 기억을 전하고 있다.
- '나'는 2년 전 여름비가 내리던 날 윤서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의 영향으로, 현재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민하는 사람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 주는 등 남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이 글에서 '나'는 방석을 가지고 오지 않은 날 중요한 시험이 있어 조퇴를 하지 않았지만,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 중 미안했던 일을 글감으로 골랐다.
- 예상되는 반박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 아니라,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요소이다.
- <보기>는 '개요 짜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처음 부분에서 2년 전 여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계기가 된 것은 '여름비'이다.

- 9 ④의 개요를 보면 크리스마스트리의 별 장식을 보고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시작하여 할머니에게 잘못된 경험과 그로 인한 깨달음에 대해 서술하고 있을 뿐, 상징적 표현을 활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10 경험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그때의 정서가 드러나는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다. 그리고 글을 읽는 독자에게는 경험과 정서의 공유를 통해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 **우리말 특독**

p.56

1 ① 금상첨화 ② 설상가상

확인문제

01 (1) 동고동락 (2) 금상첨화 (3) 설상가상 (4) 고진감래 02 ②

- 2 ㄱ에는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해진다는 의미의 ‘금상첨화’가, ㄴ에는 힘든 일이 끝난 후에 즐거운 일이 생김을 의미하는 ‘고진감래’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소단원 종합 문제

p.57~58

01 ③ 02 ④ 03 ⑤ 04 2년 전 글쓴이를 도와준 윤서 덕분에 현재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 05 ④ 06 ⑤ 07 ⑤ 08 ‘방석’은 꼬리뼈 골절이 되었던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으로, ‘나’에 대한 윤서의 배려를 보여 주는 물건이다.

- 01 이 글에는 글쓴이가 친구 윤서에게 도움을 받아 고마웠던 경험이 나타날 뿐, 친구와 갈등을 겪고 난 뒤 화해한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2 글쓴이는 윤서의 도움을 받은 뒤 씁스러움을 이겨 내고 고마움을 제대로 전했다.
- 03 이 글에서 윤서는 ‘나’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채고 도와주었으며, 고마워하는 ‘나’에게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윤서가 ‘나’에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는 윤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씁스러워했을 뿐 윤서를 어려워한다고 볼 수도 없다.
- 04 (라)에서 중학생이 된 글쓴이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 노력한다고 하며, 그런 점이 2년 전 자신을 도와준 윤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의 경험이 윤서가 글쓴이를 도운 것임을 밝힘.	1점	총 4점
글쓴이가 남을 도우려 노력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힘.	2점	
<조건 2>에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5 이 글은 수필로, 글쓴이가 친구 윤서에게 도움을 받았던 실제 경험이 담겨 있다. 글쓴이의 경험으로 인한 깨달음을 통해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이 글에는 허구적인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 06 이 글은 곤란한 상황일 때 ‘나’를 도와준 윤서에 대한 고마움과,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긍정적 영향을 담고 있다.
- 07 이 글에서 상징적 표현을 활용하여 경험의 의미를 강조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08 (마)에서 중학생이 된 글쓴이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 노력한다고 하며, 그런 점이 2년 전 자신을 도와준 윤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윤서의 배려를 보여 주는 소재가 ‘방석’임을 밝힘.	1점	총 3점
‘방석’이 꼬리뼈 골절이 된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임을 밝힘.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단계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59~60

1 경험, 성찰 2 글쓴이를 당연하다는 듯이 도와준 윤서의 모습을 통해 남을 돕는 행동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3 자신을 도와준 친구를 향한 고마움과 그 영향을 받아 남을 도와주고자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뿌듯함. 4 처음 - 여름비를 보면서 2년 전 여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림. / 끝 - 중학생이 된 현재 남을 도와주려 노력하게 된 것은 2년 전 윤서의 도움 덕분임.

- 1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를 솔직하게 쓴 글을 수필이라고 하는데, 수필을 쓰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글쓴이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다.
- 2 ㉠의 앞 문장을 참고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글쓴이는 자신을 도와주고 당연하다는 듯 반응한 윤서가 멋져 보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경험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은 이유는 그런 윤서의 모습을 통해 남을 돕는 행동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윤서가 생색내지 않고 도와주었음을 서술함.	1점	총 4점
남을 돕는 행동의 가치를 깨달았음을 서술함.	2점	
<조건 2>에서 제시된 문장 형태로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3 (라)에는 글쓴이 자신을 대신하여 방석을 가져다준 윤서에 대한 고마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고, (마)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험으로 인해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뿌듯함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라)에 나타난 자신을 도와준 친구를 향한 고마움을 표현했음을 서술함.	3점	총 5점
(마)에 나타난 남을 도와주고자 노력하는 자신에 대한 뿌듯함을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4 이 글의 개요는 ‘처음-중간-끝’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가)는 처음 부분, (나)~(라)는 중간 부분, (마)는 끝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 부분의 중심 내용은 ‘여름비를 보면서 2년 전 여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림.’, 끝부분의 중심 내용은 ‘중학생이 된 현재 남을 도와주려 노력하게 된 것은 2년 전 윤서의 도움 덕분임.’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처음’에 여름비와 관련하여 과거를 회상함을 서술함.	3점	총 7점
‘끝’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 노력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서술함.	3점	
〈조건 2〉에서 제시한 문장 형태로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의 과정 떠올리기 ▶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 떠올리기
- (가)~(마)에서 처음과 끝에 해당하는 부분 파악하기 ▶ (가)/(나)~(라)/(마)로 내용 나누어 보기
-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에 들어갈 내용 작성하기 ▶ 개요의 처음 부분과 끝부분에 들어갈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기

디지털 창의활동

p.61

확인문제 1 상징 2 ③

- 추상적인 특징을 구체적인 사물, 동물 등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상징이다.
- 우리 반의 특징을 상징할 수 있는 사물이나 동물로 캐릭터를 만들면 우리 반의 여러 특성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인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이해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캐릭터를 본 이들이 우리 반의 특징을 모두 동일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한 걸음 더

p.63

확인문제 1 ③ 2 ④ 3 ②

- 이 글에는 글쓴이가 아이들에게 질문한 내용과 그에 대한 답이 대화 형식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심리 변화가 드러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이 글의 글쓴이 ‘나’는 시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교실 정리를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회원이 새로운 곳에 가면 부딪치면서 배운다고 한 것을 통해 삶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글쓴이가 아이들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그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글쓴이는 새로운 곳에 가면 부딪치면서 배운다는 회원의 말을 듣고, 문제가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맞서는 삶의 태도, 새로운 것을 대할 때 주저하지 않고 직접 겪어 보는 삶의 태도가 필요함을 깨닫는다.

대단원 마무리 체크

p.64~69

- 01 봄 풍경 02 봄눈, 시간 03 (1) ㉠ (2) ㉡ 04 비유 05 이불 06 자장가 07 (1) 은유법, 의인법 (2) 직유법 (3) 의인법 08 (1) ㉠ (2) × (3) × (4) ㉡ 09 가락, 리듬감 10 (1) 평 평 (2) 문장 구조 (3) 시구 11 연시조 12 상징 13 4, 4음보 14 송죽, 벗 15 눈서리, 뿌리 16 (1) ㉡ (2) ㉠ (3) ㉠ 17 시련, 의지, 절개 18 추상적, 구체적, 겉 19 (1) ㉠ (2) ㉡ (3) × (4) × 20 수필 21 (1) × (2) × (3) × (4) ㉡ 22 고마움 23 (1) 여름비 (2) 방석 24 여름비, 골절, 방석, 엄마, 통증, 방석, 윤서, 윤서 25 내용 마련하기 26 (1) 정서 (2) 감동 (3) 성찰, 성장

대단원 종합 문제

p.66~67

- 01 ㉠ 02 ③ 03 •(가): 어떤 대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인 비유를 사용하였다. / •(나):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방법인 상징을 사용하였다. 04 ② 05 ④ 06 ② 07 ③ 08 ② 09 ③ 10 ⑤ 11 ④ 12 ④ 13 ② 14 ① 15 ⑤ 16 ④ 17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맞서 이겨 내는 태도 / 새로운 것을 대할 때 일단 해 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태도

- (가)에서는 봄눈이 내린 날과 그 눈이 녹은 뒤 파란 색이 돌아난 풍경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변하는 자연물과 변치 않는 자연물을 소재로 하고 있을 뿐 자연물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 (가)는 비슷한 문장과 같거나 비슷한 시구의 반복, 같은 말이 반복되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나)는 4음보와 각 장의 글자 수의 일정한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가)에서 글자 수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가)에서는 ‘하얀 이불’, ‘자장가처럼’, ‘파란 싹들이 왁자지껄 일어나 있다’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봄의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나)에서는 ‘술’, ‘눈서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에 사용된 비유와 그 개념을 서술함.	2점	총 4점
(나)에 사용된 상징과 그 개념을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4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은 의인법으로, ㉠은 ‘산과 들’, ㉡은 ‘파란 싹들’, ㉢은 ‘술’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 05 5, 6면에서 ‘좌아악 깔린 이불을 / 모조리 / 걷어 가 버렸다’는 흰눈을 ‘이불’에 빗대는 한편 해가 이불을 걷어 간 것처럼 나타낸 표현으로, 은유법과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06 <제1수>의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에서 다섯 밖에 만족하며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제4수>의 중장과 종장에서 ‘술’의 변함없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여기며 예찬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07 ‘술’이 ‘눈서리’를 모른다는 것은 ‘꽃, 잎’과 달리 ‘술’은 ‘눈서리’가 내려도 시들지 않고 푸르다는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술’이 시련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존재임을 나타낸 표현으로, ‘눈서리’를 모른다는 것이 시련을 겪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 08 (나)의 ‘술’은 지조, 절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구체적 사물이고, (다)의 ‘붕어빵’은 우정, 배려, 따뜻한 마음을 나타내는 구체적 사물로 둘 다 보조 관념에 해당한다.
- 09 ‘나’는 집에 돌아와 가방에서 우유를 꺼내려다 붕어빵을 발견하고 따뜻함을 느낀다. 그러나 선재가 기다려 주었을 때나 가방 지퍼를 닫아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0 이 글은 수필로, 수필은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제약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수필에 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 11 (가)는 처음, (나)~(라)는 중간, (마)는 끝 부분이다. (나)~(라)에서 구체적인 경험의 내용과 그때 느낀 감정을 드러낸 뒤, (마)에서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영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중간 부분에서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뒤 끝 부분에 그때의 감정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했다고 볼 수 없다.
- 12 글쓴이가 ‘지금의 나를 만든 계기가 된 일’이라고 한 것은, 2년 전 여름에 윤서의 도움을 받았던 일로, 현재 나를 도우려 노력하는 사람이 된 글쓴이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윤서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윤서의 영향으로 현재 나를 도우려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2년 전 여름에 윤서의 도움을 받았던 일이 ‘지금의 나를 만든 계기가 된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 13 방식이 없어 곤란한데 비까지 와 꼬리뼈 통증이 더욱 심해진 상황이므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

르는 말.’인 ‘설상가상’이 적절하다.

Clinic 오답 강의

⑤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 14 이 글에서는 시각 장애 소년들이 글쓴이의 책을 읽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을 뿐, 아이들에게 읽어 준 책을 소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15 글쓴이는 (나)에서 에티오피아에서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언급했을 뿐, 에티오피아에서 경험한 일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 16 글쓴이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보며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나누리라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시각 장애 소년들이 자신의 책을 읽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읽어 주겠다고 답한 것이다.
- 17 시각 장애인으로서 새로운 공간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회원은 ‘부딪치면서 배워요.’라고 답한다. ㉠은 이러한 회원의 답에 대한 글쓴이의 깨달음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문제 상황이나 새로운 것을 대할 때 일단 부딪쳐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배운다는 것은 이처럼 온몸을 내던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드러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문제나 새로운 일을 일단 해 보고, 그것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요약과 정보 전달

01 요약하며 읽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72

1 목적, 구조 2 ③ 3 ④

- 1 글을 요약할 때에는 읽기 목적과 글의 구조를 고려해야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 2 요약하기의 방법은 선택, 삭제, 재구성, 일반화를 들 수 있다.
- 3 요약하기는 글의 내용이나 구조를 더욱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 1 ① 2 ④ 3 ② 4 ① 5 ④ 6 ⑤ 7 ⑤ 8 ④ 9 ② 10 ⑤ 11 ⑤ 12 앞쪽 벽과 뒤쪽 벽의 위아래 살창 크기를 다르게 하여 공기가 잘 통하게 하였다. / 위아래의 살창 크기를 서로 다르게 하여 공기가 잘 통하게 하였다. 13 ② 14 어느 쪽도 막히지 않은 구조 15 ③ 16 ⑤

- 희아는 팔만대장경이 오늘날까지 잘 보존된 데에는 해인사 장경판전의 역할이 크다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장경판전에 관한 글을 찾아서 읽으려고 한다.
- 희아는 장경판전에서 팔만대장경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까닭을 궁금해한다.
- 제시된 문장에서 ‘영호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영호는’을 삭제하여 요약한 것이다.
- ‘장미, 진달래, 개나리, 해바라기’를 포괄하는 말은 ‘꽃’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개념이나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일 때는 그 단어들을 포괄하는 말로 묶어 요약해야 한다.
- 희아가 찾은 블로그에는 요약하기의 개념, 방법, 요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⑤는 요약하기 방법 중에서 ‘재구성’의 방법이다.
- ① 문단은 ‘처음’ 부분으로 질문을 던져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설명할 대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 ① 문단의 중심 문장은 끝부분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중심 문장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는 이를 ‘선택’해야 한다.
- (바)에 의하면 장경판전을 수리할 때 구리 기와를 얹었는데, 구리의 열전도율이 높아서 내부 온도의 변화가 커져서 다시 진흙 기와로 바꾸었다.
- ② 문단의 중심 문장은 ‘장경판전을 바람이 잘 통하는 높은 곳에 지어 환기가 잘되게 하였다.’이다. 따라서 ② 문단을 요약할 때는 중심 문장을 ‘선택’하여 요약해야 한다.
- ③, ⑤ 문단은 중심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중심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 ④ 문단의 중심 문장 ‘장경판전의 지붕에 ~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를 ‘선택’한 후에 덜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요약해야 한다.
- ⑤ 문단은 크기가 서로 다른 살창을 두어 구석구석 공기가 통하게 함으로써 경관을 잘 보관할 수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요약해야 한다.
- 이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으로,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하며, 이때 구체적인 사례는 삭제해야 한다.
- ‘앞과 뒤, 위와 아래, 양옆이 막히지 않은 구조’를 모두 포괄하는 말은 ‘어느 쪽도 막히지 않은 구조’이다.

- 구체적인 개념이나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라면, 그 단어들을 포괄하는 말로 묶어야 한다.
- ① 문단은 ‘끝’ 부분으로, ‘중간’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글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부분에서는 중심 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문장이 있으므로 그 문장을 ‘선택’해서 요약하도록 한다.

핵심 포인트

p.73~76

핵심 포인트

- | | |
|-------------------|------------|
| 01 팔만대장경 | 02 간략, 일반화 |
| 03 (해인사) 장경판전, 선택 | 04 재구성, 포괄 |
| 05 선택 | |

소단원 핵심 정리

p. 77

사진, 환기, 살창, 보존, 환기, 일반화

학습 활동 엿보기

p.78~82

학습활동 이해 1 환기, 살창, 자연 / 비결, 진흙, 공기 / 보존 2 공기
학습활동 적용 의미, 개인

● 학습활동 응용 문제

p.78~82

- 1 ⑤ 2 ② 3 환기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4 ① 5 ⑤ 6 재구성 7 ⑤ 8 ⑤ 9 ⑤ 10 ⑤ 11 사회 질서 유지, 국민의 인권 보호 12 ④ 13 ③ 14 ④ 15 ② 16 ③ 17 ① 18 ⑤
- 장경판전은 앞쪽 벽과 뒤쪽 벽의 살창 크기는 위아래가 다르다.
 - 제시된 글은 뚜렷한 중심 문장이 없다. 따라서 ‘바람 속 습기 문제’와 장경판전이 ‘서남향’이라는 것을 관련지어 ‘재구성’의 방법으로 ③과 같이 중심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 해인사 가장 높은 곳은 바람이 잘 통하는 경사지로 나무로 만든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려면 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높은 위치에 장경판전을 지었다.
 - 이 글은 설명문으로 ‘처음 - 중간 - 끝’의 구조로 나눌 수 있다. ‘처음’은 ①, ‘중간’은 ②~⑥, ‘끝’은 ⑦에 해당한다.

- 5 설명문의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할 내용을 소개하거나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중간’ 부분에서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끝’ 부분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 준다.
- 6 중심 문장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는 ‘재구성’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 요약한다.
- 7 글 전체를 요약할 때는 문단별 요약 내용을 종합하여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불필요하거나 반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다듬어야 한다. ①~④는 장경관전에서 팔만대장경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까닭과 관련한 내용이지만, ⑤는 관련성이 없어 삭제해야 한다.
- 8 예나는 장경관전의 창 의 위아래 크기가 다른 이유를 궁금해하는데, 이는 ⑤ 문단에서 설명하는 ‘비결 4’와 가장 관련이 깊다.
- 9 준서는 경관을 꽃아 둔 판가에 막힌 부분이 없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글을 읽으려고 한다. 따라서 글을 읽고 ⑤의 내용과 같이 글을 요약할 것이다.
- 10 ‘생각 열기’는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실마리가 되는 내용을 제시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할 때는 단원명과 학습 목표를 확인하여 핵심어를 파악하고 낱개 질문, 자료, 표 등을 함께 살피며 파악한 중심 내용을 토대로 요약해야 한다.
- 11 문단 ①의 중심 내용은 재판의 의미와 기능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재판의 기능은 문단 ①의 마지막 문장에 제시되어 있다.
- 12 형사 재판은 절도, 폭행, 살인 등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범죄 사실을 밝히고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재판이다.
- 13 문단 ②의 소재목은 ‘재판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이다. 이를 토대로 요약하면 재판은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4 [A] 문단은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으로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를 ‘선택’한 뒤에 덜 중요한 내용인 ‘절도, 폭행, 살인 등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를 삭제하면 제시된 요약문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5 자신이 읽을 책을 정할 때에는 평소 관심 있는 주제의 책으로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책을 정하도록 한다.
- 16 독서 일지에는 제목, 저자, 읽은 날짜, 읽은 내용 요약, 읽고 난 후 감상 등을 쓰도록 한다.
- 17 책 광고는 종이 외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이미지나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 18 ‘돈의 가치와 활용법’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책 광고를 만든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자료가 들어가야 한다.

우리말 특목

p.83

1 • 골바람 – 골짜기에서부터 산꼭대기로 부는 바람. • 산들바람 – 시원하고 가볍게 부는 바람. • 하늬바람 – 서쪽에서 부는 바람. • 황소바람 – 좁은 틈으로 세게 불어 드는 바람. 2 꽃아, 꼬더라

확인문제

01 (1) 하늬바람 (2) 산들바람 (3) 황소바람 (4) 골바람 02 ④

- 2 ④는 영호의 축구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나 날짜를 세려고 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다.’의 의미를 지닌 ‘꼬다’를 활용한 ‘영호의 축구 실력은 손에 꼽을 정도야.’로 써야 한다.

소단원 종합 문제

p.84~85

01 ② 02 ⑤ 03 서남향 04 (라), 중심 문장이 없어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을 새롭게 만드는 재구성의 방법을 통해 요약하였다. 05 ③ 06 ⑤ 07 ④ 08 ‘어느 쪽도 막히지 않은 구조’와 같이 포괄하는 말을 활용하면 더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 01 희아는 팔만대장경이 오늘날까지 잘 보존된 데 해인사 장경관전의 역할이 크다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장경관전에서 팔만대장경 경관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까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02 장경관전의 지붕은 진흙 기와를 올렸는데 1955년에 수리할 때 구리 기와로 바꾼 적이 있다. 이때 내부 온도 변화가 커져서 다시 진흙 기와로 바꾸었다.
- 03 장경관전을 서남향으로 지어 하루 동안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바람 속 습기 문제를 해결하였다.
- 04 <보기>는 재구성의 방법으로 요약한 것이다. (라) 또한 뚜렷한 중심 문장이 없어서 ‘습기’, ‘서남향’ 등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중심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문단 기호를 제시하고 요약 방법을 설명함.	2점	총 3점
<조건 2>의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5 (다)는 중심 문장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③과 같이 중심 문장을 새롭게 만드는 ‘재구성’의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06 이 글은 설명문으로 (가)는 ‘처음’, (나)~(라)는 ‘중간’, (마)는 ‘끝’ 부분에 해당한다. (나)~(라)는 ‘장경관전에서 팔만대장경 경관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07 읽기 목적에 따라 중점을 두어 읽어야 할 문단이 다르다. ㉠의 읽기 목적은 (다)의 내용과 관련이 깊으며 ㉡의 읽기 목적은 (라)의 내용과 관련이 깊다.

08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일 때에 ‘일반화’의 방법을 활용하여 그 단어들을 포괄하는 말로 묶어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포괄하는 말을 활용하여 요약할 때의 장점을 서술함.	2점	총 3점
㉡를 포괄하는 말을 정확하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단계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86~87

1 비결, 설명 **2** 장경판전을 바람이 잘 통하는 높은 곳에 지어 환기가 잘되게 하였다. **3** 설명문의 ‘중간’ 단계로, 장경판전에서 팔만대장경 경판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4** 재구성, (나) - 장경판전을 서남향으로 지어 바람 속 습기 문제를 해결하였다. (라) - 앞쪽 벽과 뒤쪽 벽의 위아래 살창 크기를 다르게 하여 공기를 잘 통하게 하였다.

1 희아는 팔만대장경이 오늘날까지 잘 보존된 것은 해인사 장경판전의 역할이 크다는 설명을 듣고, 팔만대장경 경판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을 궁금해하였다. 그러므로 희아가 이와 관련하여 글을 찾아 읽는다고 하면 읽기 목적은 장경판전에서 팔만대장경이 잘 보존되어 온 비결을 알아보는 것이며, 희아는 이를 설명하는 글을 찾아 읽었을 것이다.

2 (가)는 중심 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문장인 ‘장경판전을 바람이 잘 통하는 높은 곳에 지어 환기가 잘되게 하였다.’를 선택하여 요약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선택’의 방법을 활용하여 (가)의 문단을 요약함.	2점	총 3점
문단의 핵심어 ‘바람이 잘 통하는 높은 곳’, ‘환기’를 포함하여 요약함.	1점	
<조건 2>의 문장 형태를 갖추지 못함.	-1점	

3 (가)~(마)는 설명문의 구성 단계 중 중간 부분으로, 설명하려는 ‘장경판전에서 팔만대장경 경판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의 구성 단계를 고려하여 (가)~(마)의 역할을 서술함.	3점	총 5점
(가)~(마)의 중심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함.	2점	
<조건 2>의 문장 형태를 갖추지 못함.	-1점	

4 글을 요약할 때에 중심 문장이 없을 때에는 재구성의 방법을 이용하여 요약한다.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문단은 (나)와 (라)로, (나)는 ‘장경판전을 서남향으로 지어 바람 속 습기 문

제를 해결하였다.’, (다)는 ‘앞쪽 벽과 뒤쪽 벽의 위아래 살창 크기를 다르게 하여 공기가 잘 통하게 하였다.’로 요약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요약 방법을 바르게 제시한 경우	1점	총 7점
(나)를 바르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경우	3점	
(라)를 바르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경우	3점	
<조건 2>의 문장 형태를 갖추지 못함.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1 ‘재구성’의 방법 이해하기** ▶ 뚜렷한 중심 문장이 없을 때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을 새로 만드는 방법 알기
- 2 재구성 방법을 활용할 문단 찾기** ▶ 뚜렷한 중심 문장이 없는 문단을 찾아 보기
- 3 찾은 문단에서 재구성의 방법을 활용하여 요약하기** ▶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나), (라)의 중심 문장 구성하기

0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88

1 ④ **2** ③ **3** ⑤ **4** 쓰기 윤리

- 1**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설명문, 보고서, 기사문, 안내문 등이 있다. ④의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에 해당한다.
- 2** 정보 통합하기 단계에서는 정보의 내용이 서로 관련 있는지 고려하여 정보를 통합한다.
- 3** 정보를 수집할 때는 한 매체에서만 정보를 찾는 것보다 책,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 4**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에는 출처를 밝히는 등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

● 소단원 체크

p.89~93

1 ① **2** ④ **3**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 소개 **4** ③ **5** ② **6** ② **7**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함. **8** ⑤ **9** ④ **10** ③ **11** ③ **12** ② **13** ⑤ **14** 식용유가 대량으로 생산됨. **15** ② **16** ③ **17** ①, ④ **18** ③ **19** ⑤ **20** ②

- 1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계획하기 – 정보 수집하기 – 정보의 중요도 분석하기 – 정보 통합하기 –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의 과정을 거친다.
- 2 (가)에서 지수는 글 쓰기를 계획할 때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하고 있다.
- 3 (가)에서 지수는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를 소개하는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려고 한다.
- 4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것은 정보 수집이 아니라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할 일이다.
- 5 지수는 책, 온라인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에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 6 제시된 도표는 식당 메뉴 가운데 종류가 다양한 음식을 조사한 것으로, 치킨은 메뉴의 종류가 169가지에 이른다.
- 7 (다)에서 지수는 치킨의 열량에 관한 정보는 ‘치킨의 역사 소개’라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정보의 중요도가 낮아 글에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8 지수는 ‘중간’ 단계에서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대별 치킨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9 이 글과 같이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위주로 써야 한다.
- 10 ㉠은 글의 ‘처음’ 부분으로 중심 소재를 제시하고 앞으로 소개할 내용을 언급하며 독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11 (사)에서 글쓴이는 1960년대 전기구이통닭이 유행했다는 내용을 제시하며 빙글빙글 돌며 익어 가는 전기구이통닭 사진을 함께 제시하였다.
- 12 (사), (아)는 글과 함께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13 (아)는 1970년대에 프라이드치킨이 큰 인기를 얻게 된 배경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아)를 쓸 때 ⑤의 정보를 활용했을 것이다.
- 14 1960년대에는 기름이 귀해서 기름에 튀긴 프라이드치킨 대신에 전기구이통닭이 유행했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식용유가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기름에 튀긴 프라이드치킨이 큰 인기를 얻었다.
- 15 (사)~(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행했던 치킨이 제시되어 있다. (사)의 1960년대는 전기구이통닭이, (아)의 1970년대는 프라이드치킨이, (자)의 1980년대는 양념치킨이 유행하였다.
- 16 (자)에서 프라이드치킨을 연달아 여러 조각 먹으면 느끼하기 때문에 1980년대 그 해결책으로 매콤달콤한 양념을 개발해 프라이드치킨에 버무리는 양념치킨이 등장했다고 하였다.

- 17 (차)는 가루 양념을 뿌린 치킨, 파를 곁들여 먹는 치킨 등 다양한 종류의 치킨을 제시했다. 또한 식당 메뉴 가운데 종류가 다양한 음식으로 치킨이 3위를 차지한 도표를 제시함으로써, 2000년대 이후에 다양한 치킨이 등장했다는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18 도표는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19 (카)는 이 글의 ‘끝’ 부분으로 글쓴이는 치킨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와 전망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20 글을 쓸 때는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글을 쓸 때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p.89~93

핵심 포인트

- | | |
|-----------------------------|-----------|
| 01 역사 | 02 잡지, 종류 |
| 03 주제, 열량, 중요도 | 04 내용, 통합 |
| 05 치킨, 질문, 국민 | |
| 06 전기, 식용유, 시장, 반반, 도표, 신뢰성 | |
| 07 윤리 | |

소단원 핵심 정리

p.94

매체, 목적, 인터넷, 주제, 통합

학습 활동 예보기

p.95~98

학습활동 이해 ㉠ - 주제 / ㉡ - 매체 / ㉢ - 중요도 / ㉣ - 출처
학습활동 적용 학급 친구들. ㉠ / ㉡ / ㉢ / ㉣ / ㉤

● 학습활동 응용 문제

p.95~98

- 1 ㉠ - ㉢ - ㉣ - ㉤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그래서 13 ㉢ 14 ㉠ 15 ㉡

- 1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는 ‘계획하기-정보 수집하기-정보의 중요도 분석하기-정보 통합하기-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의 단계로 진행된다.
- 2 글은 예상 독자에 따라 표현이나 수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글쓴이는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써야 한다.
- 3 ‘정보 통합하기’ 단계에서는 정보의 내용이 서로 관련 있는지를 고려하여 정보를 통합한다.
- 4 글 쓰기를 계획할 때에는 글을 통해 나타내고 싶은 생각과 글을 쓰는 이유, 글을 읽을 예상 독자, 글을 게시할 매체 등을 고려해야 한다.
- 5 제재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집하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외에도 제재에 대한 여러 관점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6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예상 독자의 수준에 따라 정보를 선정하여 활용해야 한다. 가령 전문적인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예상 독자를 고려한다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보다 다소 전문적인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 7 한국 수어에 대한 소개를 주제로 하는 글에서 자료 ㉠은 인공와우에 대한 것으로, 중요도가 낮아 제외된 자료이다.
- 8 쓰려는 글은 한국 수어를 소개하고 수어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글이므로, 수어의 변화 과정을 보여 주는 이미지 자료는 글의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다.
- 9 이 글은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현상에 대한 실태를 보고하는 조사 보고서이다.
- 10 ‘한국 수어’와 같이 나라 이름이 들어간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수어는 나라마다 그 문법 체계가 다르다.
- 11 ‘한국 수어 조사 보고서’에서는 한국 수어의 역사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12 머리말의 ‘(1) 조사 목적’에서 글쓴이는 많은 학생이 한국 수어가 우리나라의 공용어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그래서’가 적절하다.
- 13 한국어는 ‘언제’+‘만날까요’와 같이 어순을 배열한다면, 한국 수어는 ‘만나다’+‘좋다’+‘언제’와 같이 어순을 배열한다.
- 14 이 글은 한국 수어를 조사한 보고서로, 글쓴이는 ‘땀을 흘려’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공용어인 수어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15 한국어와 한국 수어는 문법 체계가 달라 어순이 다르고,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의 차이가 있다. 또한 의문문을 나타내는 방식도 다르다.

● 우리말 특목

p.99

1 베어, 배어 2 짹짹하다, 칼칼하다, 텅텅하다

확인문제

01 ㉠ 02 (1) 간간하다 (2) 맵싸하다 (3) 멍멍하다 (4) 달짝지근하다

- 1 ⑤는 ‘버릇이 되어 익숙해지다.’의 의미이므로 ‘배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소단원 종합 문제

p.100~101

01 ㉠ 02 ㉡ 03 ㉢ 04 글의 주제, 정보의 중요도 05 ㉢ 06 ㉡ 07 ㉠은 질문의 방식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글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08 ㉢

- 01 예상 독자에 따라 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이나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예상 독자에 따라 글의 길이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 02 정보를 찾을 때에는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고, 이후 단계에서 글의 주제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한다.
- 03 ㉠에는 양념치킨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04 수집한 자료 중 글의 주제에 맞는 정보를 선별하여 글에 활용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서술함.	2점	총 3점
<조건 2>에 맞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5 이 글에 따르면 전기구이통닭은 프라이드치킨의 등장 이후 인기가 많이 떨어졌을 뿐 1970년대 이후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 06 (다)에는 프라이드치킨을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글쓴이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요리책을 참고할 수 있다.
- 07 글을 시작할 때 독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사용하면 독자의 주의를 끌 수 있고, 글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효과를 적절히 서술함.	2점	총 3점
㉠에 사용된 표현 또는 효과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8 ㉠은 치킨의 종류가 169개나 되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므로,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의 자료가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1 매체, 출처, 정보 통합하기 2 치킨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였다. / 치킨의 역사를 시대별 치킨의 특징으로 구성하였다. 3 독자들이 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전달할 수 있다. 등 4 ①의 자료는 '중간' 부분에서 한국 수어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활용하도록 한다. ②의 자료는 '한국 수어 조사 보고서'라는 전체적인 주제와 관련하여 정보의 중요도가 낮으므로 글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1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계획하기 - 정보 수집하기 - 정보의 중요도 분석하기 - 정보 통합하기 -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의 단계로 쓸 수 있다.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찾고, 수집한 정보의 출처를 기록하도록 한다. 정보를 통합할 때에는 정보의 내용이 서로 관련 있는지 고려하여 통합하도록 한다.

2 (나)의 구성 단계로 보아 중간 부분은 년도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글은 치킨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시대별 치킨의 특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시간의 흐름, 시대별 특징이라는 핵심어를 넣어서 서술함.	2점	총 3점
<조건 2>의 형태를 맞춰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 이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도표를 활용하면 독자들이 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내용을 서술함.	2점	총 4점
<조건 2>의 형태를 맞춰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4 '한국 수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쓴다고 할 때, 자료 ①은 한국 수어의 정의에 대한 것이므로 중간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료 ②는 한국 수어에 관한 주제와 관련성이 적으므로 글에서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①의 자료가 활용되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서술함.	3점	총 7점
②의 자료가 글에서 제외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① 자료의 특징 파악하기 ▶ 자료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② 자료의 활용 여부 생각하기 ▶ ①의 자료: 글에서 활용할 수 있음.
 ②의 자료: 글에서 활용할 수 없음.
 ③ 각 자료의 활용 방안 생각하기 ▶ ①의 자료: 한국 수어의 정의로, 한국 수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때 활용함. ②의 자료: 한국 수어와 관련성이 낮음. 그러므로 삭제함.

확인문제 1 ④ 2 ⑤

- 1 명소에 대해 수집한 정보 중 필요한 것만 골라 지도에 표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2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독자가 신뢰할 수 있다.

한걸음 더

확인문제 1 ⑤ 2 ③ 3 ⑤ 4 ④

- 1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아이디어 등을 끌어다 베껴 쓰는 것은 표절이며 이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 2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규범을 쓰기 윤리라고 하는데, 이는 '표현하기' 단계를 포함하여 글쓰기의 전체 과정에서 지켜져야 한다.
- 3 기존에 자신이 쓴 글을 새로 쓴 글처럼 다시 발표하는 것이나, 자신이 써서 발표한 글의 일부를 밝히지 않고 새로 쓰는 글에 넣는 것도 표절의 한 유형인 '자기 표절'에 해당한다.
- 4 익명성을 통해 사회의 민감한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눌 수도 있는데, 이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이 일으키는 문제점이 아닌 장점에 해당한다.

대단원 마무리 체크

01 구조 02 (1) × (2) ○ (3) ○ 03 (1) 삭제 (2) 일반화 (3) 선택 (4) 재구성 04 보존 05 해인사 장경판전 06 중간 07 (1) × (2) ○ (3) × (4) ○ 08 선택 09 중심 문장 10 삭제 11 어느 쪽도 막히지 않은 구조 12 자연 13 ㉠ - ㉡ - ㉢ - ㉣ - ㉤ 14 (1) ㉠ (2) ㉢ (3) ㉠ (4) ㉤ 15 쓰기 윤리 16 (1) ○ (2) × (3) × (4) ○ 17 시간의 흐름 18 (1) ㉢ (2) ㉣ (3) ㉠ (4) ㉤ 19 개요 20 (1) × (2) × (3) ○ (4) ○ 21 도표 22 (1) 사진 (2) 사진 (3) 도표 23 온라인 잡지

대단원 종합 문제

01 ② 02 ⑤ 03 ④ 04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 요약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05 ③ 06 ② 07 ⑤ 08 ② 09 ④ 10 ④ 11 ⑤ 12 ㉠ -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 ㉡ - 시대별 치킨의 특징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13 ④ 14 ② 15 ⑤ 16 ㉠ - 쓰기의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 ㉡ - 표절하지 않고 올바르게 인용해야 한다.

01 이 글은 ‘그렇다면 우리 ~ 지어 해결하였다.’, ‘첫 번째 비결은 ~ 잘되게 하였다.’ 등과 같이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장경관 전에서 팔만대장경 경관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비결을 설명하고 있다.

02 이 글에서 팔만대장경은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팔만대장경 경관을 잘 보존하여 오늘날까지 무사히 전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03 (가)에는 뚜렷한 중심 문장이 없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중심 문장을 만드는 재구성의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04 한나는 팔만대장경의 보관을 위해 관가가 어떠한 구조로 만들었지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있고, 준서는 장경관전의 관가가 일반적인 책꽂이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의 목적에 따라 요약하기의 내용이 달라짐을 밝힘.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5 이 글은 처음 - 중간 - 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가)~(마) 중 처음은 (다)가 적절하고 중간은 (가), (나), (마), 끝에는 (라)가 적절하다.

06 (나)에서 1960년대에 기름이 귀해(원인) 전기구이통닭이 먼저 유행(결과/새로운 현상)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07 (마)에서 치킨이 국민 음식을 넘어 외국인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다고 설명하고는 있으나, 외국인이 한국의 치킨을 좋아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08 이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에는 ‘계획하기 → 정보 수집하기 → 정보 중요도 분석하기 → 정보 통합하기 → 글 쓰기’의 순서로 쓴다.

09 (라)는 프라이드치킨에 우리 입맛에 맞춘 양념을 버무린 양념 치킨에 대한 설명이므로, (라)의 소재명은 양념치킨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10 이 글에서는 한국의 치킨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11 자료 C는 치킨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정보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글에서는 다른 음식에 비해 치킨의 종류가 다양함을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2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를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정보를 통합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 글은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㉔의 내용을 적절히 서술함.	2점	총 5점
㉕의 내용을 적절히 서술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3 (가)에서는 쓰기 윤리의 개념을, (나)에서는 인용, 표절, 짜깁기의 개념을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14 (나)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아이디어 등을 표절하지 않고 올바르게 인용해야 한다. 하지만 <보기>의 찬회는

다른 사람의 글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이 쓴 것처럼 꾸밈으므로 표절에 해당한다.

15 (다)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민주 사회에서 권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6 (가)는 쓰기 윤리의 개념을 정의하며 글쓰기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첫 번째 문장에 문단의 중심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㉔의 내용을 적절히 서술함.	3점	총 6점
㉕의 내용을 적절히 서술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슬기로운 언어생활

01 품사의 종류와 특성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16

1 품사 2 ④ 3 ⑤

1 품사는 공통된 성질에 따라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이다.

2 ④ ‘그녀’는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고 있으므로 대명사이다.

3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이다.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 등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 품사의 종류와 특성

p.117-123

따뜻하다, 새, 사과, ① - ① ② - ㉠ ③ - ㉠, 가지(가다), 멋있다, 형태, 반짝반짝, 목적어, 주체, ㉠ - ㉠ ㉡ - ㉡ ㉢ - ㉢ ㉣ - ㉣ ㉤ - ㉤, ① - ㉡ ② - ㉠ ③ - ㉠, ④ - ㉡

● 소단원 체크

p.117-123

1 ④ 2 ④ 3 (1) 무척 (2) 날씨, 가, 따뜻하다 4 ⑤ 5 (1) 칠판, 자동차, 희망 (2) 나, 그것 6 ① 7 ② 8 대명사 9 ⑤ 10 ② 11 ④ 12 ① 13 ③ 14 ③ 15 달리다 16 ③ 17 ③ 18 ④ 19 ③ 20 ② 21 그, 매우 22 ⑤ 23 ③ 24 ②, ④ 25 ⑤ 26 ③ 27 ② 28 ⑤ 29 ② 30 ⑤ 31 어머니

1 <보기>의 문장은 ‘유미, 가, 새, 옷, 을, 입다’와 같이 총 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 2 ㉠은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들이고, ㉡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들이다. 따라서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은 형태의 변화 유무이다.
- 3 '무척'은 문장에서 '따뜻하다'를 꾸미는 기능을 한다.
- 4 ㉢는 사람이나 사물 등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형용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동사)이다.
- 5 '칠판, 자동차, 희망'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명사)이고, '나, 그것'은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들(대명사)이다.
- 6 '밥'은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명사에 해당한다.
- 7 '약속', '사랑'은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고, '유빈', '맹장고', '신호등', '횡단보도'는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 8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를 대명사라고 한다.
- 9 '아빠'는 명사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대명사에 해당한다.
- 10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수사에 해당한다.
- 11 '첫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수사)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대명사 ② 동사 ③ 동사 ⑤ 조사

- 12 ㉠ 명사, ㉡ 명사, ㉢ 명사, ㉣ 명사, ㉤ 대명사
- 13 '사과', '유빈', '자유'는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인 명사에 해당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수사 ② 수사 ④ 대명사 ⑤ 대명사

- 14 '빠르네'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형용사에 해당한다.
- 15 단어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부분인 어간에 어미 '-다'를 붙여서 기본형을 만들 수 있다. '달린다'의 어간은 '달리-'이므로 기본형은 '달리다'이다.
- 16 사람이나 사물 등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형용사는 용언에 속한다. ② 동사에 대한 설명이다. ④ 형용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⑤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로 주체의 상태나 성질을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 17 '괜찮아'는 형용사이므로 '괜찮아라'와 같이 명령형으로 쓸 수 없다.
- 18 '멋있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푸르다'도 형용사이므로 '멋있다'와 품사가 같다. 나머지는 모두 대

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에 해당한다.

- 19 관형사와 부사는 공통적으로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언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관형사에만 해당한다. ② 부사에만 해당한다. ④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에는 보조사가 결합하기도 한다. ⑤ 관형사와 부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20 '정말'은 용언인 '맛있어'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부사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21 관형사와 부사를 수식언이라고 한다. '그'는 체언인 '책'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사이고, '매우'는 용언인 '재밌지'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 22 ㉡은 용언인 '먹어요'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은 체언인 '음식'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23 '남호가 편의점에서 유미를 불렀다'에서 조사는 '가', '에서', '를'로 총 3개이다.
- 24 ①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고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인다. ③ 조사는 홀로 쓰이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으므로 단어로 인정한다. ⑤ 서술격 조사 '이다'는 문장에서 쓰일 때 활용을 하여 그 형태가 변한다.
- 25 ㉡, ㉣에서 '가'와 '를'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에서 부른 사람은 남호다. ② ㉣에서 부른 사람은 유미다. ③ '가'가 붙은 말이 부른 사람이 된다. ④ '가'는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이다.

- 26 '먹을래'는 '먹다'의 어간 '먹-'에 어미 '-을래'가 결합된 것으로 동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 조사가 아니라 어미이다.
- 27 주격 조사 '가' 대신 보조사 '도'를 사용하면 이미 있는 어떤 것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포함한다는 의미가 더해진다.

Clinic 오답 강의

① '까지' ③ '만' ④ '은/는' ⑤ '부터'

- 28 '이다'는 다른 조사와는 달리,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다양하게 바뀌며 활용을 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가변어이다. ②, ③ 서술격 조사이다. ④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는 '보조사'라고 부른다.

- 29 조사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 감탄사의 특징 중 하나이다.
- 30 ㉢ '유미야'는 '유미'(명사)와 '야'(조사)가 결합한 것으로 감탄사가 아니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의 '야', ②의 '앗', ③의 '우야', ④의 '응'이 감탄사이다.

- 31 '어머나'는 놀람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핵심 포인트

- | | |
|---------------|---------------|
| 01 기준, 체언, 의미 | 02 명사, 대신, 수사 |
| 03 형용사, 활용 | 04 관형사, 용언 |
| 05 문법적, 형태 | 06 감탄사, 조사 |

학습

활동 엿보기

p.124~126

학습활동 이해 1 ① 명사 - ㉠, ② 대명사 - ㉢, ③ 수사 - ㉠, ④ 동사 - ㉢, ⑤ 형용사 - ㉢, ⑥ 관형사 - ㉢, ⑦ 부사 - ㉠, ⑧ 조사 - ㉢, ⑨ 감탄사 - ㉢ 2 어머, 를, 이것, 꼭, 아름답습니다(아름답다)

학습활동 적용 1 조사, 관형사, 부사, 명사 2 네/예, 이/새 3 조용히 하자, 형용사 4 ① 힐끗, 살랑, 우두커니, 나뭇나뭇, 살포시, 가만히, 물끄러미 ② 구체적

●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24~126

- 1 ④ 2 ⑤ 3 ① 4 ④ 5 ③ 6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 형태 변화 여부 7 ② 8 ⑤ 9 ⑤ 10 ⑤ 11 ④ 12 ③

- 1 ④ ‘무엇’은 대명사이다.
2 문장에서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는 부사로, 부사에 해당 하는 단어는 ⑤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관형사 ② 대명사 ③ 수사 ④ 명사

- 3 제시된 단어들은 사람이나 사물 등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인 동사에 해당한다.
4 느낌,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를 감탄사라고 하는데, ‘어머나, 앗, 예, 아니요’는 감탄사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관형사 ② 조사 ③ 대명사 ⑤ 형용사

- 5 ‘첫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수사에 해당한다.
6 ㉠은 용언, ㉡은 체언, ㉢은 관형사, ㉣은 수사이다. ㉠은 문장에서 쓰 일 때 형태가 변하고, ㉡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둘을 나누는 품사의 분류 기준은 문장에서 쓰일 때의 형태 변화 여부이다.
7 ① 대명사 ③ 관형사 ④ 조사 ⑤ 동사
8 ㉠은 동사이므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만, ㉡은 부 사이므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9 ㉠은 동사이므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은 동사이다. ② ㉡은 감탄사이므로 독립언이다. ③ ㉢의 기본형은 ‘달다’ 이다. ④ ㉣은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10 ‘당신’은 명사를 대신하여 쓰이는 단어인 대명사이다. ⑤ ‘어 떤’은 체언인 ‘음료’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다.
11 ④ ‘달리다’는 동사이므로 ‘달려라’와 같이 명령형으로 쓰일 수 있다.

Clinic 오답 강의

‘행복하다’, ‘예쁘다’, ‘건강하다’, ‘멋있다’는 모두 형용사이므로 ① 청유형, ② 현재형, ③ 명령형이나 ⑤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와 결합하여 쓰일 수 없다.

- 12 ‘물끄러미’와 같은 부사를 사용하면 글의 의미가 더 자세하고 생생해지는 효과가 있다. ③은 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효 과에 가깝다.

● 우리말 특특

p.127

- 1 아니요 2 경미가 유미보다 크다. - 조사 / 하늘을 보다. - 동사 / 보 단 높게, 보다 빠르게 - 부사

확인문제

- 01 ③, ⑤ 02 ②

- 1 ㉠은 형용사로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고, ㉡은 감탄사로 윗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이다.
2 앞의 ‘흠’은 놀람, 느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며, 뒤의 ‘흠’은 ‘사람의 성격이나 언행에 나타나는 부족한 점’을 뜻하는 명사이다.

소단원 종합 문제

p.128~129

- 01 ② 02 ③ 03 ⑤ 04 ③ 05 용언, 용언은 문장에서의 쓰임 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 /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의 자리에 쓰인 다. / 용언은 문장에서 주체의 동작이나 상태 등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06 ① 07 ㉠ 모든, ㉡ 골고루 08 ⑤ 09 ② 10 감탄사, 감탄사 는 문장에서 놀람이나 기쁨 등의 느낌을 나타내거나 부름이나 대답을 나 타낸다.

- 01 ‘유미’, ‘웃’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쓰이는 체언이 고, ‘가’, ‘새’, ‘을’, ‘입다’는 그렇지 않은 단어들이다.
02 ‘유미’와 ‘웃’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명사, ‘가’와 ‘을’은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이므로 조사, ‘새’는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이므로 관형사, ‘입

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동사이다. <보기>에서 '현'은 체언인 '책'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03 ⑤는 구체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로만 묶였다. '사랑, 약속'은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04 '씻을게'의 기본형은 어간 '씻-'에 어미 '-다'를 붙인 '씻다'이다.

05 (다)의 밑줄 친 단어들은 동사와 형용사인데, 이를 통틀어 용언이라고 한다. 용언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의 자리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는데, 이를 용언의 활용이라고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동사와 형용사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을 제시함.	1점	총 3점
품사의 특성을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6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를 부사라고 하는데 ①에는 부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새'는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② '정말', ③ '빨리', ④ '엄청', ⑤ '반짝반짝'은 모두 부사이다.

07 <보기>에서 체언은 '음식'인데 '음식'을 꾸며 주는 단어는 '모든'이다. 용언은 '먹어요'인데 '먹어요'를 꾸며 주는 단어는 '골고루'이다.

08 '만'은 '한정'의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이다. (나)에서 유미와 경미 모두 아이스크림을 골랐으므로 ⑤에는 '만'이 아니라 '가', '도' 등의 조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09 ②의 밑줄 친 단어는 관형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조사이다.

10 (다)의 밑줄 친 단어들은 감탄사이다. '앗', '우아'는 놀람, 기쁨 등의 느낌을 나타내고 있고, '야'는 부름을, '응'은 대답을 나타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밑줄 친 단어들의 품사를 제시함.	1점	총 3점
밑줄 친 단어들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설명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단계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130-131

1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최유미, 너, 잘, 엄청 **2** 단어의 품사는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3** '예뻐라'는 '예뻐지자'로 '조용하자'는 '조용히 하자'로 고쳐야 한다. 그 까닭은 '예뻐라', '조용하자'는 형용사이므로 함께 하자거나(청유), 시키는(명령) 뜻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4** 남호가 운동장을 힘껏 달린다. / 운동장을 남호가 힘껏 달린다.

1 단어는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가)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는 '최유미, 너, 잘, 엄청'이다.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멋있다, 달린다, 빠르네, 고마워'이다.

2 1번 도식은 단어를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품사 분류 기준에 '형태 변화'라는 말을 넣어 서술함.	3점	총 4점
<조건 2>에서 제시한 문장 형태로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 (나)에서 '예뻐라, 조용하자'는 품사의 특성에 맞지 않아 잘못 쓰인 부분이다. '예뻐라, 조용하자'는 형용사이므로 청유나 명령의 뜻으로 쓰일 수 없다. '예뻐라'는 '예뻐지자'로 '조용하자'는 '조용히 하자'로 고쳐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잘못된 부분과 잘못된 까닭을 각각 한 문장으로 바르게 서술함.	3점	총 6점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서술함.	3점	
잘못된 부분을 고쳐 쓴 것 중에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잘못된 까닭을 바르게 서술하지 못함.	-1점	

4 (가)에 사용된 동사는 '달린다'인데, 이와 주어진 제시어를 조합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면 '남호가 운동장을 힘껏 달린다. / 운동장을 남호가 힘껏 달린다.'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조건1>을 반영하여 문장을 구성함.	3점	총 7점
<조건2>를 반영하여 문장을 자연스럽게 구성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단어의 품사 분석하기** ▶ 만화에 쓰인 동사는 '달린다'이다. <보기> ①의 제시어의 품사는 '남호(명사), 운동장(명사) 가(조사), 울(조사), 모든(관형사), 힘껏(부사), 이다(조사)'이다.
- 단어들을 순서에 맞게 써 보기** ▶ <보기> ②의 문장을 이루는 품사의 순서에 따라 단어들을 배열해 본다.
-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쓰기** ▶ 단어들 가운데 명사와 조사가 여러 개 있는데, 잘 어울리는 명사와 조사를 결합시켜 본다. 그러면 명사 '남호'와 조사 '가', 명사 '운동장'과 조사 '을'이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남호가 운동장을 힘껏 달린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

02 매체로 소통하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32

1 소통 맥락 **2** ⑤ **3** ④ **4** ③

1 다양한 상호 작용적 매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때에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2 소통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통 매체가 무엇인지, 소통 공간의 특성은 어떠한지, 소통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소통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3 학교 누리집은 학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들이 공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학교 누리집에서 내용을 공유할 때에는 핵심만 추려서 최대한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4 매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때에는 소통하려는 목적에 맞는 내용과 표현을 사용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좋다.

● 소단원 체크

p.133~134

1 ⑤ 2 ④ 3 ① 4 같은 학교 학생들(은결중학교 학생들) 5 ⑤
6 ⑤ 7 ③ 8 ②

- 1 시우는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 2 관람비, 견학 일시와 장소, 인솔 교사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있으나 모이는 장소에 대한 안내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3 시우가 글을 올린 매체는 학교 누리집 게시판이다. 학교 누리집은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매체이다.
- 4 시우가 올린 글의 '모집 대상 및 인원' 항목을 살펴보면 '은결중학교 학생 10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우가 같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글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
- 5 (나)에서 시우가 개인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 더빙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 6 (나)에서 시우가 사용한 매체는 개인 SNS로, 격식을 갖추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7 (나)에서 시우는 개인 SNS에 글을 올렸다. 이와 같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은 검색이나 팔로우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
- 8 (나)에서 형은이는 시우의 개인 SNS에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말로 댓글을 달았다.

핵심

포인트

p.133~134

핵심 포인트

01 목적, 공적인

02 친교, 반말

학습

활동 엮보기

p.135~138

학습활동 이해 2 정서, ㉔에 사용된 매체 - ㉑ / ㉒에 사용된 매체 - ㉓, 존댓말, 반말, 목적, 공적, 이모티콘

학습활동 적용 정보 전달, 공적인, 늦은

●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35~138

1 ② 2 ④ 3 ③ 4 ⑤ 5 ㉔에서는 존댓말을 사용했지만, ㉒에서는 반말을 사용했다. 6 ⑤ 7 ④ 8 ④ 9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이다. 10 ③ 11 ⑤ 12 ① 13 ④ 14 ③ 15 ⑤

- 1 ㉔는 시우가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올린 글이다. 본문에서 견학과 관련한 정보를 알렸고, 댓글로 이에 관한 문의와 답변을 주고받았다.
- 2 ㉔는 학교 누리집을 소통의 매체로 삼고 있는데, 이는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는 소통 공간이다.
- 3 ㉒에서 시우는 개인 SNS 공간에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견학하고 난 소감을 올렸다. 이는 친교 및 정서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다.
- 4 ㉔는 학교 누리집, ㉒는 개인 SNS 공간이다. ㉔의 소통 참여자는 주로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학부모들인 데 비해 ㉒의 소통 참여자는 불특정 다수이므로 ㉔에 비해 ㉒에서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 5 형은이는 학교 누리집인 ㉔에서는 존댓말을 사용하여 공적인 대화를 했고, 친구의 개인 SNS인 ㉒에서는 반말을 사용하여 사적인 대화를 하였다.
- 6 시우는 학교 누리집인 ㉔에서는 격식을 갖춘 글을 쓰기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개인 SNS인 ㉒에서는 자유롭게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글을 썼다.
- 7 ④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에서 소통할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는 생각과 느낌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에서 소통하기에 적절한 방식이다.
- 8 ㉔에서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④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9 ㉔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적인 소통 공간이다.
- 10 ㉔와 ㉒에서 사용된 매체는 모두 온라인 대화방이다.
- 11 ㉒는 친구들과의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과 관련한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대화이므로 친교 및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한 소통으로 볼 수 있다.

12 ㉠은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적인 소통 공간이므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는데, 진서는 “10시부터 관람이니까 가는 데에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야?”와 같이 반말을 사용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13 ㉡에서 아진이는 “진서야, 나 네 옆자리에 앉아도 돼?”와 같이 말하였다. 이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대화의 목적과 상관없는 사적인 이야기이다.

14 ㉢에서 진서는 새벽 두 시에 온라인 대화방에서 말을 걸었는데, 이는 언어 예절에 어긋난 것이므로 진서에게 ㉠과 같이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나머지는 진서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15 매체를 이용해 소통할 때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 예절을 지킬 필요가 있다.

● 우리말 특목

p. 139

1 통신, 통로 / 만사형통, 불통 2 몇일 → 며칠

확인문제

01 (1) 불통 (2) 통로 (3) 만사형통 (4) 통신 02 ④

2 ‘그달의 몇째 되는 날’, ‘몇 날’을 뜻하는 단어는 ‘며칠’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며칠 ② 며칠 ③ 몇 월 며칠 ⑤ 몇 날 며칠

소단원 종합 문제

p. 140~141

01 ③ 02 ⑤ 03 ⑤ 04 이모티콘 05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기 때문이다. / 공적인 대화이기 때문이다. 06 ② 07 10시부터 관람이니까 가는 데에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야? / 진서야, 나 네 옆자리에 앉아도 돼? 08 ① 09 진서는 너무 늦은 시간에 말을 거는 등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01 시우는 애니메이션 박물관에 다녀온 뒤 (나)와 같이 개인 SNS에 후기를 올렸는데, 이를 통해 시우가 견학을 매우 만족스러워했음을 알 수 있다.

02 ① (가)의 소통에 사용된 매체는 학교 누리집이다. ② (나)의 소통에 사용된 매체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이다. ③ (가)의 소통 목적은 정보 전달이다. ④ (나)의 소통 목적은 친교 및 정서 표현이다.

03 (가)는 학교 누리집을 사용한 의사소통이므로,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가)와 같이 공적인 공간에서 소통할 때에는 격식을 갖추어 정돈된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 ⑤는 사적인 공간에서 소통할 때의 태도에 해당한다.

04 (나)에서 시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커서 놀람’, ‘나 진짜 성우 같았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였다.

05 (가)는 학교 누리집에 게시된 글과 댓글로, 공적인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다. 소통에 사용된 매체의 공적인 성격 때문에 3학년인 은기는 1학년인 시우에게 존댓말로 댓글을 달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소통 공간의 특성에 따른 대화의 성격이 드러나게 서술함.	2점	총 3점
<조건>에 맞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6 (가)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대화방이고, (나)는 애니메이션 박물관에 함께 견학 가는 친구들이 친교를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온라인 대화방이다.

07 “10시부터 관람이니까 가는 데에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야?”라는 진서의 말은 공적 공간에서 반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 또, “진서야, 나 네 옆자리에 앉아도 돼?”라는 아진이의 말은 견학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대화의 목적과 거리가 먼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08 (가)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 신청자들의 온라인 대화방이고 (나)는 시우와 친구들의 온라인 대화방인데 (나)의 소통 참가자들도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을 신청하였다.

Clinic 오답 강의

② 대화 내용으로 구성원들의 학년을 알기 어렵다. ③, ⑤ 견학을 신청한 같은 학교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나)의 참여자들도 공통점이 있다. ④ (가)의 참여자들은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 신청자들이고 그중에 서로 친한 친구들이 섞여 있다. (나)의 참여자들은 견학 신청자들이면서 동시에 친한 친구들이다.

09 진서는 새벽 두 시에 온라인 대화방에서 친구들에게 말을 걸었다. 이처럼 너무 늦은 시간에 온라인 대화방에서 말을 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수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다. 온라인 대화방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언어 예절이 필요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진서의 소통 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서술함.	2점	총 3점
<조건>에 맞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단계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 142~143

1 정보 전달, 공적인 2 시우는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견학하고 느낌을 공유하고 애니메이션 박물관에 가 볼 것을 추천하기 위해 사적인 공간인 개인 SNS를 사용해 소통하였다. 3 (가)의 소통 참여자는 김시우와 은결중학교 학생들이지만, (나)의 소통 참여자는 김시우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다. 4 “견학 일시의 시간은 관람 시간인가요,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인가요?”, 존댓말, “사진 보니까 또 가고 싶다. 더빙 정말 재미있었어요.”, 반말, 공적, 사적, 적절한 소통 방식

1 매체를 통한 소통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소통 목적과 소통 공간의 특성, 소통 참여자 등이 있다. 소통 목적은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으로 나눌 수 있고, 소통 공간의 특성은 '공적인 의사소통, 사적인 의사소통'으로 나눌 수 있다. (가)는 시우가 학교 누리집에 올린 글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공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나)는 시우가 개인 SNS에 올린 글로,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견학한 후 느낀 점을 공유하고 싶어서 사적인 공간에 글을 올린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소통 목적과 매체의 성격이 드러나게 서술함.	3점	총 4점
<조건>에서 제시한 문장 형태로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 (가)의 소통 참여자는 시우와 같은 학교 친구들이고, (나)의 소통 참여자는 시우와 친구들 외에 해시태그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도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 (나)의 소통 참여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여 서술함.	4점	총 5점
<조건>에서 제시한 문장 형태로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4 형은이는 (가)와 (나)에 모두 댓글을 달았는데, (가)에서는 존댓말로 댓글을 달고, (나)에서는 좀더 편하게 반말로 댓글을 달았다. 이는 소통 공간의 특성에 맞게 댓글을 달 것으로 형은이는 적절한 소통 방식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조건 1>과 <조건 2>를 반영하여 바르게 서술함.	4점	총 7점
형은이의 소통 방식에 대한 평가와 그 근거가 타당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1 (가), (나)에서 형은이의 댓글을 찾아 비교하기 ▶ 형은이는 (가)에서 존댓말로 댓글을 달았고, (나)에서는 반말로 댓글을 달았음을 파악하기
- 2 (가), (나)의 소통 공간의 특성 파악하기 ▶ (가)의 소통 공간은 공적인 공간이고, (나)의 소통 공간은 사적인 공간임을 이해하기
- 3 (가), (나)의 소통 공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형은이의 댓글이 적절한지 평가하기 ▶ 공적인 소통 공간에서는 존댓말을 사용하고, 사적인 소통 공간에서는 반말을 사용한 형은이의 소통 방식이 적절했는지 평가하기

문법 매체 기초 다지기

p.144~145

1 품사 2 형태, 기능, 의미 3 대명사, 체언 4 (1) 명사 (2) 대명사 (3) 수사 5 (1) 냉장고, 이순신, 희망 (2) 여기, 나, 이것 (3) 첫째, 둘 6 (1) ○ (2) ○ (3) × (4) × 7 (1) 뭐다, 앓다, 찾다, 가다 (2) 예쁘다, 빠르다, 멋있다 8 (1) 썼다 (2) 달리다 (3) 괜찮다 (4) 고맙다 9 관형사, 부사, 관형사, 부사, 수식언 10 (2) ㉠ (4) ㉡ 11 (1) 빨리 (2) 먹자 (3) 배고파 (4) 점심 12 (1) ○ (2) × (3) × (4) ○ 13 가, 에서, 로, 를 14 감탄사, 독립언, 형태 15 (1) × (2) ○ (3) ○ (4) ○ (5) × 16 (2) ㉠ (3) ㉡ 17 소통 맥락, 참여 18 (1) ○ (2) ○ (3) × (4) × 19 (1) ㉡ (2) ㉢ (3) ㉠ 20 소통 방식

디지털 창의활동

p.146

확인문제 1 ② 2 ⑤

- 1 '지낸'은 동사로, 기본형은 '지내다'이다.
- 2 ⑤는 독립언에 대한 설명이다. '찍다'는 동사로 용언에 속하는데, 문장에서 주체의 동작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한 걸음 더

p.148

확인문제 1 ② 2 ④ 3 형용사 4 ④ 5 ④

- 1 나머지는 모두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지만, ②는 형용사이다.
- 2 ④는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 3 밑줄 친 단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 4 형용사는 '착하다', '착하니', '착해져라' 등과 같이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다양하게 변한다.
- 5 ④ '착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착해라'와 같이 명령형으로 쓸 수 없다. '달리다', '씻다', '찾다'는 동사이므로 명령형으로 쓸 수 있으며, '예뻐져라'의 경우에는 형용사 '예쁘다'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동사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쓸 수 있다.

대단원 마무리 체크

p.149~150

01 기준 02 형태, 기능, 의미 03 용언, 수식언, 관계언 04 건다, 부르다, 신었다, 닦다 05 새 06 (1) 입다, 건디다 (2) 귀엽다, 따뜻하다 07 이름, 대신, 순서 08 (1) × (2) × (3) ○ 09 신호등, 녹색, 첫째 10 여기 11 (1) ㉠ (2) ㉡ (3) ㉢ 12 동사, 형용사, 활용 13 (1) 먹다 (2) 즐겁다 (3) 잡다 (4) 앓다 14 동사, 형용사 15 (1) ㉠ (2) ㉢ 16 관형사 17 부사 18 (1) × (2) ○ (3) ○ 19 (1) 반짝반짝 (2) 새 (3) 빨리 (4) 어느 (5) 아무 (6) 이 (7) 정말 20 조사, 이다 21 2개 22 (1) ○ (2) ○ (3) × 23 (1) ㉠ (2) ㉢ (3) ㉡ (4) ㉣ 24 (1) 부사 (2) 조사 (3) 관형사 (4) 명사 25 (1) × (2) ○ 26 정보, 은결중학교, 공적, 존댓말, 격식, 이모티콘 27 개인 SNS, 반말 28 (1) × (2) × (3) ○ 29 존댓말, 반말, 공적, 사적 30 언어 예절

대단원 종합 문제

p.151~153

01 ① 02 ③ 03 ⑤ 04 ⑤ 05 ⑤ 06 ①, ④ 07 ③ 08 ③, ④ 09 ① 10 ② 11 ③ 12 ④ 13 ㉡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공적인 소통 공간이다. / ㉢는 친교 및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한 사적인 소통 공간이다.

01 '이것'은 대명사로, (나)의 대화에서는 '사과'를 대신하여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02 제시된 단어는 구체적인 모습을 갖춘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와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로 구분할 수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④ 자립 명사 - 의존 명사 ⑤ 고유 명사 - 보통 명사

03 ㉠의 '거기'는 '영화관'이 아니라 '○○ 시민 운동장'을 대신하는 대명사이다.

04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과 '이다'와 같은 조사이다. 관형사는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05 '아무'는 체언인 자리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사에 해당한다.

06 ㉠에는 '반짝반짝'이라는 부사가 사용되었지만 <보기>에는 부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부사가 없는 <보기>에 비해 부사가 사용된 ㉠의 의미가 더 구체적이고 대상을 더 생생하게 묘사하는 느낌을 준다.

07 ③ '응'은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08 ③, ④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단어(보조사)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②, ⑤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격 조사)이다.

09 (다)의 밑줄 친 단어들의 품사는 감탄사이다. ①의 '어머'는 놀람, 반가움 등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10 (가)에서 시우는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견학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따라서 시우의 주된 소통 목적은 정보 전달이다.

11 (나)의 진서는 ㉠과 같은 공적인 소통 공간에서 반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소통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에서는 새벽 두 시에 말을 거는 등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대화를 하였으므로 진서의 소통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12 ㉠에서 '아니'는 부정하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괜찮아'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13 (나)의 ㉠, ㉡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지만 대화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 ㉠은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견학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공적인 소통 공간인 반면, ㉡는 친한 친구들끼리 친교 및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화방이므로 사적인 소통 공간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 ㉡의 소통 목적과 소통 공간의 특성을 각각 제시함.	각 2점	총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성장하는 우리

01 멍키스패너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56

1 ② 2 성장 3 ②

- 1 소설은 작가가 허구적으로 창작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실제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 2 성장 소설은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다룬 소설로, 경험을 통해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을 겪고 난 후 성숙한 성인이 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 3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음으로써 독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 속 인물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소단원 체크

p.158-169

1 ⑤ 2 ① 3 ③ 4 ① 5 ② 6 ② 7 ③ 8 ④ 9 ④ 10 ④
11 ② 12 아무튼, 짐작됐다 13 ② 14 ① 15 ④ 16 ①
17 아파트 관리 사무소 18 ⑤ 19 ⑤ 20 ⑤ 21 ③ 22 ④
23 ④ 24 ② 25 ② 26 ① 27 ② 28 ② 29 멍키스패너
30 ⑤ 31 ① 32 ⑤ 33 머리카락들 34 ③ 35 ④ 36 ①
37 ① 38 ④ 39 ② 40 토요일 41 ⑤ 42 ③, ④

- 1 서술자는 '나'로 이 글의 주인공이므로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한다. ⑤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2 '나'는 엄마가 동생을 맡기고 집을 비울 만큼 평소에 동생을 잘 돌보며 비교적 일찍 철이 들었다.
- 3 '나'는 엄마가 없는 일주일을 '팔자 늘어졌다'며 자유로워하고 있다.
- 4 (가)~(마)는 소설의 구성 단계 중 '발단'에 속한다. '발단'에서는 인물이나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된다.
- 5 엄마가 집에 안 계신 상황에서 '나'와 한아에게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다.
- 6 ㉠에는 연이는 문제에 당황하고 막막해하는 '나'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 7 엄마가 안 계신 상황에서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는 문제가 일어났다.
- 8 '나'와 한아는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 화장실 문을 열어 놓고 샤워를 하기 난감한 나머지 세면대에서 긴 머리를 감았다. 그러다 보니 빠진 머리카락이 세면대에 들어가 막혔을 것이다.

- 9 '나'는 한아가 학교에 들어갔으므로 사람들 눈에 띄게 하고 싶고, 집에서 엄청 관리하는 애라고 표시하려고 머리를 못 자르게 하였다.
- 10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짧게 자른 머리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경험 때문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끝만 살짝 다듬고 온다.
- 11 머리를 자른 것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고, 아이들이 하는 말이 심장을 찢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나'는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 12 '나'와 한아 모두 긴 머리를 세면대에서 감아 머리카락 때문에 배수구가 막혔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13 '나'는 세면대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으로 세면대 뚫는 방법을 묻기 위해 철물점에 들렀다.
- 14 한아와 경빈이는 어린이집 친구이고 경빈이는 한동안 할머니와 살다가 지금은 다시 엄마 집으로 간 상태이다. 그러므로 경빈이 할머니는 한아를 보면 손자 경빈이가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한아에게 잘해 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15 '나'는 철물점 할머니에게 세면대 뚫는 방법을 물어보려고 하룻길에 철물점에 들렀다. 이것이 세면대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나'의 첫 번째 시도이다.
- 16 '나'는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을 왜 아까워하는지 모르겠다는 할머니의 나무라는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도 무조건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돈이 많다면 얼마든 순순히 낼 수 있겠지만 동생과 단둘이 며칠 동안 엄마 없이 10만원으로 지내야 하는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며 출장비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 무조건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 17 '나'는 세면대가 막힌 문제로 철물점 할머니에게 갔다가 할머니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말을 잘하면 세면대를 봐줄 수도 있다고 하여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아 가려 하고 있다.
- 18 '나'는 철물점 할머니에게서 한성설비 사장님의 출장비가 기본 5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던 것보다 비싼 출장비에 몹시 놀라고 못마땅한 마음이 들었으며 현재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아 한성설비에 가지 않았다.
- 19 '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막힌 세면대를 뚫기 위해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았으나 처음 가 보는 관리 사무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막상 관리 사무소에 들어서서는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 20 엄마가 안 계시는 동안 집에 엄마가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엄마가 당부한 일이 떠올라 솔직히 말하기를 망설이고 있다.
- 21 '나'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세면대를 고쳐 달라고 도움을 청하면,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나'와 한아만 있는 집 안에 들어

와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 22 '나'는 임신으로 힘든 외숙모에게 밥을 차리게 했다는 점에서 미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외숙모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어른스러움이 느껴진다. 하지만 동생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 23 '나'는 한아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옆에서 다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엄마와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 24 '나'는 외숙모가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 힘든 상황임을 알고 외숙모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아무 일 없'다고 말한 것이다.
- 25 '나'는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뚫을 결심을 하고 세면대를 뚫을 수 있는 도구를 찾고 있다.
- 26 생각보다 무거운 멍키 스패너를 든 손아귀에 힘을 짝 주고 사장님께 빌려 달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세면대를 꼭 뚫겠다는 '나'의 다짐을 엿볼 수 있다.
- 27 '나'는 한아의 말을 듣고 세면대 뚫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동생의 근심을 덜어 주고 싶어서 스스로 세면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한다.
- 28 '나'는 언니로서 책임감이 강하며 꼼꼼하고 준비성이 있다. ㉠에는 세면대를 뚫기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29 '나'는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은 여러 개 찾아보고,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사용한 멍키 스패너를 자전거 가게에서 봤던 것을 기억해 냈다.
- 30 '나'는 세면대 아래에서 구부러진 관을 발견하고, 오래 산 집에 있는 것이지만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밀 동굴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놀라운 기분을 느낀다. 그동안 집 구석 구석을 다 안다고 생각했기에 놀랐지만 이를 계기로 집을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결심은 나타나지 않는다.
- 31 한아는 '나'가 시키는 대로 세면대 안의 물을 퍼서 바닥에 버렸다.
- 32 한아와 마찬가지로 '나'도 동영상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도 세면대가 뚫리지 않았을까 봐 조마조마해하고 있다.
- 33 세면대가 막힌 원인은 '나'와 한아의 긴 머리카락들이다.
- 34 세면대가 막힌 원인이 머리카락 때문인 것을 확인한 '나'는 엄마가 늘 하던 잔소리를 떠올린다.
- 35 '나'는 자신의 힘으로 막힌 세면대를 뚫은 후 ㉡과 같이 말하며 뿌듯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 36 '나'는 막힌 세면대를 뚫은 후 자신감을 얻어 화장실에 남은 문제인 전구도 같이 끼우려 결심하고 있다.

- 37 '나'는 엄마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할머니가 있어 든든함을 느끼고 있다.
- 38 '나'는 세면대를 뚫을 때 옆을 지킨 한아도 문제를 해결한 기쁨을 같이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아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유리컵에 주스를 따라 주었다.
- 39 '나'는 막힌 세면대를 뚫는 경험을 한 후 다른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 40 '나'와 엄마의 통화에서 엄마는 월요일 밤에 돌아온다고 했고 엄마가 오려면 이를 남았다고 하였다. 또 토요일 저녁밥을 특별하게 차려먹는다고 했으므로 '나'와 엄마가 통화한 날은 토요일이다.
- 41 ㉠은 멍키 스페너로 '나'가 세면대를 뚫는 데 사용한 도구이다. '나'는 멍키 스페너로 세면대를 스스로 고친 경험을 통해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되지 못했지만 무엇이든 스스로 적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 42 ㉠에서는 '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뿌듯함과 자신감이 느껴진다.

핵심 포인트

p. 158~169

핵심 포인트

- | | |
|----------------|------------------|
| 01 전등불, 세면대 | 02 머리카락, 세면대 |
| 03 철물점, 관리 사무소 | 04 배려심 |
| 05 책임감, 준비성 | 06 동영상, 세면대, 뿌듯함 |
| 07 성장, 만족 | |

교과서 날개 문제

p. 158~169

1 계속 자는 척하려다 동생이 부르자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평소에도 동생을 잘 챙기는 언니인 것 같다. 2 엄마가 집에 안 계시는데 세면대가 막혔다. / 화장실 전구가 나가고 세면대도 막혔다. 3 '나'와 한아가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다 보니 빠진 머리카락이 세면대에 들어가 막혔을 것이다. 4 철물점 할머니에게 세면대 뚫는 방법을 물어보려고 5 출장 비가 너무 비싸서 6 엄마가 집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 집에 동생과 단둘이 있다는 것을 낯선 사람이 아는 것이 싫어서 7 임신해서 힘든 외숙모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8 막힌 세면대를 뚫을 수 있는 도구 / 세면대를 뚫는 데에 사용할 도구 9 세면대 뚫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 동생의 근심을 덜어 주고 싶었을 것 같다. 10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뿌듯했을 것이다. 11 화장실 전구가 나간 것 12 멍키 스페너 / '나'를 위한 선물 / 평소 가지고 싶었던 것 13 큰일을 스스로 해결했다는 것이 뿌듯해서

소단원 핵심 정리

p. 170

해결, 묘사, 세면대, 멍키 스페너, 도움, 세면대, 성장, 해결, 자신감

학습 활동 엮보기

p. 171~174

학습활동 이해 1 전구, 멍키 스페너 2 자랑스러웠을, 성장, 스스로
3 해결, 자신감, 입장
학습활동 적용 포용력, 배려

● 학습활동 응용 문제

p. 171~174

- 1 ② 2 ㉠-㉡-㉢-㉣ 3 ④ 4 ⑤ 5 ④ 6 ⑤ 7 ④ 8 ④ 9 그들이 넓은 큰 나무 10 ④ 11 ③ 12 ② 13 어른스러움
- 한아의 행동으로 보아 한아는 평소 언니를 의지하고 따르는 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가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생각해 보도록 한다.
 - '나'는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뚫고 난 후 자신에 대한 뿌듯함과 성장했다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나'는 멍키 스페너를 쥐었을 때 손아귀 힘이 몇 배로 커지는 듯한 자신감을 얻었지만 멍키 스페너 덕분에 실제로 힘센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 '나'는 스페너를 손에 쥐고 자신의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지만 어떤 일에도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되지 못했다고 하였다.
 - 이 소설의 '나'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샀던 것은 아니다.
 - '나'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막힌 세면대를 뚫었으며 동생을 잘 돌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격을 지녔다.
 - 이 시에서는 '어떤~을 하고 나면 / 내가 어른스러워진 것 같다'는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이 시에서 포용력이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등 어른스러운 모습을 '그들이 넓은 큰 나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은 포용력이 있는 사람,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타인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 등 어른스러운 사람을 빗댄 표현이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잘 알아주는 사람과는 관련이 없다.

- 11 이 시에서는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어른스러워진 것을 느낀다는 것을 주제로 삼아 표현하고 있다.
- 12 이 시에서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거나 배려하는 등 어른스러운 말이나 생각, 행동을 의미한다. 남보다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 앞장서는 행동은 이 예로 보기 어렵다.
- 13 '그늘이 넓은 큰 나무'는 어떤 행동,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고 난 후 어른스러워진 자신을 비유한 말이므로 어른스러움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우리말** **특독**

p. 175

1 ② 군소리 ③ 호들갑 ④ 배수구 ⑤ 얼추 2 어떻게 → 어떡해

확인문제

01 (1) 공구 (2) 군소리 (3) 얼추 (4) 호들갑 (5) 배수구 02 ④

2 ① 어떡해, ② 어떻게, ③ 어떻게, ⑤ 어떡해야

소단원 **종합 문제**

p. 176-177

- 01 ④ 02 ⑤ 03 ③ 04 '나'는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의 힘으로 뚫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을 것이다. 05 ③ 06 ㉠ - ㉡ - ㉢ - ㉣ 07 ② 08 '나'는 세면대를 뚫을 때 옆을 지킨 한아도 문제를 해결한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01 (라)에서 '나'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자 했지만 집에 엄마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가 꺼려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가 거짓말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 02 '나'는 막힌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문점, 관리 사무소 등을 찾아갔지만, 돈도 너무 비싸고 어른이 없이 '나'와 한아만 있는 집에 어른을 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 혼자 빌린 멍키 스페너를 이용하여 세면대를 뚫기로 한다.
- 03 '나'는 동생을 잘 돌보는 언니이며 엄마가 안 계신 집에 문제가 생기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집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나'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 04 '나'는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의 힘으로 뚫었으므로 뿌듯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가 해결한 문제 상황과 '나'의 기분을 적절하게 서술함.	2점	총 3점
'나'의 기분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5 멍키 스페너는 세면대를 뚫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찾아보다가 알게 된 도구로, '나'는 멍키 스페너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이후 뿌듯함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나'는 성장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 06 '나'는 연필깎이를 고쳤던 과거의 경험을 언급하며 걱정하는 한아를 안심시키고 있다. 그 후에 문제를 해결할 동영상을 찾아보고 도구를 빌린 다음 실행에 옮기고 있다.
- 07 '나'는 엄마가 안 계신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했으며 어린 동생을 잘 돌보아 주고 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을 어른들과 의논해서 해결해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08 '나'는 (다)에서 세면대를 뚫을 때 옆을 지킨 한아가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리컵에 주스를 따라 주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동생도 문제를 해결할 때 옆을 지킨 것에 대한 감정과 '나'의 행동을 연결지어 서술함.	2점	총 3점
'나'의 행동과 그 이유 중 한 가지만 서술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단계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 178-179

- 1 세면대, 멍키 스페너 2 '나'는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뚫은 경험을 통해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 / '나'는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뚫은 경험을 통해 뿌듯함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3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을 떠오르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멍키 스페너일 것이다. 4 • 가족을 돌본 경험: 부모님이 두 분 다 회사 가신 상황에 바쁜 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어린이집에 가서 동생을 데려왔다. 동생이 집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해서 힘들었지만 무사히 집에 도착하였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 / •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한 경험: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무척 떨리는 경향이 있어, 거울을 보면서 많이 연습하여 무사히 말하기 수행 평가를 마칠 수 있었다. 이번 일을 통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 •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험: 내가 빌려준 책을 잃어버린 친구가 미안해할까 봐 괜찮다고 하고 같이 찾았다. 이번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 1 이 소설에서 '나'는 엄마가 없는 동안 세면대가 막혀 물이 안 내려가는 문제에 닥친다. '나'는 세면대 뚫는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찾아 보았고, 동영상을 통해 멍키 스페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내어 문제를 해결한다.
- 2 (가)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뚫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스스로 만족감을 갖게 된다.(뿌듯함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에 나타난 표현을 근거로 (가)의 경험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서술함.	2점	총 3점
(가)의 경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3 (나)에서 '나'는 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엄마에게 갖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 앞 부분에서 '나'가 경험한 일을 통해 생각해 볼 때 '나'가 사고 싶은 물건은 '멍키 스페너'라고 할 수 있다. '멍키 스페너'는 '나'에게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을 때 성취감을 떠오르게 하는 도구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가 사고 싶은 물건과 그 이유를 모두 서술함.	3점	총 4점
<조건 2>에서 제시한 문장 형태로 서술함.	1점	
'나'가 사고 싶은 물건과 이유 중 한 가지만 쓰거나 <조건 2>의 문장 형태를 지키지 않음.	-1점	

- 4 이 글의 '나'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한 경험으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준 경험이 있다면 <보기>에서 골라 쓰고,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서술하도록 한다. 경험한 내용과 그로 인한 영향이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보기>에 제시된 경험과 자신의 경험이 잘 어울림.	3점	총 6점
경험으로 인한 영향이 잘 드러나도록 서술함.	3점	
자신의 경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경험으로 인한 영향이 잘 드러나지 않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1 이 글의 '나'가 경험한 내용 파악하기 ▶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을 경험했음을 파악하기
- 2 이 글의 '나'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 떠올리고 그에 대한 느낌 써 보기
▶ (예)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한 경험을 하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다.
- 3 경험과 그로 인한 영향이 어울리도록 써 보기 ▶ <보기>를 보고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 영향이 있었는지 연결 지어 써 보기

02 존중하며 말하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 180

1 언어폭력 2 ② 3 ③ 4 ③

- 1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언어폭력이라고 하며, 욕설이나 헐뜯, 차별적 표현, 비난, 인신공격이 이에 속한다.
- 2 언어폭력은 말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상대를 때리는 행동은 언어폭력이 아닌 신체적 폭력에 해당한다.

- 3 언어폭력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인간관계를 해치며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상대의 잘못을 알려 줄 수 있다는 점은 언어폭력의 문제점으로 보기 어렵다.
- 4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헤아려야 한다. 상대방을 말로 이기는 것은 대화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 소단원 체크

p. 181~182

1 ① 2 ③ 3 영상을 찍는데 자기만 동작을 자주 틀렸기 때문이다.
4 ④ 5 ① 6 ③ 7 존중

- 1 도윤이는 친구들과 함께 춤 영상을 찍는 상황에서 자신만 계속 틀려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 2 도윤, 하울, 서준, 지우가 각자 연습한 뒤 춤 영상을 찍기로 하고 며칠 뒤 춤 영상을 찍는데 도윤이가 같은 동작을 계속 틀리는 상황이다.
- 3 친구들과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도윤이는 동작을 계속 틀렸고 이에 대해 도윤이가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 4 도윤이가 자주 동작을 틀리는 것에 대해서 하울이는 “괜찮아. 잘 할 수 있을 거야.”라며 격려하고 있지만 서준이와 지우는 폭력적인 언어로 비난하고 있다.
- 5 서준이는 도윤이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도윤이에게 화를 내고 비난하며 폭력적으로 말하고 있다.
- 6 도윤이는 서준이와 지우의 말을 들었을 때와 달리 하울이의 말을 들었을 때 고맙고 감동했을 것이며 춤 동작을 틀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영상 찍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을 느끼게 하는 말은 하울이가 아니라 서준이와 지우에게 들은 말이다.
- 7 이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하기 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상대를 존중하는 말하기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핵심 포인트

p. 181~182

핵심 포인트

01 영상

02 비난, 격려

소단원 핵심 정리

p. 183

학교생활, 춤, 비난, 상처, 자신감, 하울

학습활동 이해 1 동작, 화/짜증, 도운이, 사과 2 위로 3 상처, 성차별적

학습활동 적용 욕설

●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84~186

1 ③ 2 ③ 3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4 ④ 5 ④
6 ① 7 ② 8 ④ 9 ⑤ 10 ④ 11 장애인

- 하울이는 도운이를 완곡하게 비판한 것이 아니라 도운이를 포용하고 격려해 주었다.
-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 도운이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보다는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해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느낄 것이다.
- 하울이는 실수를 하는 도운이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존중하는 말하기의 방식을 보이고 있다.
-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조롱하거나 놀리는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 된다.
- ㉠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말,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다. ㉡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은 성차별적 발언이다. 용기를 주는 말이나 폭력적인 표현을 지적하는 말은 문제가 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 ㉢의 두 학생은 서로 상대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있다.
-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 악성 댓글을 달아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단다고 나도 동조해서 달지 않아야 하고,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더 빨리 퍼질 수 있으니 함부로 전달하지 않는다.
- ‘칭찬’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말임으로 반성해야 할 표현이 아니라 자주 써야 하는 말에 해당한다.
- 친구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표현은 바람직한 언어생활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고쳐야 할 언어 습관이다.
- 상대에게 직접 하는 욕설이 아니어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으므로 욕설 자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적절하다.
- ‘귀가 먹었냐’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적 표현이므로 고쳐야 할 언어 습관이다.

1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2 안됐는데

확인문제

01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02 ⑤

- ①~④의 밑줄 친 부분은 ‘되어’가 맞는 표현이므로 준 대로 적을 때에는 ‘돼’로 적어야 한다.

01 ④ 02 ① 03 도운이도 열심히 연습했는데 틀려서 얼마나 속상하겠어. 다시 해 보자. / 괜찮아, 도운아. / 잘할 수 있을 거야. 04 ⑤
05 ⑤ 06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07 ⑤ 08 ③

- 하울이가 도운이를 격려하는 말을 한 후 미안함을 느낀 서준이와 지우가 도운이에게 사과하고 난 후 영상을 다시 찍어 보기로 하였다.
- 서준이와 지우는 폭력적인 말하기 방식으로 도운이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하기 방식은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 하울이는 도운이를 존중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으므로 하울이가 도운이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문장을 찾는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하는 하울이의 말을 모두 찾아 씀.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이 만화에서 서준이와 지우는 도운이에게 화를 내고 비난하는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상대를 존중하는 말하기 방식을 권유하는 내용이 적절하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짚어 주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말하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 (가)와 (나)는 모두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다.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고 표정이나 억양 등으로 상대의 심정을 유추할 수 없으므로 더욱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익명성 때문에 정확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 (가)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은 모두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문제가 되는 댓글이 주는 영향을 한 가지 씀.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나’는 친구에게 무심코 한 말이 잘못된 발언임을 깨닫고 말을 조심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였다.
- 유행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말은 아니므로 반성할 만한 언어 생활이라고 볼 수 없다.

1 폭력적으로 말하기 2 서준이와 지우는 폭력적으로 말하고 있고, 하울이는 존중하며 말하고 있다. 3 서준이와 지우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울이의 말을 듣고 자신감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존중하는 말을 해야 한다.) 4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처럼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해야 상대도 나를 배려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1 제시된 상황에서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폭력적인 말하기에 해당한다.
- 2 동작을 계속해서 틀리는 도윤이에게 친구들은 서로 다른 태도로 말하고 있다. 서준이와 지우는 폭력적으로 말하고 있고, 하울이는 존중하여 말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말하기 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서술함.	2점	총 3점
<조건 2>에서 제시한 문장 형태로 서술함.	1점	
인물들의 이름을 잘못 언급하거나 <조건 2>의 문장 형태를 지키지 않음.	-1점	

- 3 도윤이가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생각해 본다. 서준이와 지우가 폭력적으로 하는 말을 들은 도윤이는 기분이 나쁠 것이고, 하울이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자 이를 들은 도윤이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도윤이가 했을 생각을 구분하여 적절히 서술함.	3점	총 5점
바람직한 말하기 태도를 적절히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조건 2>의 문장 형태를 지키지 않음.	-1점	

- 4 제시된 언어생활 일기에서 밑줄 친 말은 상대를 배려하는 말이다. 이와 관련된 속담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로 이 속담처럼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해야 상대도 나를 배려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언어생활 관련하여 글쓰기가 깨달은 점을 언급함.	4점	총 7점
상황에 맞는 속담을 제시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1 밑줄 친 부분의 말하기 태도 파악하기 ▶ 존중하며 말하기, 폭력적으로 말하기 중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 2 말하기 태도와 관련된 속담 떠올려 보기 ▶ '상대를 배려하여 말하자'라는 말을 뒷받침할 속담을 찾아보기
- 3 사용할 속담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일기 완성하기
 - ▶ ①과 ②에서 생각한 내용을 바람직한 말하기 태도와 관련지어 언어생활 일기로 완성해 보기

확인문제 1 칭찬, 칭찬, 내용 2 ②

- 1 '릴레이 칭찬 영상'을 만들 때에는 가장 먼저 칭찬할 친구를 정하고 그 친구를 칭찬할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 2 칭찬할 내용 마련하기에서 한 학기 동안 친구의 변화를 떠올리며 어떤 긍정적인 변화나 성장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 걸음 더

확인문제 1 ③ 2 ③ 3 ③

- 1 '결정 장애'에서 '장애'는 부족하고 열등하다는 생각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를 비하의 뜻으로 사용한 차별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2 ③에는 차별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상 생활에서 '미등록 체류자'를, 불법이나 범죄를 저지른 수 있다고 의심하는 시선이 포함된 말인 '불법 체류자'라고 지칭하는 차별적 표현이 자주 쓰여 주의해야 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①에는 '결정 장애', ②에는 '병어리장갑', ④에는 '반팔 티', ⑤에는 '절름발이 의회'라는 차별 표현이 쓰이고 있다.

- 3 이 대화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쓰는 차별 표현을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단원 마무리 체크

- 01 성장 02 (1) 전등, 세면대 (2) 세면대, 관리 사무소 (3) 자전거, 명키스패너 (4) 동영상, 명키스패너, 세면대 (5) 전등, 해결, 뿌듯함 03 세면대, 성장 04 (1) ○ (2) × (3) ○ (4) ○ 05 엄마, 엄마, 세면대, 엄마 06 뿌듯함, 자랑스러움, 성장한 기분 07 (1) ㉠ (2) ㉢ (3) ㉠ (4) ㉠ (1) ○ (2) ○ (3) × (4) ○ (5) × 09 명키스패너, 성장, 해결, 세면대, 자신감 10 말, 상처, 인간관계, 디지털 11 (1) 영상, 동작 (2) 서준이, 지우, 짜증 (3) 하울이, 도윤이 (4) 서준이, 지우 12 폭력적, 차별적, 존중 13 (1) ○ (2) × (3) × (4) ○ 14 격려, 자신감 15 (1) × (2) × (3) ○ (4) ○ (5) × (6) ○ (7) ○ 16 (1) ㉠ (2) ㉢ (3) ㉠ 17 의사소통, 갈등, 의사소통

01 ③ 02 ④ 03 • 동생의 머리를 감겨 주는 것으로 보아 동생을 아끼고 잘 돌보는 성격이다. • 만삭인 외숙모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배려심이 있고 어른스럽다. • 동생을 안심시키는 것으로 보아 언니로서 책임감이 강하다. • 동영상 여러 개 찾아보는 것으로 보아 꼼꼼하고 준비성이 있다. 04 ④ 05 ① 06 ⑤ 07 • 세면대 문제가 해결되어서 후련하기 때문이다. • 자신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서 뿌듯했기 때문이다. • 문제를 해결한 언니가 멋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08 ② 09 ④ 10 ② 11 ① 12 춤 영상을 찍는데 도윤이가 동작을 계속 틀렸기 때문이다. / 하울이의 말을 듣고 도윤이에게 화를 냈던 것에 미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13 ④ 14 ②, ④ 15 ③ 16 (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네. 보기 싫은데..... / 진짜 얼굴 좀 그만 봤으면..... / 이번에는 연기 연습 좀 하셨기를. (나): 야, 너 여자 맞나? / 에이! 남자가 그 정도는 해 줘야지. / 힘쓰는 일은 남자가 해야지. (다): 야, 귀가 먹었나?, 언어폭력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01 이 글에서는 주인공의 생각이나 심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주인공의 심리 및 행동의 이유 등을 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02 '나'는 세면대 상태를 걱정하는 동생 한아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세면대를 뚫겠다고 결심한다. 이 때 '한번 해 보지, 뭐.'라는 생각으로 결심하고 있으므로 자신 없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동생에게 이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03 글에 나타난 '나'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의 성격과 그렇게 생각한 적절한 이유를 연결하여 제시함.	4점	총 4점
글쓴이의 성격과 이유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㉔에서 한아는 언니의 말을 듣고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여 안심하고 있으며 '나'는 동생을 안심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본심을 숨기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05 이 글에서는 인물들 간의 갈등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06 이 글에는 막힌 세면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성장을 경험하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다)에서 이 경험이 '나'에게 미친 영향이 드러나 있는데, '어떤 일에도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쿵쿵 찌르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되지 못했지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떤 일에도 호들갑 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7 한아는 언니가 세면대를 뚫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후련함을 느끼고 언니가 멋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니의 말을 따라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한아 행동의 이유와 한아의 심리를 적절히 제시함.	각 2점	총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8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㉔은 '멍키 스페너'일 것이다. '멍키 스페너'는 '나'에게 성장을 경험하게 해 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 준

도구지만 '나'의 진로와는 관련이 없다.

09 이 만화에서는 실제 학교생활에서 있을 법한 상황을 다룸으로써 언어폭력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말하기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끔 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에서 나타나는 언어폭력에 대해 다룬 것은 아니다.

10 폭력적인 말을 들었을 때 도윤이는 상처를 받고 서운함을 느꼈겠지만 존중하고 격려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고마움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11 하울이는 상대를 존중하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열심히 연습했음에도 같은 동작을 계속 틀리는 도윤이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말이나 도윤이를 격려하는 말이 적절하다.

12 서준이와 지우는 춤 영상을 찍는 도중 동작을 계속 틀리는 도윤이에게 화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말리고 도윤이를 격려하는 하울이의 말을 듣고 도윤이에게 미안함을 느껴 사과를 하며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친구들이 도윤이에게 화를 냈던 이유와 도윤이에게 사과한 이유를 각각 적절하게 제시함.	각 2점	총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3 (가)와 (나)는 모두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의 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는 누군가 의견을 달면 쉽게 동조하는 현상이 보이기도 한다.

14 '나에게 여자 맞나며', '남자가 그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건데'라는 말은 성차별적 발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5 (가)~(다)는 모두 언어폭력 문제가 나타나 있다. 이는 바람직한 말하기 태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의 속담이 어울리는데 ③의 속담은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웬만큼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관련이 없다.

16 (가)~(다)에서 상대에게 들었을 때 상처가 되는 표현을 찾아 본다. 이런 말은 언어폭력으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다)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을 각각 찾음.	각 1점	총 5점
언어폭력의 문제점에 대해 적절히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 문학과 표현

01 3월

p.4

예시 답안 01 (1) 봄눈 (2) 소리가 낮고 잔잔하다 02 이른 봄 풍경의 아름다움 03 (~이/가 ~더니~라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04 ㉔에서는 의인법을 사용해 '파란 싹'을 사람처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비유를 활용하면 시의 장면이 더 생생하게 떠올라 인상적인 느낌을 준다.

01 이 시에는 다양한 비유가 나타난다. 산과 들에 쌓인 '봄눈'을 '하얀 이불'에,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를 '자장가'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비유에서 표현하려는 대상을 '원관념', 빗댄 대상을 '보조 관념'이라고 하며 두 대상이 가진 공통점이 비유를 성립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1)에 '산과 들에 쌓인' 봄눈'을 제시함.	5점	총 10점
(2)에 '소리가 낮고 잔잔하다'는 내용을 제시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2 이 시는 전반부(1~4연)에서 봄눈이 내린 날의 고요한 풍경을, 후반부(5~8연)에서 봄눈이 녹은 후의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그리고 있다. 시인은 이를 통해 3월 이른 봄 풍경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른 봄 풍경의 아름다움'을 담은 내용을 제시함.	6점	총 10점
10자 내외로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3 '운율'은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다. 같거나 비슷한 시어나 시구, 문장 구조 등이 반복되면 운율이 형성되어 시를 감상하는 독자가 운율을 느낄 수 있다. ㉑과 ㉔에서는 '~이/가 ~더니~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비슷한 문장 또는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는 내용을 제시함.	6점	총 10점
완성된 한 문장으로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4 시인은 8연에서 파란 싹들이 돋아난 모습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려고 '파란 싹들'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왁자지껄 일어나 있다고 표현하였다. 의인법은 비유의 종류 중 하나로 시에 생생함, 참신함, 인상적인 느낌 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의인법을 사용해 표현하였다는 내용을 제시함.	5점	총 10점
비유의 효과를 제시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2 오우가

p.5

예시 답안 01 물, 돌(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이다. 02 4음보가 반복됨으로써 운율이 형성된다.(네 마디씩 끊어 읽는 것을 반복하여 운율이 형성된다.) 03 '소나무'를 시들거나 죽게 만드는 외부의 힘을 의미한다. / '소나무'를 위협하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04 '술'은 고난과 시련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태도(지조와 절개를 지니는 삶의 태도)를 상징한다.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유관순과 김구는 이와 같은 태도로 삶을 산 인물들이다.

01 이 시조는 제목 '오우가(五友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 시대의 문신 윤선도가 다섯 벗을 노래한 연시조이다. <제1수>에서 다섯 벗을 '수석(水石), 송죽(松竹), 달'이라고 밝혔는데 <조건>에 따라 순우리말로 답을 쓰도록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다섯 벗'이 무엇인지 제시함.	6점	총 10점
순우리말로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2 시조는 고려 시대에 발생하여 오늘날까지 창작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로 4음보의 운율을 가지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4음보가 반복된다는 내용을 제시함.	6점	총 10점
한 문장으로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3 ㉑'눈서리'는 소나무를 위협하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제4수>의 중장에서는 이러한 눈서리를 맞아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소나무의 변함없는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소나무'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내용을 제시함.	6점	총 10점
<조건>의 문장 형식에 맞추어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4 이 시조에서 시인은 상징(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사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을 이용하여 인간의 이상적인 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4수>에서는 '지조와 절개'라는 추상적 관념을 소나무(구체적 사물)로 표현했다. 우리 역사에서 소나무의 덕성을 가지고 삶을 산 인물을 찾아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술'이 상징하는 삶의 태도를 설명함.	5점	총 10점
우리 역사에서 지조와 절개를 지킨 인물을 제시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3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 여름비와 방석

p.6

예시 답안 01 친구 윤서가 빗속을 뚫고 방석을 가져와 주었다. 02 자신이 힘들 때마다 도와준 친구 윤서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03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민에 공감하며 진지하게 들어 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04 글쓴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장할 수 있고, 독자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 01** 이 글은 중학생인 글쓴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비 오는 날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하여 쓴 수필이다. (가)~(다)에 나타나 있는 경험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요약해 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쓴이의 경험을 요약해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씀.	6점	총 10점
20자 이내로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2** ‘정서’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뜻한다. ㉠과 ㉡을 통해 윤서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는 글쓴이의 감정을 짐작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쓴이가 윤서에 대해 느낀 정서를 씀.	4점	총 10점
‘고마움’과 ‘미안함’의 감정을 포함하여 씀.	6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3** (라)의 내용으로 보아 2년 전에 윤서와 겪은 일이 글쓴이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 되도록 영향을 주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쓴이에게 생긴 변화가 무엇인지 제시함.	4점	총 10점
(라)의 세 번째 문장을 이용해 완성된 한 문장으로 씀.	6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4**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진실하고 솔직하게 글로 표현하는 일은 자아를 성찰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그러한 글을 읽는 독자는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에 공감하며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제시된 글과 같은 수필이 글쓴이 자신에게 좋은 점을 제시함.	5점	총 10점
제시된 글과 같은 수필이 독자에게 좋은 점을 제시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더+ 한 걸음 더-부딪치면서배워요

p.7

예시 답안 **01** 시각 장애 소년들과의 만남이다. **02** 어둠 속에서 능숙하게 움직이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동안의 노력이 느껴져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03** (1) 비유(직유) (2)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04**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맞서 이겨 내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무슨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해 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 01** 이 글은 글쓴이가 시각 장애 소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는 더 부딪치고 더 배울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수필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의 제재를 제시함.	6점	총 10점
<조건>의 문장 형식에 맞추어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2**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꼼꼼하고 차분하게 교실 정리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글쓴이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짐작해 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쓴이가 느낀 감정을 짐작해 씀.	6점	총 10점
완성된 한 문장으로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3** ㉠에는 ‘~듯’으로 원관님과 보조 관님을 연결한 비유가 사용되었다. 비유 표현은 독자에게 생생하거나 참신한 느낌을 주어 전하려는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1)에 ‘비유’ 또는 ‘직유’를 씀.	4점	총 10점
(2)에 비유의 표현 방법을 활용한 까닭을 제시함.	6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4** 제시된 민준과 유나의 대화로 보아 이 글의 제목 ‘부딪치면서 배워요’에는 글쓴이가 깨달은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담겨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의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함.	4점	총 10점
대화 내용을 활용해 제목이 의미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함.	6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2

요약과 정보 전달

01 요약하며 읽기-오랜 세월 보물을 지킨 장경판전(1)

p.8

예시 답안 **01** 장경판전에서 팔만대장경 경판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02**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설명할 대상을 소개한다. **03** 장경판전을 바람이 잘 통하는 높은 곳에 지어 환기가 잘되게 하였다. **04** (1) 장경판전을 서남향으로 지어 바람 속 습기 문제를 해결하였다. (2)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글의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등)

- 01** 희아가 글을 읽기 전에 한 말에서 글을 읽으려는 목적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희아의 말에서 글을 읽으려는 목적을 찾아 씀.	6점	총 10점
<조건>의 문장 형식에 맞추어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2** 이 글은 해인사 장경판전에서 오랜 시간 팔만대장경 경판을 보존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다룬 설명문이다. (가) 문단은 설명문의 처음 부분이다. ㉠은 다루려는 주제에 대해 독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고, ㉡은 이 글의 중심 소재를 밝힌 부분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5점	총 10점
설명할 대상을 소개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3** (나) 문단은 앞쪽에 중심 문장을 두고 그 뒤에 뒷받침 문장을 두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 문단의 중심 문장을 씀.	6점	총 10점
글 속 문장을 그대로 옮겨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4** 글을 요약하는 방법에는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등이 있다. 희아는 (다)에 중심 문장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중심 문장을 새롭게 만드는 ‘재구성’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재구성의 방법으로 (다)의 내용을 요약함.	5점	총 10점
요약하기의 장점이나 효과를 제시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1 요약하며 읽기-오랜 세월 보물을 지킨 장경판전(2)

p.9

예시 답안 **01** 열전도율이 낮아서 바깥 날씨에 따른 내부 온도의 변화가 작다.(열전도율이 낮아서 내부 온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02** (1) (나) 문단을 중심으로 하여 글을 요약한다. (2) 장경판전의 앞쪽 벽은 아래 살창이 위 살창보다 크고, 뒤쪽 벽은 위 살창이 아래 살창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공기가 잘 통해 경판이 잘 보관될 수 있기 때문에 살창의 위 아래 크기를 다르게 만든 것이다. **03** 포괄적인 말로 바꾸었다 **04** (1) (라) (2) 장경판전에는 자연을 잘 이용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 01** ㉠의 앞부분에서 진흙 기와의 장점을 찾을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진흙 기와의 장점을 제시함.	6점	총 10점
25자 내외의 완성된 한 문장으로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2** 제시된 질문을 해결하려면 글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 요약해야 하는데 (나) 문단의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 문단을 요약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5점	총 10점
(나) 문단의 중심 내용을 요약해 질문에 대한 답을 씀.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3** <보기>에서는 (다)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선택한 뒤에 ‘앞과 뒤, 위와 아래, 양옆이 막히지 않은 구조’를 포괄적인 말로 표현해서 간략하게 요약했다. 이처럼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일 때에는 그 단어들을 포괄하는 말로 묶는 ‘일반화’의 방법을 이용해 요약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포괄적인 말로 바꾸었다는 내용을 제시함.	6점	총 10점
빈칸의 앞부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4** 설명문의 끝부분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라) 문단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종합하며 장경판전에는 자연을 잘 이용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문단 기호(라)를 씀.	4점	총 10점
(라) 문단의 중심 문장(장경판전에는~것이다.)을 이용해 끝부분의 중심 내용을 제시함.	6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초보블로거지수의글쓰기(1)

p.10

예시 답안 **01** (1)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 (2) 블로그 방문자(블로그에 방문하는 사람들) **02** 책, 온라인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에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03** 정보의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기 **04** 지수가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한 정보는 **마**이다. 치킨의 열량에 관한 정보는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라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 01** 지수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글을 쓰는 목적, 글의 주제,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하며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의 주제로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를 제시함.	5점	총 10점
예상 독자로 ‘블로그 방문자’를 제시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2** ‘정보 수집하기’ 단계의 표를 보고 지수가 어떤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했는지 찾아 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지수가 정보를 수집한 매체를 모두 씀.	6점	총 10점
<조건>의 문장 형식에 맞추어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3** ‘정보 통합하기’ 단계에서 글의 개요를 짤 때에는 수집한 정보 가운데에서 서로 관련 있는 정보를 통합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정보의 내용이 서로 관련 있다는 내용을 제시함.	6점	총 10점
빈칸의 앞뒤 부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4** ‘정보 통합하기’ 단계에서 작성한 개요에는 **마**가 없다. 지수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마**를 제외했을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지수가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한 정보로 마 (치킨의 열량에 관한 정보)를 제시함.	5점	총 10점
지수가 해당 정보에 대해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한 까닭으로 주제와의 관련성 측면을 제시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 초보블로거지수의글쓰기(2) p. 11

예시 답안 01 (1) 독자(읽는 사람, 블로그 방문자) (2) 좋아하는 음식(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음식) 02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을 전개하고 시대별 치킨의 특징으로 각 문단을 구성하였다. 03 독자들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04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 쓰기 윤리를 지켜서 글을 썼음을 드러내려고

01 (가)는 지수가 블로그에 쓴 글의 처음 부분으로 독자에게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며 글을 시작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1)에 '독자'를 제시함.	5점	총 10점
(2)에 '좋아하는 음식'을 제시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2 (나)~(라)는 글의 중간 부분이다.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를 소개하는 글의 주제에 알맞게 시대별로 치킨의 특징을 썼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을 전개했다는 내용을 제시함.	5점	총 10점
시대별 치킨의 특징으로 각 문단을 구성했다는 내용을 제시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3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독자가 정보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써야 하므로 문자 언어와 함께 그림, 사진, 도표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시각 자료 활용의 효과를 제시함.	6점	총 10점
효과를 두 가지 이상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4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혀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쓰기 윤리'라는 말을 넣어 서술함.	6점	총 10점
'~기 위해서, ~려고'의 형식의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더+ 한 걸음 더 - 쓰기 윤리에 대하여 p. 12

예시 답안 01 쓰기 윤리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규범이다. 02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그리고 아이디어 등을 표절하지 않고 올바르게 인용해야 한다. 03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 04 표절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관찰·조사·실험 결과 조작은 각종 사회적 의사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허위 내용 유포나 무례한 언어 사용은 상대방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다.(표절, 사실 조작, 허위 내용 유포 등은 법적 분쟁을 야기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다. 또한 개인에게는 인권을 짓밟아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된다.)

01 (가)의 첫 문장에서 '쓰기 윤리'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의 첫 문장에서 '쓰기 윤리'의 개념을 찾아 씀.	6점	총 10점
<조건>의 문장 형식에 맞추어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2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다. ㉠의 뒤에 나와 있는 뒷받침 문장들을 요약하여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의 뒷부분을 요약해 중심 문장을 만들어 씀.	6점	총 10점
완성된 한 문장으로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3 (라)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인터넷 공간에서 언어 예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말을 하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성과 관련 지어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익명성'이라는 말을 넣어 서술함.	6점	총 10점
'~는 점'이라는 형식으로 빈칸의 앞뒤 부분과 연결되도록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4 (나)~(라)에서 설명한 쓰기 윤리 규범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사회적 혼란, 인권 침해 등을 고려해 서술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 ~ (라)의 내용과 관련지어 서술함.	5점	총 10점
법적·사회적 측면, 인권 보호 측면 등에서 다양하게 서술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3 슬기로운 언어생활

01 품사의 종류와 특성(1) p. 13

예시 답안 01 (1) 형태가 변하느냐 (2)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 02 (1) 수식언 (2) 대명사 (3) 사람이나 사물 등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03 조사 중에서 예외적으로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이다'이다. '이고, 이면, 이라서 이네, 이군' 등으로 형태가 변한다. 04 동사,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을 묶어 '용언(用言)'이라고 한다. 용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다양하게 변한다.

01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의 세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이다. 품사를 잘 이해함으로써 언어생활에서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1)에 품사의 분류 기준으로 형태 변화를 제시함.	5점	총 10점
(2)에 품사의 개념을 제시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2** (1) 관형사와 부사는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언’이다. (2) 형태가 변하지 않고 문장에서 체언의 기능을 하며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품사는 ‘대명사’이다. (3)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 등의 움직임을 나타내어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1)에 ‘수식언’을 씀.	3점	총 10점
(2)에 ‘대명사’를 씀.	3점	
(3)에 동사의 의미를 제시함.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3** 서술격 조사 ‘이다’는 다른 조사와 달리 문장에서 형태가 변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형태가 변하는 조사로 ‘이다’를 제시함.	4점	총 10점
‘이다’의 활용을 예를 들어 설명함.	6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4** 동사와 형용사의 특성을 형태, 기능, 의미 측면에서 <보기>와 같은 형식으로 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동사와 형용사의 특성을 형태, 기능, 의미 측면에서 서술함.	6점	총 10점
<보기>와 같은 형식으로 문장 내용을 구성함.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1 품사의 종류와 특성(2)

p. 14

예시 답안 01 ‘첫째’와 ‘운동화’는 체언, ‘를’은 관계언, ‘꼭’은 수식언, ‘착용합니다’는 용언이다. 02 첫 번째로 나온 ‘만날’은 동사이고, 두 번째로 나온 ‘만날’은 부사이다. 03 ‘예뻐라’, ‘조용하자’는 형용사(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04 (1) 힐끗, 살랑, 우두커니, 나뭇잎, 살포시 (2) 원래의 글보다 의미가 자세하고 분명하지 않다.(원래의 글보다 장면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 01** ㉠의 문장을 단어로 나눈 뒤, 각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 체언, 수식언, 관계언, 용언으로 구분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 쓰인 다섯 개의 단어를 품사의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함.	6점	총 10점
<조건>에 맞게 문장을 구성하여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2** 밑줄 친 두 단어는 표기가 같지만 품사는 다르다. 제시된 사진 속 상황과 문장의 의미를 고려하여 품사를 파악해 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표기가 같은 두 단어 ‘만날’의 품사를 구분하여 제시함.	6점	총 10점
<조건>의 문장 형식에 맞추어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3** ‘예뻐라’, ‘조용하자’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인 형용사이다. 따라서 활용할 때 청유형 어머니 명령형 어머니를 결합해 사용할 수 없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예뻐라’, ‘조용하자’의 품사가 형용사임을 제시함.	5점	총 10점
‘예뻐라’, ‘조용하자’가 명령형, 청유형으로 쓰일 수 없음을 제시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4** 부사는 문장에서 용언을 꾸며 그 의미를 자세하고 분명하게 해 준다. 또한 문장이 나타내는 장면이나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1)에 부사 5개를 모두 찾아 씀.	5점	총 10점
(2)에 원래의 글에 비해 부사가 생략된 글이 주는 느낌을 제시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2 매체로 소통하기(1)

p. 15

예시 답안 01 (가)에 사용된 매체는 학교 누리집이고, (나)에 사용된 매체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이다. 02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다. 03 생각과 느낌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 04 (가)는 공적인 공간이므로 존댓말로 격식을 갖추어 표현했고, (나)는 사적인 공간이므로 반말로 편하게 표현했다.

- 01** (가)와 (나)는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해 의사소통하는 장면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에 사용된 매체로 ‘(학교) 누리집’을 제시함.	5점	총 10점
(나)에 사용된 매체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시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2** (가)에서 시우는 동아리에서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것, 견학 일시, 견학 장소, 인솔 교사, 관람비, 모집 대상 및 인원,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시우가 글을 올린 목적(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 정보 안내)을 제시함.	6점	총 10점
30자 이내의 완성된 한 문장으로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3** (나)에 사용된 매체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사적인 공간으로 친교 및 정서 표현이 주된 목적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에 사용된 매체의 성격(사적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시함.	6점	총 10점
빈칸의 앞부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4**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표현 방식은 소통 목적, 소통 공간의 특성과 같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조건1>에 맞추어 (가)와 (나)의 차이점을 제시함.	6점	총 10점
<조건2>에 맞추어 (가)와 (나)의 소통 방식이 다른 까닭이 드러나게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2 매체로 소통하기(2)

p. 16

예시 답안 **01** (가)의 소통 목적은 정보 전달이고, (나)의 소통 목적은 친구 및 정서 표현이다. **02**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을 신청한 학생들이 다. **03** (1) 반말을 사용하였다. (2) 대화 목적과 상관없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04** 진서야, 공적인 대화 공간에서는 존댓말을 사용하면 좋겠어.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에 말을 걸면 친구들이 잠을 깰 수도 있지? 온라인 공간에서도 상대를 잘 배려하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거야.

- 01** (가)는 견학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대화방이고, (나)는 시우와 친구들이 사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는 공간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빈칸에 '정보 전달'이라는 내용을 제시함.	6점	총 10점
완성된 문장 전체를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2** (가)에서 소통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 신청자라는 내용을 제시함.	6점	총 10점
<조건>의 문장 형식에 맞추어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3** (가)는 공적인 공간이므로 존댓말로 격식을 갖추어 표현해야 하고 대화 목적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누어야 한다. 아진이처럼 대화 목적과 상관없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대화 흐름을 방해하거나 대화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아진이가 반말을 사용한 점을 제시함.	5점	총 10점
아진이가 대화 목적과 상관없는 사적인 이야기를 한 점을 제시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4** 진서는 공적인 공간인 (가)에서 반말을 사용하고 (나)에서는 한밤중에 말을 걸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언어 예절에 어긋나므로 진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주는 쪽지를 써 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공적인 공간에서는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4점	총 10점
너무 늦은 시간에 말을 걸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제시함.	4점	
친구에게 말하듯이 씀.	1점	
진서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표현함.	1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더+ 한 걸음 더 - 알쏭달쏭 우리말

p. 17

예시 답안 **01** 쓰임새에 차이가 없습니다 **02** 형용사이다. 신발이 '크다'는 표현은 신발의 길이나 넓이가 보통 정도를 넘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03** '지다'가 형용사 뒤에서 '-어지다'의 구성으로 쓰이면 동사적인 의미로 바뀌기 때문이다. ('-어지다'가 결합하여 동사적인 의미로 바뀌면서 명령형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04** '늠다'는 동사, '젊다'는 형용사입니다. 현재형 어미 '-는'은 동사와 달리 형용사에는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젊는다'라는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 01** ㉠의 앞에 '네' 또는 '예'를 모두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에는 질문의 표현(~차이가 있나요?)에 맞추어 '네'와 '예'의 쓰임새에 차이가 없다는 문장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쓰임새에 차이가 없다는 내용을 제시함.	6점	총 10점
㉠의 앞부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2** (나)의 답변을 통해 제시된 문장 속 '크다'의 품사와 의미를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형용사'임을 제시함.	6점	총 10점
판단 근거로 형용사 '크다'의 의미를 제시함.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3** '착하다', '예쁘다'는 형용사이지만 뒤에 '-어지다'가 결합하면 동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착해져라', '예뻐져라'와 같은 명령형은 맞는 표현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어지다'의 구성으로 쓰이면 타당하다는 내용을 제시함.	6점	총 10점
<조건>의 문장 형식에 맞추어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4** 제시된 두 단어의 품사,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인 '-는' 결합 조건을 생각하여 답변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국립국어원 상담사의 입장에서 답변을 써야 하므로 존댓말로 격식을 갖추어 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늠다'와 '젊다'의 품사를 제시함.	3점	총 10점
'-는'의 결합 조건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을 함.	5점	
존댓말로 격식을 갖추어 표현함.	2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1 명키스패너(1)

p. 18

예시 답안 01 세면대 물이 내려가지 않는(세면대가 막히는) 02 나는
엄마 없이 일주일 동안 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03 '나'와 한아
가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다 보니 빠진 머리카락이 세면대에 들어가 막혔
을 것이다. 04 동생을 아끼고 잘 챙기며, 자신이나 동생이 다른 사람에
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 01 소설 <명키 스페너>는 주인공 한경이가 엄마가 집을 비운 사
이에 벌어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하며 성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세면대 물이 내려가지 않는 문제를 제시함.	6점	총 10점
빈칸의 앞뒤 부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2 '혹'은 짐스러운 물건이나 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은 엄마가 없어 동생을 돌봐야 하는 '나'의 상황을 나타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임을 제시함.	5점	총 10점
<조건>의 문장 형식에 맞추어 씀.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3 (마)의 첫 번째 문단을 통해 세면대가 막힌 까닭을 짐작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았기 때문임을 제시함.	6점	총 10점
완성된 한 문장으로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4 인물의 행동으로 보아 '나'는 동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
주고 잘 챙겨 주는 언니이다. 또한 타인의 눈을 많이 의식하여
자신이나 동생이 돋보이기를 바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동생을 아끼고 잘 챙기는 성격을 제시함.	5점	총 10점
다른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성격을 제시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1 명키스패너(2)

p. 19

예시 답안 01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찾아보고 명키 스페너를 이용하여 세면대에 들어간 머리카락을 건어 냈다. 02 조마조마
했던 마음이 후련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03 문제를 해결하
는 데에 도움을 주어 '나'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 준 도구(성장을 경
험하게 한 도구)이다. 04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미 있는 경
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성장한다.

- 01 (가)~(다)에서 '나'가 한 일들을 정리해 요약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가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제시함.	6점	총 10점
40자 내외로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2 ㉠에서는 동영상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도 세면대가 뚫리
지 않았을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에서
는 세면대가 뚫린 것을 확인한 뒤 문제가 해결되어 후련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마음이 드러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서 '나'의 조마조마한 마음을 파악함.	5점	총 10점
㉡에서 '나'의 후련하고 뿌듯한 마음을 파악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3 (마)에서 명키 스페너를 떠올리며 '나'가한 생각을 통해 명키
스페너는 '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준 도
구, '나'가 좀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도구임을 알 수 있
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명키 스페너'의 의미를 제시함.	6점	총 10점
완성된 한 문장으로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4 <명키 스페너>와 <큰 나무>는 모두 성장을 다룬 문학 작품으
로, 사소한 성취를 통해서도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
를 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와 <큰 나무> 속 화자의 공통점을 제시함.	6점	총 10점
'경험', '성장' 등의 어휘를 포함하여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2 존중하며 말하기-잘할 수 있어!

p. 20

예시 답안 01 (1) 서준이와 지우가 도윤이에게 화를 냄. (2) 서준이와 지
우가 도윤이에게 사과를 함. 02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03 (1)
기분 나쁘고 서운했을 것이다. (2) 위로해 주어서 고마웠을 것이다. 04
언어폭력은 거친 말이나 비난하는 말로써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존중하며 말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 01 친구들이 춤 영상을 찍다가 일어난 일을 다룬 만화이다. 서준
이와 지우가 도윤이에게 한 행동을 중심으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1)에 서준이와 지우가 화를 냈다는 내용을 씀.	5점	총 10점
(2)에 서준이와 지우가 사과를 했다는 내용을 씀.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2 도윤이가 같은 동작을 자꾸 틀리자, 지우와 서준이는 폭력적
인 표현으로 도윤이를 비난했다. 반면에 하윤이는 존중하는
표현으로 도윤이를 다독여 주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제시함.	6점	총 10점
앞부분(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과 균형을 맞추어 문장을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3** 도윤이의 말과 표정을 통해 지우와 서준이의 말에서는 상처를 받고 하율이의 말에서는 위로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1)에 기본 나쁘고 서운한 심정을 제시함.	5점	총 10점
(2)에 위로해 주어서 고마운 심정을 제시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4**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언어폭력’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해 보고, 어떤 말하기 태도를 갖추어야 상처를 주지 않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언어폭력’의 의미를 제시함.	5점	총 10점
우리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말하기 태도를 제시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02 존중하며 말하기 - 디지털소통

p.21

- 예시 답안** **01** (1) 한 배우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소통하는 상황이다. (2) 가정 실습 모둠원들이 온라인 대화방에서 소통하는 상황이다. **02**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멋진나무, 너구리, 구름’이다. **03** 성차별적 발언이기 때문이다. **04** 더욱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야 한다.(익명으로 악성 댓글을 달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단다고 나도 동조해서 달지 않는다.)

- 01** 화면의 형태나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통 주체와 소통 공간을 정리해 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의 소통 상황을 조건에 맞추어 제시함.	5점	총 10점
(나)의 소통 상황을 조건에 맞추어 제시함.	5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2** (가)에서 ‘멋진나무, 너구리, 구름’이 한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난하는 말로써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멋진나무, 너구리, 구름’을 제시함.	6점	총 10점
<조건>의 문장 형식에 맞추어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3** ㉠, ㉡은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차별’을 이르는 성차별적 발언이다. 욕설이나 비속어뿐만 아니라 상대를 무시하는 말, 조롱하는 말, 차별하는 말도 언어폭력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성차별적 발언이라는 내용을 제시함.	6점	총 10점
‘~때문이다’의 형식의 완성된 한 문장으로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4** 디지털 소통 공간은 비대면 상황이어서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더 조심해서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 대화할 때 주의할 점을 두 가지 이상 씀.	6점	총 10점
<보기>의 내용과 연계하여 제시함.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더+ 한 걸음 더 - 알게모르게 사용하는 차별 표현들

p.22

- 예시 답안** **01** 팔 길이가 평균보다 짧거나 길면 정상이 아니라는(비정상이라는) 생각이다. **02** 언어 장애인이 들었을 때 매우 불쾌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03** 내가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앞으로는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을 신중하게 하는 자세를 지녀야겠습니다. **04** 모두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 표현이다. ‘결정 장애’는 ‘결정이 힘들다’로, ‘눈먼 돈’은 ‘임자 없는 돈’으로, ‘꿀 먹은 병어리’는 ‘말문이 막히다.’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

- 01** ‘정상(正常)’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를 뜻하는 말로 ㉠은 팔 길이에 ‘정상’과 ‘비정상’이 있다는 그릇된 생각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빈칸에 정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제시함.	6점	총 10점
빈칸에 채워 완성된 문장 전체를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2** ‘병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병어리장갑’은 네 손가락이 붙어 있는 장갑의 모양을 언어 장애인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언어 장애인에게 불쾌감이나 상처를 준다는 내용을 제시함.	6점	총 10점
완성된 한 문장으로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3** (나)에 나와 있는 진행자의 말에서 차별 표현과 관련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차별 표현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제시함.	6점	총 10점
(나) 문단의 두 번째 문장을 그대로 씀.	4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 04** ‘결정 장애, 눈먼 돈, 꿀 먹은 병어리’는 모두 부정적인 상황이나 물건을 장애에 빗댄 차별 표현이다. 차별의 관점 없이 어구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제시된 표현의 공통점을 씀.	4점	총 10점
‘결정 장애’의 대체 표현을 제시함.	2점	
‘눈먼 돈’의 대체 표현을 제시함.	2점	
‘꿀 먹은 병어리’의 대체 표현을 제시함.	2점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음.	-1점	

1 문학과 표현

01 3월

개념 확인문제

p.24

1 보조 관념 2 직유 3 은유 4 사람 5 시 6 반복

소단원

기출 예상

p.25

- 01 ① 02 ⑤ 03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04 ③ 05 ②

- 01 이 시는 '아침부터, 점심 무렵에는, 하루가 지나고, 다시 아침이 오고'와 같은 표현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 02 7연의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은 원관념 '파란 새싹'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보조 관념이지 실제로 아이들이 왁자지껄하게 산과 들을 뛰어다니는 것은 아니다.
- 03 이 시에서는 '-이(가) -더니'와 같은 문장 구조를, <보기>에서는 '-에 쌓이는 봄눈'과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는 내용을 씀.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4 ㉠은 원관념 산과 들에 쌓인 '봄눈'을 보조 관념 '하얀 이불'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 05 ㉡에는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사물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연결어로 결합하여 직접 비유하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역설법 ③ 의인법 ④ 대구법 ⑤ 은유법

02 오우가

개념 확인문제

p.26

1 시조 2 음보 3 상징 4 원관념 5 시련 6 술, 절개 7 너

소단원

기출 예상

p.27

- 01 ⑤ 02 ④ 03 ⑤ 04 ⑤ 05 ② 06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눈서리가 와도 변치 않고 견딜 수 있다.

- 01 이 시에서는 추상적인 관념(지조, 절개 등)을 구체적인 사물(소나무)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을 사용했다.
- 02 이 시조에서 '수(水), 석(石), 송(松), 죽(竹), 달'은 화자의 다섯 벗을 의미하고, '꽃'은 아름답지만 쉽게 변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 03 (나)에서 눈서리에도 변치 않고 뿌리가 깊은 '술'의 특성을 예찬하고 있다.
- 04 <보기>의 '구름 빛'과 '바람 소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존재로, 아름답지만 쉽게 변하는 (나)의 '꽃'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05 ㉠에는 사람이 아닌 '소나무'를 '너'라고 지칭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또한 '해'가 얼굴을 말갭게 씻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06 종장의 '구천에 뿌리 곧은'을 통해 소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눈서리를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소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서술함.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여름비와 방식

개념 확인문제

p.28

1 수필 2 형식, 개성, 비전문적 3 정서 4 경험, 개요 5 방식

소단원

기출 예상

p.29

- 01 ② 02 ③ 03 글쓴이는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준 윤서를 향한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했다. 04 ①

- 01 이 글은 여름비를 보고 떠오른 과거의 경험과 그때 느낀 감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수필이다.
- 02 (가)에서 윤서는 '나'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는 고마운 친구라고 하였다.
- 03 글쓴이는 빗속을 뚫고 학교 보안관실에서 방식을 찾아다 준 윤서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쓴이가 윤서를 향한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내용을 서술함.	4점	총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4 글쓴이는 꼬리뼈가 다쳐 꼭 필요한 물건인 방식을 가지고 오지 않아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01 ④ 02 글쓰이는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맞서는 태도를 지녀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03 ③ 04 ②

01 이 글은 시각 장애 소년들과 만난 글쓰이의 경험과 그로 인해 얻은 깨달음이 진솔하게 표현된 수필이다.

02 새로운 공간에 가면 부딪치며 배운다는 회원이의 말을 통해 글쓰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맞서는 태도를 지녀야겠다고 다짐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문제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맞서는 태도를 지녀야겠다는 내용을 씀.	4점	총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새로운 공간에서 부딪치며 배우는 회원이의 모습을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다.

04 교실에 불을 켜 놓은 비장애인인 '나'를 위한 것인지 시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대단원

종합 문제

p.31~35

01 ⑤ 02 ③ 03 ④ 04 ⑤ 05 ③ 06 수(물), 석(바위), 송(소나무), 죽(대나무), 달 07 ① 08 ⑤ 09 ② 10 ⑤ 11 ④ 12 ③ 13 ④ 14 자신을 도와준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기 때문이다. 15 ② 16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민에 공감하여 진지하게 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 17 ③ 18 ③ 19 ④ 20 ① 21 ⑥, ④ 22 두 학생의 노력과 어머니들의 사랑이 느껴져 감동했다.

01 이 시에서는 말하는 이(나, 우리)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02 ㉠은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 낮게 들리는 물소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고요한 분위기가 느껴지게 한다.

03 ㉡에는 산과 들이 이불을 덮고 잠들었다는 표현을 통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에도 산맥이 바다를 연모(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사랑하여 간절히 그리워함.)한다는 표현에서 의인법이 드러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직유법 ② 반복법 ③ 대구법 ⑤ 반어법

04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대상을 혼자서 관찰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05 (가)는 하나의 제목 아래 두 수 이상의 평시조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06 (가)의 1수에서는 '수(물), 석(바위), 송(소나무), 죽(대나무), 달'을 소개하며 다섯 벼를 소중히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

07 ㉠은 고난과 시련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지조와 절개를 지니는 삶의 태도를, ㉡은 어지러운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08 이 시에는 촉각적 심상을 주로 사용하여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9 (가)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사회에서 통용되어 오는 관습적 상징이, (나)에는 한 개인의 사상과 개성, 특수한 체험에 의해 독창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적 상징이 사용되었다.

10 이 글은 수필로, 형식적, 내용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

11 수필은 글쓰이가 실제로 경험한 일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경험했던 일인 것처럼 표현할 글감을 떠올릴 필요는 없다.

12 방석을 가져다 달라고 집에 연락하여 엄마가 학교 보안관실에 방석을 맡기셨는데 통증이 심해 내려가지 못한 것인지 엄마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것은 아니다.

13 '나'는 방석을 가져다 준 윤서에게 고마움을 느낀 것인지 당황스러움을 느낀 것은 아니다.

14 글쓰이는 자신을 도와준 일을 생색내지 않고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말하는 윤서의 모습이 멋져 보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윤서가 글쓰이를 도와준 것을 당연히 여겼다는 내용을 씀.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5 ㉠에는 방석이 없는 '나'를 걱정하는 윤서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인지 윤서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나'를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16 글쓰이는 윤서가 자신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고민에 공감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을 씀.	3점	총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7 '나'는 윤서에게 고마움을 느꼈으므로, 친구가 길에서 넘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과는 같지 않다.

18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쓰면 독자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며, 글쓰이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성장할 수 있다.

19 '나'는 아이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

20 (가)의 메일 내용을 통해 '나'가 작가임을 알 수 있다.

21 글쓰이는 새로운 공간에 가면 부딪치며 배운다는 회원이의 말을 듣고 문제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 22 글쓴이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능숙하게 움직이는 수빈과 희원의 모습에서 그동안 두 학생이 했을 노력과 어머니들의 사랑이 느껴져서 감동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두 학생과 어머니에게 감동했다는 내용을 씀.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맥심

마무리 체크

p.36-37

- 01 시간 02 구조 03 하얀 이불 04 자장가, 아이들 05 산, 들, 해, 사람 06 봄 07 예찬 08 4 09 꽃, 술, 눈서리 10 절개 11 소나무 12 꽃, 술 13 형식, 비전문적 14 여름비 15 방석, 고마움 16 공감

2

요약과 정보 전달

01 요약하며 읽기-오랜세월 보물을 지킨 장경관전

개념 확인문제

p.38

- 1 요약 2 목적 3 내용 4 처음 5 선택 6 일반화

소단원

기출 예상

p.39-41

- 01 ② 02 ① 03 장경관전의 지붕에 진흙 기와를 올려 내부 온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했다. 04 ⑤ 05 ④ 06 ③ 07 (가)는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처음, (나)~(바)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중간, (사)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끝부분에 해당한다. 08 ③ 09 ⑤ 10 ④ 11 ④ 12 이 사진은 (나)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진을 활용하면 글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독자가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3 ③

- 01 이 글은 설명문으로, 객관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글이다.
- 02 (가)에서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설명 대상인 '해인사 장경관전'을 소개하고 있다.
- 03 (다)는 중심 문장인 두 번째 문장을 바탕으로, 진흙 기와가 내부 온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장경관전의 진흙 기와의 역할을 적절히 씀.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4 글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과 구체적인 예는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지만, 이는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이를 포괄하는 말로 바꾸거나 삭제해야 한다.

- 05 이 글은 장경관전에서 팔만대장경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 06 조상들은 하루 동안의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 장경관전을 서남향으로 지었고, 이를 통해 바람 속 습기 문제를 해결했다.

- 07 설명문의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중간 부분에서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끝부분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사)를 처음, 중간, 끝부분으로 적절히 구분함.	2점	총 4점
설명문의 구성 단계에 따른 각 문단의 역할을 적절히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8 (나)에서는 장경관전에서 팔만대장경 경관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두 번째 문장에 문단의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 09 (다)는 바람 속 습기 문제를 말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경관전을 서남향으로 짓는다는 내용이지만 뚜렷한 중심 문장이 없으므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요약할 수 있다.

- 10 (마)에서는 앞쪽 벽과 뒤쪽 벽의 위아래 살창 크기를 서로 다르게 하여 공기가 잘 통하게 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보기>에서 질문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 11 (바)에서는 일반적인 책꽂이와 달리 어느 쪽으로든 막히지 않은 장경관전의 판가 구조를 설명한 것이지 장경관전의 판가에 서 현대의 책꽂이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

- 12 제시된 사진은 장경관전이 해인사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나)에 활용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에 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1점	총 4점
사진을 활용하면 독자가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3 장경관전의 앞쪽 벽과 뒤쪽 벽 위아래로 크기가 서로 다른 살창을 두어 장경관전 안 구석구석 공기가 통하게 했다.

0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초보블로거지수의글 쓰기

개념 확인문제

p.42

- 1 설명문 2 정보 3 계획 4 중요도 5 매체 6 쓰기 윤리

01 ㉓ 02 ㉓ 03 ㉓ 04 ㉓ - ㉔ - ㉕ - ㉖ - ㉗ 05 ㉓ 06 (마)
에 식당 메뉴 가운데 치킨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도표를
제시하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07 ㉔

- 01 이 글은 치킨의 역사를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 시
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02 이 글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블로그에 쓴 글이다. 블로그는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칼럼, 일기, 취재 기사 등을
올리는 웹 사이트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03 전기구이통닭은 처음에 크리스마스와 같이 특별한 날에
만 맛볼 수 있는 고급스러운 외식 메뉴였다.
- 04 ‘계획하기, 정보 수집하기, 정보 중요도 분석하기, 정보 통합
하기,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의 과정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
는 글을 쓸 수 있다.
- 05 제시된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드치킨이 탄생하게 된 배
경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다)에서 활용할
수 있다.
- 06 <보기>는 식당 메뉴 가운데 치킨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도표로, 이와 같은 자료는 새로 등장한 치킨의 종류
가 다양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마)에 활용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제시된 자료를 (마)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2점	총 3점
도표를 제시할 때의 효과를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7 이 글에서는 프라이드치킨의 느끼함을 덜 수 있는 ‘한국식 양
념치킨 소스’를 설명했지만, 이를 ‘외국식 양념치킨 소스’의 재
료와 비교하여 설명한 것은 아니다.

더 한 걸음 더 기출 예상

p.45

01 ㉔ 02 ㉔ 03 ㉓ 04 찬희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하
여 쓰기 윤리를 어긴 것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 01 이 글에서 쓰기 윤리는 글 쓰기의 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한다
고 설명했지만, ‘계획하기, 내용 조직하기, 글 쓰기, 고쳐 쓰기’
등의 글 쓰기 단계마다 지켜야 하는 쓰기 윤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 02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아이디어 등을 인용한
경우 그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 03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와 예의를 지
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04 (가)로 보아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했을 때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인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적절히 씀.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대단원 종합 문제

p.46-50

01 ㉓ 02 ㉓ 03 ㉔ 04 ㉓ 05 ㉔ 06 ㉓ 07 ㉓ 08 ㉔
09 ㉔ 10 ㉔ 11 ㉓ 12 ㉔ 13 ㉔ 14 ㉓ 15 제시된 자료
는 치킨의 열량에 관한 정보로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를 소개하고자 하는 이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16 ㉔ 17 쓰기 윤리 18 ㉓
19 ㉔

- 01 이 글은 설명문으로,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해야 한다. 논리적
인 근거를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을 제시하는
글은 논설문이다.
- 02 (나)에서 장경관전이 해인사에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해
인사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 03 ㉔에서는 장경관전에 구리 기와를 얹었을 때 열전도율이 높아
져 내부 온도의 변화가 커진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지 구리
기와로 장경관전의 열전도율을 높여야 한다는 글쓴이의 견해
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 04 팔만대장경 경판은 나무로 만들었지만 조상들의 지혜로 잘 보
존할 수 있었다.
- 05 이 글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판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로, 재판의 의미와 종류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
달한다.
- 06 민사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정당성을 심판하여 권리 등을 확정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이다.
- 07 형사 재판은 범죄 사실을 밝히고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
는 재판이다.
- 08 공적인 것은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에
관계되는 것은 사적인 것이라고 한다.
- 09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사진과 도표 등은 독자의 이해를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시해야 한다.
- 10 이 글은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11 (라)에서는 양념치킨의 등장으로 유행하게 된 ‘양념 반, 프라
이드 반’ 치킨 사진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 12 (마)에서는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치킨이 개발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기구이통닭이 다시 유행했다는 것을 이
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13 <보기>에는 양념치킨의 등장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라)와 가장 관련이 있다.

14 글을 쓸 때에는 참고한 모든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이 지 대표 자료의 출처만 밝혀서는 안 된다.

15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수집한 정보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중요도를 판단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정보라는 내용을 씀.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6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 받는 것은 맞지만 (나)에 이와 관련된 사례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17 ‘쓰기 윤리’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으로, 쓰기의 모든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다.

18 ‘짜깁기’는 하나의 글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글을 이리저리 쪼개고 붙여서 마치 자신이 쓴 글처럼 속이는 행위이다.

19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를 대하는 태도와 언어 사용에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

핵심 마무리 체크

p.51~52

01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02 선택 03 선택, 환기 04 재구성
05 삭제 06 재구성, 공기 07 평가 08 선택, 지혜 09 소개, 정리 10 블로그 11 매체 12 주제 13 통합 14 출처 15 역사 16 출처, 사실, 예의

3 슬기로운 언어생활

01 품사의 종류와 특성

개념 확인문제

p.53~54

1 품사 2 형태, 기능, 의미 3 불변어 4 체언, 독립언 5 명사, 형용사, 관형사, 감탄사 6 명사, 대명사 7 동사, 형용사 8 관형사, 부사 9 조사 10 감탄사

소단원 기출 예상

p.55~56

01 ① 02 ③ 03 ② 04 ① 05 ③ 06 예쁘다, 닦다 07 ③
08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창문, 책상, 칠판 /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사랑, 우정, 열정, 희망, 행복 09 ③
10 ㉠: 동물원 ㉡: 현서 ㉢: 현서와 은수 11 ① 12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동사는 명령과 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데에 쓰일 수 있는 반면 형용사는 쓰일 수 없다. 13 ③
14 ㉡은 ㉠과 달리 형용사 ‘맛있다’를 수식하는 부사 ‘엄청’이 있어 문장의 의미가 더 구체적이다. 15 ③ 16 ④ 17 ②

01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형태, 기능, 의미’가 있다.

02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단어로, 품사는 이 단어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어절 ② 음절 ④ 음운 ⑤ 문장

03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날씨, 가, 무척, 따뜻하다’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04 ‘먹다(동사), 달리다(동사), 재미있다(형용사), 반갑다(형용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고, ‘길(명사), 여기(대명사), 둘(수사), 현(관형사), 많이(부사), 를(조사), 앓(감탄사)’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05 단어 중 형태가 변하는 것은 동사, 형용사이다. ③ ‘재미있다’는 사람이나 사물 등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가(조사) ② 손(명사) ④ 새(관형사) ⑤ 여기(대명사)

06 ‘예쁜’은 형용사 ‘예쁘다’, ‘닦는다’는 동사 ‘닦다’의 형태가 변한 것이다.

07 다른 말을 꾸미는 기능을 하는 단어는 관형사와 부사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많이(부사) ② 깨끗이(부사) ④ 새(관형사) ⑤ 엄청(부사)

08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고, 그럴 수 없는 것은 추상적인 대상이다.

09 ‘하나’, ‘첫째’는 수사로, 사람이나 사물 등의 수량, 순서를 나타낸다. ‘하나’는 수량을, ‘첫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관형사 ② 명사 ④ 형용사 ⑤ 대명사

10 밑줄 친 단어는 대명사로,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낸다.

11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로, ①에는 동사 ‘사다’가 사용되었다.

Clinic 오답 강의

② 넓다(형용사) ③ 파랗다(형용사) ④ 맑다(형용사), 좋다(형용사) ⑤ 깨끗하다(형용사)

- 12** 동사와 형용사는 주로 주어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으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는데 이를 ‘활용’이라고 한다. 또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와 달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인 형용사는 시키거나(명령), 함께 하자는(청유) 뜻을 나타내는 데에 쓰일 수 없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동사와 형용사가 활용한다는 공통점을 씀.	1점	총 4점
동사는 명령과 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데 쓰일 수 있으나 형용사는 쓰일 수 없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3** ‘올랐다(오르다)’는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여 가다.’의 뜻으로, 사람이나 사물 등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 14** 문장에 다른 말을 꾸며 주는 단어 즉, 관형사, 부사를 사용하면 문장의 의미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 다른 말을 꾸며 주는 단어(부사)가 있다는 내용을 씀.	1점	총 4점
㉠의 의미가 더 구체적이라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5** ㉠은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 ㉡은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로 관형사, 부사와 같은 수식언은 문장에서 사용될 때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16**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않고 다른 말에 붙어서만 쓰일 수 있는 단어는 조사로, 주어진 문장에서는 ‘가, 에게, 으로, 을’과 같이 4개가 사용되었다.

- 17** ‘야, 우아’는 느낌이나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다른 말에 붙어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것은 조사이다.

02 매체로 소통하기

개념 확인문제

p.57

1 매체 2 공적인 3 격식 4 사회 관계망 서비스 5 반말

소단원 기출 예상

p.58-59

01 ④ 02 ⑤ 03 ⑤ 04 (가)는 ‘~보다’와 같이 격식을 갖추어 정돈된 표현을 쓴 반면 (나)는 ‘~놀람, ~인 줄’과 같이 편하고 간결한 표현을 썼다. 05 ④ 06 ① 07 ④ 08 ⑤ 09 ②

- 01**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 참가자를 모집하는 글인 (가)에 박물관 견학 후에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 후기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02** (가)는 학교 누리집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생각과 느낌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다.

- 03**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글쓴이와 친분이 없어도 댓글을 달 수 있다.

- 04** (가)는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매체이기 때문에 존댓말로 격식을 갖추어 쓰고, (나)는 생각과 느낌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편하고 간결한 표현을 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 (나)에 사용된 표현을 비교하여 서술함.	3점	총 4점
(가), (나)에 사용된 표현의 구체적인 예를 적절히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5**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소통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이 쌍방향적으로 일어난다.

- 06** ㉠은 ‘시우, 형은, 진서, 아진, 은기’가 소통에 참여하고 있고, ㉡은 ‘시우, 형은, 진서’가 소통에 참여하고 있다.

- 07** ‘진서’는 공적인 공간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반말을 사용하였으므로, 소통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08** ‘시우’는 모음자를 변형한 ‘ㅍㅍ’과 같은 표현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09** 온라인 대화방에 참여할 때에는 유언비어, 속어와 욕설을 금해야 한다.

더

한 걸음 더 기출 예상

p.60

01 ⑤ 02 ② 03 ㉠은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의 의미로 동사이고, ㉡은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의 의미로 형용사이다. ㉠, ㉡과 같은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동사에는 명령형 어미가 붙을 수 있으나, 형용사에는 명령형 어미가 붙을 수 없기 때문이다. 04 ③ 05 ④

- 01** ‘네’와 ‘예’는 동의어이므로 윗사람의 부름에 대답할 때에는 ‘네’와 ‘예’ 중 어떠한 것으로 대답해도 상관 없다.

- 02** ‘나무가 어제보다 커졌다.’에서 ‘크다’는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였다.

- 03** 동사에는 명령형 어미가 붙을 수 있으나 형용사에는 명령형 어미가 붙을 수 없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 ㉡에 사용된 ‘있다’의 의미를 각각 서술함.	2점	총 5점
㉡의 ‘있어라’가 어색한 이유를 적절히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4** ‘피다’는 ‘꽃봉오리 따위가 벌어지다.’의 뜻을 갖는 동사이다.

- 05** ‘착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착해라’와 같이 명령형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어지다’의 구성을 사용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 착해져라.’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 01 ② 02 ④ 03 ④ 04 ⑤ 05 ③ 06 ② 07 ③ 08 ②
09 ⑤ 10 ① 11 ② 12 ③ 13 ① 14 ①, ②은 모두 다른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③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④은 형태가 변한다. 15 ③ 16 ② 17 ⑤ 18 ② 19 ⑤ 20 ① 21 ④ 22 ① 23 ④ 24 ⑤ 25 ㉠는 공적인 공간이고, ㉡는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26 ④ 27 ④ 28 ④ 29 ② 30 '착해져라, 예뻐져라'는 형용사가 '-어지다'와 결합하여 동사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31 ④ 32 ①

- 01 수식언은 다른 단어를 꾸미는 역할을 한다.
02 '구름, 안경, 가방, 자동차'는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기쁨'은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03 밑줄 친 '그, 거기, 너'는 모두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04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로, ⑤에는 순서를 나타내는 '첫째'가 사용되었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의 '세', ②의 '한', ③의 '두', ④의 '첫'은 관형사에 속한다.

- 05 기본형은 어간에 어미 '-다'를 붙인 형태로, 어간 '먹-'에 어미 '-다'가 붙은 '먹다'가 기본형이다.
06 '조용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 따위를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청유형 어미와 함께 사용될 수 없으므로 '수업 시간이니 조용히 하자.'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07 ㉠은 '신발'을 수식하는 관형사로,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고, ㉡은 형용사 '작다'가 '작은'의 형태로 변한 것이다.
08 관형사가 있으면 문장의 의미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관형사를 생략한다고 해서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09 ㉠에는 용언 앞에 놓여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가 사용되어 ㉡에 비해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전해진다.
10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부사로, '곰다, 행복하다'와 같은 용언을 꾸며 준다.
11 '못'은 동사 '가다'를 수식하는 부사로, '매우'도 이와 같은 부사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관형사 ③ 동사 ④, ⑤ 형용사

- 12 조사는 다른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언이다. 문장에서 다른 말들에 얹매이지 않고 쓰이는 것은 감탄사이다.
13 제시된 문장은 조사 '만, 도, 까지'에 의해 의미가 달라지므로, 조사가 문장에 특별한 뜻을 더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4 조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이다'는 예외적으로 '이고, 이면, 이라서, 이네, 이군' 등으로 형태가 변한다.
15 느낌,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는 감탄사로, '이 풍경 정말 멋지다!'에는 감탄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아이 ② 맛 ④ 네 ⑤ 아니요

- 16 '흰'은 형용사 '희다'가 활용한 것으로 사람이나 사물 등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17 ㉠은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 ㉡은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 ㉢은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 ㉣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18 (가)에서 시우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
19 (가)는 학교 누리집으로, 시우는 자신의 학교인 은결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20 소통 목적과 소통 공간의 특성에 따라 참여자들의 소통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통에 참여할 때에는 소통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21 (나)의 소통 공간에서는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공유한다는 특성이 있다.
22 ㉠, ㉡는 소통 목적, 소통 참여자의 성격 등 소통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 참여자의 소통 방식에 차이가 있다.
23 ㉠에 사용된 매체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과 같이 해당 내용에 관련된 사람만 대화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4 ㉠에서 아진은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이라는 소통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적인 이야기를 했다.
25 시우는 공적인 공간인 ㉠에서는 격식을 갖추어 정돈된 표현을 사용했고, 사적인 공간인 ㉡에서는 반말을 사용하며 편하게 표현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은 공적인 공간, ㉡는 사적인 공간이라는 내용을 씀.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26 진서는 늦은 시간인 새벽 두 시에 온라인 대화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동은 언어 예절에 어긋난다고 조언할 수 있다.
27 ④ '내일은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는 '있다'가 명령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는 동사이다.
28 ① '와', ② '아야', ③ '어'는 느낌을, ⑤ '앗'은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29 ②의 '크다'는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다.'의 뜻인 동사로 사용되었다.

30 '지다'가 형용사 뒤에서 '-어지다'의 구성으로 쓰이면 앞의 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어 동사적인 의미로 바뀐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어지다'가 형용사를 동사적인 의미로 바꾼다는 내용을 씀.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1 형용사에는 명령형 어미가 붙지 않는다. (다)의 내용을 통해 형용사 '착하다'는 '착하여라'와 같이 명령의 뜻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 '착하다, 예쁘다'는 형용사이지만, '안다(알다)'는 동사이다.

핵심

마무리 체크

p.66-67

01 단어 02 형태, 기능, 의미 03 체언, 동사 04 이름, 대신, 수사
05 움직임, 형용사 06 체언, 용언 07 조사 08 감탄사 09 맥락
10 목적 11 참여자 12 사적 13 존댓말 14 이모티콘 15 방식 16 언어 예절

4

성장하는 우리

01 멍키스패너

개념 확인문제

p.68

1 성장 2 해결, 성장 3 세면대, 전구 4 성취감, 자신감 5 멍키스패너

소단원

기출 예상

p.69-71

01 ② 02 ③ 03 ② 04 집에 동생과 단둘이 있으며 엄마가 집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05 ② 06 ⑤ 07 ④ 08 ⑤ 09 ① 10 ㉠은 '멍키스패너'로, 이것으로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11 ② 12 ③

01 이 소설은 세면대가 막히는 일상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02 아저씨는 혼자 온 '나'에게 집에 어른이 안 계시냐고 물어 본 것이지 어른과 같이 와야 세면대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03 ㉠ '옆구리에 혹'은 '나'가 돌봐야 하는 동생 한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04 엄마는 '나'에게 누가 와도 문을 열어 주지 말고, 집에 엄마가 없다는 것을 어디에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집에 엄마 없이 동생과 단둘이 있다는 내용을 씀.	2점	총 3점
엄마가 안 계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내용을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5 '나'는 세면대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멍키스패너를 이용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06 '나'는 세면대를 뚫을 때 옆을 지킨 한아가 성장했다고 느껴 한아가 어린아이 취급을 받지 않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아에게 유리컵을 주었다.

07 스스로 세면대를 뚫은 후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지 세면대가 막히지 않도록 머리를 짧게 잘라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08 '나'가 세면대를 고쳤을 때 한아가 수도꼭지를 잡고 마음을 졸이며 "틀어? 튼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나'가 세면대를 잘 고쳤을 거라고 확신한 것은 아니다.

09 (가)에서는 세면대를 고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에서는 자신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10 '나'는 스스로 세면대를 고친 뒤 자신감을 얻어 멍키스패너를 사고자 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멍키스패너'라는 것을 밝힘.	1점	총 4점
'나'가 '멍키스패너'를 사고자 하는 이유를 적절히 제시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1 (나)에서는 '~하고 나면 / 내가 어른스러워진 것 같다'와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2 ㉠은 그들이 넓은 만큼 많은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주는 사람을 뜻하므로, 타인의 잘못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02 존중하며 말하기

개념 확인문제

p.72

1 춤 2 비난 3 격려 4 사과 5 익명성, 악성

01 ⑤ 02 ③ 03 ⑤ 04 ④

- 01 도운이는 친구들과 함께 춤 영상을 찍으며 계속해서 실수했다.
- 02 ㉠은 상대방의 실수를 비난하여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고, ㉡은 상대방의 실수를 포용하여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는 말이다.
- 03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하기 때문에 표정, 억양 등으로 상대의 심정을 유추하기 어렵다.
- 04 ‘오리썹썹’의 말은 배우 ○○○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말이다.

더

한 걸음 더 기출 예상

01 ③ 02 ⑤ 03 ㉠에는 팔 길이에 ‘정상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숨어 있기 때문에 차별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반소매 또는 반소매 티’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04 ①

- 01 무엇을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결정 장애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장애’는 ‘부족하다, 열등하다’는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장애’를 비하의 뜻으로 사용하는 차별 표현이다.
- 02 무심코 사용하는 차별 표현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말로 바꾸어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03 ㉠은 정상적인 팔 길이가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차별 표현으로, 이는 ‘반소매’ 또는 ‘반소매 티’로 고쳐 쓸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차별 표현인 이유를 적절히 씀.	2점	총 5점
㉡을 ‘반소매’ 또는 ‘반소매 티’로 고쳐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4 ‘병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므로, ‘병어리장갑’에 언어 장애인을 존중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단원

종합 문제

01 ② 02 ⑤ 03 ③ 04 ① 05 ③ 06 ④ 07 ㉠은 출산을 앞둔 외숙모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한 행동이다. 08 ③ 09 ④ 10 ⑤ 11 ③ 12 ⑤ 13 ② 14 ④ 15 ④ 16 (가)에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사람은 ‘멋진나무, 너구리, 구름’이다. 이와 같이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17 ④ 18 ③ 19 ③ 20 ④ 21 ② 22 ④

- 01 이 글은 소설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작가가 상상해서 꾸며 낸 이야기이다. ① 희곡 ③ 수필 ④ 설명문 ⑤ 시
- 02 (다)로 보아 ‘나’는 관리 사무소를 처음 방문하는 거라 가는 길을 잘 몰라 헤매다가 찾았음을 알 수 있다.
- 03 (나), (다)에는 만년철물점 사장님과 관리사무소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드러난다.
- 04 ‘나’는 어떤 일에도 결코 호들갑을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내뱉는 아이의 모습이 멋져 보여서 머리를 잘랐다.
- 05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 ‘나’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직접 드러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 06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었으므로 이를 무모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7 외숙모도 외삼촌 없이 혼자 버티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 ‘나’는 외숙모를 걱정시킬까 봐 자신의 문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외숙모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지 않은 이유를 적절히 씀.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8 ‘나’는 스스로 세면대를 고쳐 냈다는 것이 뿌듯하고 한아에게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싶어서 ㉠과 같이 말한 것이다.
- 09 도운이는 하울, 서준, 지우와 함께 영상을 다시 찍기로 한 것이지 하울이와 따로 춤 연습을 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 10 ㉡은 짜증을 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말이다.
- 11 도운이가 자꾸 동작을 틀려서 영상 촬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지우는 도운이를 비난하면서 ㉢와 같이 말하고 있으므로, 폭력적인 언어로 상대방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할 수 있다.
- 12 하울이는 계속해서 실수하는 도운이를 이해하며 도운이를 비난했던 서준이와 지우를 말리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다.
- 13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하면 다른 사람과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 14 (나)의 대화 참여자들은 가정 실습 모둠원으로 내일 가정 실습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로를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화 참여자들은 차별하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기분 나빠한다.
- 15 (가)에서는 ‘오리썹썹’이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했다.
- 16 ‘멋진나무, 너구리, 구름’과 같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폭력

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에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사람을 모두 씀.	1점	총 4점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적절히 서술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7 (나)에서는 ‘야, 너 여자 맞냐?’, ‘힘쓰는 일은 남자가 해야지.’와 같은 성차별적 발언을 사용했다.
- 18 디지털 공간은 비대면인 상황이기 때문에 표정, 억양 등으로 상대의 심정을 유추할 수 없어 오해가 생기기 쉬우므로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 19 ‘출연자 3’은 앞으로 차별 표현을 고쳐 쓰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차별 표현을 사용했던 과거 자신의 언어 생활을 반성한 것은 아니다.
- 20 ‘꿀 먹은 병어리’는 무슨 일에 대하여 아무 말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지만,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 21 ‘반팔 티’는 ‘반소매’ 또는 ‘반소매 티’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 22 ㉠은 망설이며 결정을 어려워 한다는 뜻이지,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핵심

마무리 체크

p.80-81

- 01 동생 02 해결, 배려심 03 책임감, 준비성 04 엄마, 스스로 05 동영상, 멍키 스페너 06 엄마 07 성장, 자신감 08 전구 09 춤 영상 10 사과 11 폭력 12 존중 13 비난 14 익명성, 악성 15 상처 16 성차별적

실전 모의고사 1 회

p.83-87

- 01 ④ 02 이불(하얀 이불), 산과 들에 봄눈이 쌓인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03 ② 04 ⑤ 05 ④ 06 ④ 07 수, 석, 송, 죽, 달 08 ④ 09 ⑤ 10 4음보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한다. / 네 마디씩 끊어 읽는 것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11 ③ 12 여름비 13 ⑤ 14 ④ 15 윤서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이다. / 윤서가 자신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6 ③ 17 물소리 18 ③ 19 ③ 20 자신을 도와준 윤서에 대한 고마움 21 ① 22 ⑤ 23 ③ 24 봉어빵 25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고민에 공감하며 진지하게 들어 주는 사람이 되었다.

- 01 이 시는 이른 봄 풍경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으로,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드러나 있지 않다.
- 02 이 시에서는 산과 들에 쌓인 봄눈을 이불에 빗대어 표현하였는데, 이를 통해 봄눈이 내린 풍경을 더욱 생생하고 참신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은유법이 사용된 시어를 제시함.	2점	총 4점
비유적 표현의 효과를 서술함.	2점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않음.	-1점	

- 03 1~4연에서는 산과 들이 봄눈으로 덮이고,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만 낮게 들려 오는 봄날의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슬픈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 04 봄눈이 녹자 그 자리에 파란 새싹들이 돋아나 있었음을 7~8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⑤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 05 이 시에서는 ‘봄눈이 내리더니 ~’, ‘해가 떠오르더니 ~’와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와 ⑤는 운율 형성 방법과 거리가 멀다.
- 06 (가)에서 말하는 이는 시조가 시작되는 부분(초장)에서 ‘내 벗이 뗏이나 ~’와 같이 작품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07 (가)에서 소개하는 다섯 벗은 ‘수(물)’, ‘석(돌)’, ‘송(소나무)’, ‘죽(대나무)’, ‘달’이다.
- 08 (나)에서 ‘봉어빵’은 친구 선재가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몰래 가방에 넣은 것이다. 따라서 ‘봉어빵’은 친구의 따뜻한 마음, 우정 등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 09 (가)의 ‘술’은 지조와 절개, 고난과 시련에 뜻을 굽히지 않는 태도를 상징한다. 따라서 ⑤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지라도 자신의 뜻과 포부, 신념, 꿈 등을 굽히지 않는 것이 ‘술’이 상징하는 삶의 태도와 가장 가깝다.
- 10 (가)는 ‘내 벗이 뗏이나 하니 V수석과 V송죽이라’와 같이 각 행을 네 마디로 끊어 읽을 수 있는데 이처럼 4음보를 반복함으로써 운율(4음보율)을 형성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의 운율 형성 방법을 서술함.	2점	총 3점
20~30자 내외로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1 이 글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쓴 글인 수필에 해당한다. ③은 소설의 특징에 해당한다.
- 12 이 글은 글쓴이가 비 오는 날 겪은 일을 담고 있는데, 글쓴이는 여름비를 보고 2년 전 여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된다. 따라서 여름비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 13 이 글은 중학생인 글쓴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험한 일을 떠올리며 쓴 글이다. 윤서가 방식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한 글쓴이의 정서와 그 일이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은 제시되어 있지만 ⑤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14 글쓴이는 힘든 상황에서 친구 윤서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으로 인해 자신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경험은 남을 돕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게 해 주었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면 뿌듯함을 느낀다고 글쓴이는 말하고 있다. ④ 이 글에서 글쓴이는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도 이를 제때에 표현하지 못한다거나 도와달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등 다소 소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등장한다.
- 15 글쓴이는 방식이 없어서 꼬리뼈에 통증을 느꼈지만 자신을 걱정하는 윤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과 같이 말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쓴이가 ㉠과 같이 말한 까닭을 서술함.	2점	총 4점
제시된 글자 수에 맞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6 의성어와 의태어가 사용된 작품은 (나)가 아니라 (가)이다. (가)에는 ‘평 평’, ‘나죽 나죽’과 같이 의도적으로 띄어 쓴 의태어와 의성어가 사용되었다.
- 17 (가)에서는 낮고 잔잔한 ‘물소리’(원관념)를 ‘자장가’(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18 (나)에서는 4음보율이 사용되었으므로 ③과 같이 각 수의 초장, 중장, 종장을 네 마디씩 끊어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내 벗이V벗이나 하니V수석과V송죽이라 ② 동산에V달 오르니V그 더욱V반갑고야 ④ 더우면V꽃 피고V추우면V잎 지거늘 ⑤ 술아V너는 어찌V눈서리를V모르는다

- 19 (가)에서 ㉠은 산과 들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이불과도 같이 포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③의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 20 (다)에서 글쓴이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자신을 대신하여 빗속을 뚫고 방식을 가지고 온 윤서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이를 표현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다)에 드러난 글쓴이의 정서를 서술함.	2점	총 4점
글자 수에 맞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21 (가)의 ‘나죽 나죽’, ‘좌아악’ 등은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나직나직’, ‘좌’ 등을 시인이 의도적으로 바꾸어 쓴 표현으로, 시적 허용에 해당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② (가)는 이른 봄 풍경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③ (가)에는 ‘-자와 같은 청유형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④ (나)에는 말줄임표가 사용되지 않았다. ⑤ (나)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해진 형식을 따르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인 시조에 해당한다.

- 22 ㉠에는 사람이 아닌 대상(‘파란 짝’)에 사람의 특성(‘왁자지껄 일어나 있다’)을 부여하여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23 (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글로, 수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글쓰기를 통해 글쓴이와 독자 모두 정신적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③은 소설과 같이 허구성을 가진 이야기를 창작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해당한다.
- 24 ㉠을 떠올리면 글쓴이는 자신을 도와준 윤서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 <보기>의 시에서 친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는 시어는 ‘붕어빵’이다.
- 25 (다)의 글쓴이는 2년 전에 방식을 가져오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한 자신을 도와준 윤서에게 영향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민에 공감하여 진지하게 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윤서가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을 서술함.	3점	총 4점
글자 수에 맞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실전 모의고사 2회

p.88-93

- 01 ④ 02 ③ 03 선택, 문단의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문장이 있기 때문이다. 04 ② 05 ③ 06 ③ 07 ② 08 서남향 09 ④ 10 해인사 장경판전에서 오랜 시간 팔만대장경 경판을 보존할 수 있었던 비결 11 ④ 12 ㉠ 13 ④ 14 ③ 15 ㉠과 ㉡, ㉢과 ㉣은 전기구이통닭에 관한 자료이므로,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6 ⑤ 17 ④ 18 ③ 19 ③ 20 1970년대에 들어서서 전기구이통닭 대신 닭을 기름에 튀긴 프라이드치킨이 유행하게 되었다. 21 ④ 22 ③ 23 범죄 사실을 밝히고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재판 24 ④ 25 ③

01 이 글은 지식이나 정보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여 쓴 설명문이다. 설명문은 글쓴이의 주장과 생각, 주관적인 느낌 위주의 글이 아니라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글이다. ④는 논설문의 성격에 해당한다.

02 (가)~(마)는 설명문의 구성 단계에 따라 처음, 중간, 끝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가)는 처음, (나)~(라)는 중간, (마)는 끝부분에 해당한다.

03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장경관전의 이모저모를 살펴 오랜 시간 팔만대장경 경관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알아보자’와 같이 이 글에서 무엇을 설명할 것인지 밝히고 있다. 문단의 중심 문장에 해당하는 이 문장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좋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알맞은 요약 방법을 <보기>에서 골라 적음.	2점	총 5점
그 방법을 고른 이유를 바르게 서술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보기>의 중심 내용은 장경관전을 서남향으로 지어서 바람 속 습기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이다. <보기>의 첫 문장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어도 ~’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보기>의 앞 문단에서 장경관전을 바람이 잘 통하게 지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마지막 문장에서 팔만대장경 경관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보기>의 앞 문단에서 첫 번째 비결이 언급되어야 한다.

05 ③의 내용은 (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다)의 중심 내용이 아니며, <보기>에 제시된 읽기 목적인 장경관전에서 팔만대장경 경관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요약이 아니다.

06 이와 같은 글을 요약할 때에는 글 전체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들을 간추려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단별로 요약한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것이 있다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나)에는 포괄하는 말로 묶을 수 있는 세부 정보들이 여러 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화’의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다. 뚜렷한 중심 문장이 없는 (나)를 요약할 때에는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문장을 새로 만드는 ‘재구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8 (나)에서 소개한, 팔만대장경 경관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바람 속 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경관전을 서남향으로 지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서남향’이다.

09 (라)의 중심 내용은 ‘장경관전은 앞쪽 벽과 뒤쪽 벽 위아래 살창의 크기를 서로 다르게 하여 공기가 잘 통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④ 장경관전의 살창의 위치와 크기가 경관을 잘 보

존하는 데 미친 영향이 드러나지 않아 (라)를 요약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다.

10 이 글은 해인사 장경관전에서 오랜 시간 팔만대장경 경관을 보존할 수 있었던 다섯 가지 비결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따라서 장경관전에서 팔만대장경 경관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서술함.	4점	총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1 (가)에서 지수는 자신의 블로그(전달 매체)에,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주제)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글을 써서 올리기로 계획한다. 자신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예상 독자)이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기(목적) 위해 여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12 ㉞은 치킨의 열량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글의 주제인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글을 쓸 때 활용하기 어렵다.

13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독자들에게 사실성과 정확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④와 같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4 ① 양념치킨의 등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활용한 매체는 ‘책’이다. ② 온라인 잡지를 활용하여 수집한 정보는 ‘우리나라 프라이드치킨의 탄생 배경’이다. ④ 인터넷 신문을 활용하여 수집한 정보는 ‘다양한 치킨의 종류’이다. ⑤ 치킨의 열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활용한 매체는 ‘텔레비전’이다.

15 ㉞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구이통닭집에 관한 정보이고, ㉞은 전기구이통닭이 유행하게 된 까닭에 대한 정보이다. 두 자료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정보를 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통합하여 활용해야 할 자료들의 기호를 적음.	2점	총 4점
통합한 이유를 밝힘.	2점	
<조건>에 맞지 않거나,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6 이 글은 치킨의 역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이와 같은 글을 쓸 때에는 ‘계획하기(㉠) - 정보 수집하기(㉡) - 정보의 중요도 분석하기(㉢) - 정보 통합하기(㉣) -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다.

17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④는 이 글을 정확하게 읽은 후에 남긴 댓글로 보기 어렵다.

18 양념치킨에 대한 정보는 (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양념치킨이 처음 개발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이다.

19 (나)는 우리나라에 치킨이 들어오게 된 계기와 1960년대 전기구이통닭이 유행한 까닭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소재목으

로는 ‘우리나라 치킨의 시작, 전기구이통닭’ 정도가 적절하다. (다)는 1970년대에 들어 치킨 조리법의 변화로 프라이드 치킨이 유행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소재목으로는 ‘프라이드치킨, 큰 인기를 얻다’ 정도가 적절하다. (마)는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치킨이 등장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소재목으로는 ‘지금은 치킨도 개성 시대’ 정도가 적절하다.

- 20** 1960년대에는 기름이 귀했기 때문에 전기구이통닭이 유행했으나, 1970년대에는 식용유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치킨 조리법에 변화가 생긴다. 닭을 기름에 튀긴 프라이드치킨이 대중화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1970년대에 일어난 치킨 조리법의 변화를 서술함.	2점	총 4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배경을 포함해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21** <보기>에서는 장경관전의 살창의 크기가 다른 것은 환기가 잘 되게 하여 경관을 잘 보존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가)를 요약하였다. 따라서 (가)를 <보기>와 같이 요약한 사람의 읽기 목적은 장경관전의 살창의 위아래 크기를 다르게 만든 이유를 알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 22** ③에는 ‘지우는 성실하다.’와 같이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문장이 있으므로 ‘선택’의 방법을 사용하여 요약하기에 적절하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은 ‘동생이 엄마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고 있다.’와 같이 반복되는 내용(‘동생이’)을 삭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좋다. ②는 ‘할머니는 운동을 좋아하신다.’와 같이 세부 정보를 포괄하는 말로 묶는 ‘일반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좋다. ④, ⑤는 ‘나는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세호는 공부할 준비를 했다.’와 같이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중심 문장을 새로 만드는 ‘재구성’의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좋다.

- 23** (라)의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형사 재판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재판이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재판이라면, 형사 재판은 범죄 사실을 밝히고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재판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형사 재판이 무엇인지 서술함.	2점	총 4점
제시된 글자 수에 맞게 중심이 되는 내용을 간추림.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24** (마)에서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아이디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베껴 쓰는 행위를 비윤리적인 행위인 표절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25**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개요를 작성할 때, 글의 ‘처음’ 부분에는 글에서 다룰 대상을 소개하고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들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은 글의 ‘중간’ 부분에 올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 01** ③ **02** ⑤ **03** ‘헌’과 ‘깨끗이’는 다른 단어를 꾸미는 기능을 하는데, ‘헌’은 관형사로 체언을 꾸며 주지만, ‘깨끗이’는 부사로 용언을 꾸며 준다. / ‘헌’과 ‘깨끗이’는 수식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헌’은 관형사, ‘깨끗이’는 부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04** ③ **05** 너 - 경미, 이것 - 사과 **06** ④ **07** ⑤ **08** ②, ⑤ **09** ④ **10** ③ **11** ① **12** 유미는 남호를 불렀다. ‘가’는 앞말이 주어임을, ‘를’은 앞말이 목적어임을 나타낸다. / ‘가’는 앞말이 동작의 주체임을, ‘를’은 앞말이 동작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 ‘가’는 주격 조사이고, ‘를’은 목적격 조사이다. **13** ⑤ **14** ①: 형태가 변하는 단어 ②: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15** ③ **16** ② **17** ③ **18** ③ **19** ③ **20** ① **21** ③, ④ **22** (가)의 소통 목적은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고, (나)의 소통 목적은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견학하고 느낀 점을 공유하고 애니메이션 박물관에 가 볼 것을 추천하는 것이다. **23** ③ **24** ③ **25** ⑦는 공적인 소통 공간인 반면, ④는 사적인 소통 공간이기 때문이다. / ⑦는 공적인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지만, ④는 친교 및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적인 소통이기 때문이다.

- 01** ③은 음운의 개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품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를 가리킨다.

- 02** ①, ②에서 ‘유미’, ‘웃’, ‘날씨’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명사)이지만, 나머지 단어는 그렇지 않다.

- 03** ②에서 ‘헌’은 ‘구두’를 꾸며 주는 말이고, ‘깨끗이’는 ‘닭다’를 꾸며 주는 말이다. 이처럼 ‘헌’과 ‘깨끗이’는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미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헌’은 관형사로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 주고, ‘깨끗이’는 부사로 용언 앞에서 용언을 꾸며 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밑줄 친 단어들의 품사가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함.	2점	총 4점
밑줄 친 단어들의 품사를 밝힘.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4** 명사는 구체성 유무에 따라 구체적인 모습을 갖춘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구체 명사와,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랑’은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에 해당한다. (나)에서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유미, 밥, 아빠, 사과, 친구, 경미, 정류장’이 있다.

- 05**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로, ‘너’는 앞의 ‘경미’를 대신하여 사용한 것이고, ‘이것’은 다음 문장에서 ‘사과’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06** (다)의 밑줄 친 단어들은 동사와 형용사로, 용언에 해당한다. ‘달린다’, ‘먹자’, ‘가자’는 동사이지만 ‘괜찮아’는 형용사이다.

- 07** ‘멋있다’는 사람이나 사물 등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인 형용사에 해당한다. <보기>와 같이 형용사는 현재형(㉢),

청유형(㉠), 명령형(㉡)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제약이 따른다.

- 08 '정말'과 '빨리'는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이므로 부사에 해당한다.
- 09 ㉠은 문장에서 체언인 '반찬'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사이고, ㉡은 조사 '는'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보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명사이다.
- 10 다른 조사와 달리 서술격 조사 '이다'는 '이고/이니/이며' 등과 같이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 쓰이지만 부사나 용언에 붙기도 한다. 조사는 관형사에 붙지 않는다. ② 조사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인다. ④ '도'는 '더함'의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이다. '한정'의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는 '만'이다. ⑤ 조사는 단어들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 내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등 문장의 의미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 11 '내일 봐'에서 '내일'은 부사, '봐'는 동사이므로 ㉠에는 조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②의 '야', ③의 '는', ④의 '이', '지', ⑤의 '로'는 조사이다.
- 12 '가'는 주격 조사로 앞말이 동작의 주체인 주어임을 나타내고, '를'은 목적격 조사로 앞말이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보기>에서 '가'는 남호가 주어임을, '를'은 유미가 목적어임을 나타내어, 부른 사람은 남호이고 불린 사람은 유미가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부른 사람이 유미가 되고, 불린 사람이 남호가 되도록 고쳐 씀.	2점	총 6점
'가'와 '를'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서술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3 (나)에서 '앗'은 놀람을, '야'는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쓰였다.
- 14 ㉠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고, ㉡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은 불변어이다. 따라서 ㉠과 ㉡으로 품사를 분류한 기준은 문장에서 사용될 때의 형태 변화 여부이다.
- 15 '이것'은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인 명사이다.
- 16 앞의 단어인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짐승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명사이고, 뒤의 단어인 '새'는 체언인 '망원경'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앞의 단어인 '오지'는 '해안이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대륙 내부의 땅'을 가리키는 말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명사이고, 뒤의 단어인 '오지?'는 동사 '오다'의 활용형이다.
- 17 '배탈 같으니 차가운 음식__ 먹지 마세요.'에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단어의 품사로 제시된 것은 '조사'이다. 제시된 품사에 맞고 대화 상황에 어울리는 문장으로는 '배탈 같으니 차가운 음식은/을 먹지 마세요.' 정도가 적절하다.

- 18 '예쁘다', '조용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청유나 명령의 뜻으로 쓰일 수 없다.

- 19 학교 누리집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대화방 등 상호 작용적 매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때에는 소통 매체, 소통 목적, 소통 공간, 소통 참여자 등의 소통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 ② 김시우와 은결중학교 학생들이 소통에 참여하는 (가)에 비해 (나)에서는 김시우와 불특정 다수가 소통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나)에서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 ③ (나)에서는 김시우와 불특정 다수가 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가)에 사용된 매체는 학교 누리집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이다. ⑤ (나)에 사용된 매체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이다.

- 21 ①, ② 시우는 공적인 소통 공간인 (가)에서 존댓말을, 생각과 느낌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여 (나)에서 반말을 사용하여 편하게 표현했다. ⑤ 시우는 공적인 의사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았다. ⑥, ⑦ 형은이는 공적인 소통 공간인 (가)에서 존댓말을, 생각과 느낌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여 (나)에서 반말을 썼다.

- 22 시우가 (가)와 (나)에서 글을 올린 목적은 각기 다르다. (가)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견학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나)는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견학하고 와서 올린 글로 자신이 느낀 점을 공유하고 애니메이션 박물관에 가 볼 것을 추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시우가 (가)와 (나)에서 글을 올린 목적을 서술함.	4점	총 6점
<조건>에 맞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23 ① ㉠의 소통 목적은 정보 전달이고, ㉡의 소통 목적은 친교 및 정서 표현이다. ② ㉠의 소통 참여자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을 신청한 학생들이고, ㉡의 소통 참여자는 친구 사이인 시우, 형은, 진서이다. ④ ㉠은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이고, ㉡은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⑤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과 관련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은 ㉠이 아니라 ㉡이다.

- 24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견학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공적인 소통 공간인 ㉠에서 ②와 같이 사적인 말을 하거나, ①과 같이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소통 맥락을 고려한 말로 보기 어렵다. ④, ⑤는 너무 늦은 시간(새벽 두 시)에 말을 건 것이므로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의 언어 예절에 어긋난다.

- 25 ㉠은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견학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공적인 소통 공간인 반면, ㉡는 친한 친구들끼리 친교 및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화방으로 사적인 소통 공간이다. 형은이는 이러한 소통 목적과 소통 공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에서는 존댓말을, ㉡에서는 반말을 사용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형은이가 ㉠, ㉡에서 소통 방식을 달리한 이유를 씀.	4점	총 6점
<조건>에 맞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실전 모의고사 4 회

p.99~104

- 01 ⑤ 02 ② 03 ③ 04 ⑤ 05 ⑤ 06 '나'는 엄마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화장실 전구가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자 걱정을 하다가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잘되지 않는다. 결국, 자전거 가게에서 멍키 스페너를 빌려 직접 세면대를 뚫고 뿌듯함을 느낀다. 07 ④ 08 멍키 스페너 09 ⑤ 10 ① 11 ④, ⑤ 12 엄마가 집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낯선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이다. 13 ④ 14 ③ 15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 힘든 외숙모에게 저녁밥까지 차리게 한 것 같아 미안했다. 16 ②, ③ 17 ④ 18 ② 19 ④ 20 ③ 21 ③ 22 지우, 서준이의 말은 도윤이를 비난해서 도윤이에게 상처를 주지만, 하율이의 말은 도윤이를 포용하고 격려해서 도윤이가 자신감을 갖게 한다. 23 ④ 24 ③ 25 표정이나 억양 등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할 수 없어 오해가 생기기 쉽다. / 더 쉽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 01 이 글에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비인간적인 어른들이 등장하지 않으며, '나'의 동생인 '한아'와 대립하는 어른도 등장하지 않으므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소설의 구성 단계상 (가)는 발단, (나)는 전개, (다)는 위기, (라)는 절정, (마)는 결말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발단에서는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된다. ③ 위기에서는 갈등이 깊어지면서 긴장감이 조성된다. ④ 절정에서는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다. ⑤ 결말에서는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된다.

- 03 ㉠에 앞서 '나'는 멍키 스페너를 쥐어 보는데, 생각보다 무거운 느낌이 들자 자신을 시험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오기가 생긴다. 그래서 세면대를 꼭 뚫겠다고 다짐하며 ㉡과 같이 멍키 스페너를 쥔 손아귀에 힘을 꽂 쥔 것이므로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4 이 글에서 '나'는 작은 문제라도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고 성장하는 경험을 했으므로 주변의 도움을 받을 때 성취감을 느꼈다는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05 ㉠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국 세면대를 고쳐 냈다는 것이 기쁘고 뿌듯하면서도 동생에게는 언니로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한 말이다. ㉡은 언니가 세면대를 고

친 것이 자랑스럽고, 자신 또한 언니를 도왔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좋아서 언니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 한 것이지, 언니가 한 일이 정말로 시시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다.

- 06 '나'는 엄마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운 상황에서 화장실 전등이 고장 나고, 세면대까지 막히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에 빠진다. 다음 날 어른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는다. '나'는 멍키 스페너를 빌려 동영상에서 알려 준 방법대로 세면대를 뚫고 뿌듯함을 느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가 처한 문제 상황과 그 해결하는 과정을 서술함.	4점	총 8점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나'의 심리와 태도 변화를 서술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7 이 글은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꾸며 낸 이야기인 소설에 해당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수필 ② 설명문 ③ 논설문 ⑤ 시

- 08 세면대 뚫는 법에 대한 동영상을 찾아본 '나'는 멍키 스페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전거 가게에서 멍키 스페너를 빌려서 세면대를 직접 고친다.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는 성취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성장을 경험한다. '나'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멍키 스페너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09 (바)에서는 '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엄마가 오려면 아직 이틀이 남았으므로 엄마가 부재한 것은 맞지만, '나'는 동생 한아와 함께 문제 상황을 해결하며 씩씩하게 지내고 있으므로 쓸쓸한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 10 (나)에서 한아가 막힌 세면대를 보며 근심에 가득 차 “언니, 애 어떡해?”라고 말하자 '나'는 자신도 모르게 언니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내일 고칠 거야.”라고 말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② 한아는 언니인 '나'를 믿고 의지한다. ③ 만년철물점 할머니는 '나'보다 한아를 더 예뻐한다. ④ 관리 사무소 아저씨와 '나'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⑤ 자전거 가게 사장님은 멍키 스페너를 빌려 주지만 세면대 뚫는 법을 알려 주지는 않는다.

- 11 ④ 이 글은 주인공 한경이가,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⑤ 화장실 전등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는 등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할 만한 소재를 실감 나게 다룸으로써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 12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던 '나'는 낯선 사람에게는 문도 열어 주지 말고 엄마가 집에 없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엄마의 말이 떠오르자, 불안한 마음이 든다. 엄마가 집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낯선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는 엄마랑 같이 오겠다고 돌려대며 급히

관리 사무실에서 나온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가 ㉠과 같이 말한 까닭을 서술함.	3점	총 4점
제시된 글자 수에 맞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3** 이 글의 주인공인 '나'는 어린 동생을 잘 돌보고 아끼는 다정한 언니이며, 만삭인 외숙모가 걱정할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배려심 있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 14** (가)~(라)에서 '나'는 세면대를 스스로 고친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 용기를 얻으며 자신이 성장했음을 느끼게 된다. ③ 세면대를 뚫는 과정은 '나'가 스스로 해낸 일이므로 이 과정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 15** 외숙모는 엄마 없이 단둘이 지내는 '나'와 한아에게 밥을 해주고 싶어서 '나'와 한아를 집으로 부른다. 만삭의 외숙모가 부른 때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나'는 밥을 차리느라 고생했을 외숙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가 외숙모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낀 이유를 서술함.	3점	총 4점
제시된 글자 수에 맞게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6** (마)의 '어떤 말'은 하고 나면 어른스러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말 즉, 성숙한, 타인을 배려하는 말, 다른 사람을 위한 말 등을 의미한다. ㉠은 외숙모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한 말이고, ㉡은 동생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므로 ㉠, ㉡은 성숙한 말, 어른스러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말'이다.

- 17** (다)에서 배수관이 분리되면서 고약한 악취가 나자 한아는 코를 쥐고 고개를 저을 뿐 도망가지 않고 언니 곁을 지키며 든든한 보조 역할을 했으므로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18** (마)에서는 '어른스러움'을 '그늘이 넓은 큰 나무'에 빗대어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의 마지막 연에서는 어른스러워진다는 건 마치 키가 커진 것 같고, 어깨가 넓어진 것 같이 성장의 기회를 주고 마음이 흐트함으로 가득 차는 내면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며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② 그러나 어른스러워지기 위해 고통과 시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마)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19** (나)에서 서준이가 도윤이에게 화를 내며 “김도윤, 너 연습 안 했냐? 왜 자꾸 틀려?”라고 말하자 도윤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미안해. 나 열심히 연습했는데…….”라고 말한다. 따라서 도윤이는 자신이 동작을 자꾸 틀려서 촬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지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사과한 것이 아니다.

- 20** (나)에서 도윤이는 자신의 실수를 비난하는 지우, 서준이의 말에 상처를 받고 위축되지만, 자신을 포용하고 격려해 주는 하

울이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 21** ① 폭력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거나, ②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 ④ 놀리고 비웃는 말, ⑤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므로 바람직한 말하기 태도가 아니다.

- 22** (나)에서 지우와 서준이는 도윤이에게 “아, 짜증 나! 연습을 한 게 그 모양이야?”, “넌 그냥 빠져.”와 같이 말하며 도윤이를 비난하는 반면 하울이는 “애들아, 그만해. 도윤이도 열심히 연습했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 다시 해 보자.”와 같이 말하며 도윤이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지우, 서준이의 말은 도윤이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감을 떨어뜨리지만 하울이의 말은 도윤이를 포용해서 도윤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나.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지우, 서준이의 말과 하울이의 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술함.	2점	총 4점
그러한 말이 도윤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드러나게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23** (가)에서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네. 보기 싫은데…….”, “나도. 진짜 얼굴 좀 그만 봤으면…….”, “이번에는 연기 연습 좀 하셨기를.”과 같은 땀글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므로 바람직한 언어 표현이 아니다. ④ 욕설이나 비속어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말, 조롱하는 말 등도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 24** ㉠, ㉡은 여자와 남자의 성 역할을 고정하는 성차별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표현이다. ③은 성차별적이지 않으면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므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이다. ①, ④, ⑤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②는 성차별적인 내용의 발언이다.

- 25** 사회 관계망 서비스나 온라인 대화방 등 디지털 공간에서는 대면하지 않고 대화하다 보니 상대방이 어떤 표정, 어떤 억양으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오해가 생기기 쉽다. 또한 익명성 때문에 더 쉽게 언어폭력을 사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디지털 공간에서 대면하지 않고 대화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씀.	2점	총 4점
문장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